건축사 524

KIRA
Korea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2012 12
1966년 창간

칼 럼 서울시, '건설공사 입찰 및 계약관행 혁신방안'을 환영한다

에세이 리더의 품격

두껍아 두껍아 헌집 줄께 새집 다오!

KOREAN ARCHITECTS

서울시, '건설공사 입찰 및 계약관행 혁신방안'을 환영한다

City of Seoul welcomes 'Innovations in tender and contract practices for construction work'

조충기 | 편집인 겸 편집국장

서울시가 국내 공공기관 가운데 최초로 300억 원 이상 대형 공사에 적용해온 '턴키발주'(설계 · 시공 일괄입찰방식)를 원칙적으로 중단하고, 입찰담합이나 비리행위 업체에는 불이익을 적용해 시가 입은 피해액을 보상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대형건설공사 입찰 및 계약관행 4대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서울시가 26일 발표한 혁신방안의 기본원칙은 △턴키발주 원칙적 중단 △공정성 확보 △담합 일벌백계 △중소건설업체 참여 등이다. 또 혁신방안에는 그동안 비공개였던 설계평가회의에 시민 참관을 허용하고, 심의과정을 인터넷으로 실시간 중계하는 한편 각종 회의록도 서울시 홈페이지에 모두 공개함으로써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이 포함됐다. 입찰 담합 등 비리를 저지른 건설업체는 사실상 서울시 공사를 낙찰할 수 없도록 입찰제한과 감점 확대 등의 징계도 강화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외에 담합 등으로 서울시가 입은 손해를 배상받기 위한 '손해배상 예정액제'도 도입한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장기적으로 공사비 예정가격 산정 시 표준품셈제도를 폐지하고 실적공사비를 적용하기로 했다. 혁신방안의 주요 내용은 서울시와 25개 자치구는 물론 SH공사 등 산하 공기업에서 시행하는 모든 공사에 적용될 예정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울시 건설 환경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해 참여업체의 의지와 노력이 필요하다"며 "공사금액이 300억 원 이상인 대형 건설공사에 적용하던 턴키발주(설계 · 시공 일괄입찰)를 앞으로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환영할 일이다! 이제라도 건설업자들의 단합과 비리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겠다는 서울시의 의지가 반갑다. 우리나라의 수도다운 서울시의 의지는 곧 희망이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는 일! 이참에 심사위원의 비리에도 가차 없는 적용이 요구된다. 턴키제도의 문제점과 허점에 편승하여 이를 묵인하거나 뒷거래를 하여온 심사 교수들은 이 땅에서 사라져야 마땅하다.

건설에서의 경쟁이란 무엇인가? 제대로 된 경쟁 속에서 선정된 창작물인 설계 도서를 두고 누가 더 경제적으로 시공할 수 있느냐의 능력 아닌가. 공사비 낮추려고 설계내용을 변경하고 더럽거나 추한 짓거리로 일을 따는 제도는 전쟁이상의 것으로라도 싹을 잘라야 한다.
미국에서는 디자인(설계)과 시공이 각각 독립된 계약으로 진행되는 'Design-bid-Build' 방식이 일반적이고 전형적인 방법이다. 만약, 디자인(설계)과 시공이 동시에 진행되는 'Design-Build' 방식(한국의 턴키방식과 유사함)이 활용되는 경우는 공사일정이 매우 시급하거나, 초기에 확실한 프로젝트 비용 산정이 필요할 때, 개략적인 설계도면으로도 프로젝트의 품질을 확보할 수 있을 때, 또는 창의적인 문제해결 방법이 가능할 때 등에 매우 제한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박원순 시장은 기자설명회에서 "로마가 멸망한 건 외적의 침입이 아니라 내부의 부패였다"며 "만연한 부실 공사를 없애기 위해 '부실 공사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건설공사 부실 방지를 위한 혁신방안'도 발표하겠다." 고 했다. 이 어찌 반갑지 아니한가?

리더의 품격

Dignity in Leader

정익현 | 대한건축사협회 이사

이번 가을, 살고 있는 아파트 감나무에 '감이 있는 가을의 풍경을 다 함께 즐기세요'라고 쓴 푯말을 매달았다. 푯말은 얼마 전 비바람에 날아갔지만 홍시가 된 감은 초겨울의 이색적인 풍경으로 사람들의 눈을 즐겁게 한다. 한 해의 막달, 대한민국은 5년에 한 번씩 있는 대통령선거로, 우리 협회는 내년 2월 2년마다 돌아오는 회장선거를 위한 예비 후보자 등록이 시작되어 바야흐로 리더를 선출하는 한 차례 큰 행사를 치른다.

장자 거협(胠篋)편에 수 천 명의 졸개를 거느리고 도둑질로 세상을 어지럽히는 큰 도둑 도척(盜蹠)에 대한 이야기가 있다. 한 번은 도척의 수하가 도척에게 '도둑에게도 도(道)가 있습니까?'라고 묻자 '어느 곳엔들 도가 없겠는가.' 하며 다음과 같이 말한다.

'훔칠 물건이 있는 집을 알아보는 능력이 성(聖)이요,
먼저 들어가는 것이 용(勇)이요,
맨 뒤에 나오는 것이 의(義)요,
되고 안 되는 것을 아는 능력이 지(知)요,
훔친 물건을 고르게 나누는 것이 인(仁)이다.
이 다섯 가지를 갖추지 못하고 큰 도둑이 된다는 것은 천하에 있을 수도 없는 일이다.' 하였다.

위에서 말한 다섯 가지 도(道)를 다시 해석하면 성은 통찰력, 용은 솔선수범, 의는 희생정신 · 책임감, 지는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인은 공평무사(公平無私)의 정신이라고 할 수 있겠다. 우리 협회의 리더가 필요로 하는 덕목을 도척의 다섯 가지 도(道)에 견주어 보았다.
성(聖)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아는 능력,
용(勇)은 회원의 권익을 위해 앞장 서는 마음,
의(義)는 한 일에 대해 책임을 지는 정신,
지(知)는 일을 성공하게끔 하는 지혜,
인(仁)은 회원 모두에게 고루 이로움을 주도록 협회 운영을 하는 것이 아닌가 한다.

대한건축사협회는 얼마 전 임원선거관리규정을 개정하였다. 개정의 주요 골자는 사전선거운동과 기부행위(금품 및 향응 제공)의 원천적인 금지이다. 관행적으로 묵인되어 온 이런 행위를 근절함으로써 공명정대한 선거를 통해 우리의 리더를 뽑자는 자성(自省)의 발로에서였다. SNS가 발달된 세상에 아직도 원시적인(?)인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려 한다면 부끄러운 일이다.
스스로 반성하지 않는 개인이나 조직이 발전할 수 없듯이 얼마간의 고통과 시련을 기꺼이 견딜 마음 없이는 협회의 더 나은 미래를 기대할 수 없다. 멀리 그럴싸해 보이는 신기루를 좇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구겨질 대로 구겨진 건축사의 자존심을 회복시켜 줄 리더를 회원은 원한다. 리더 본인의 꿈이 아닌 회원 모두의 꿈을 실현 시킬 수 있는 리더를….
도척은 또 말한다. '세상 사람들은 모두 제가 모르는 바깥 것을 찾을 줄만 알지, 이미 아는 안의 것을 찾을 줄 모른다. 옳지 못한 것을 그르다고 할 줄만 알지, 이미 옳다고 생각한 것도 때로는 그른 줄은 모른다.'

필자는 대한건축사협회 정회원으로 연세대학교 건축공학과를 졸업하고 예전 건축사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충청북도건축사회장을 역임한 바 있으며, 현재 대한건축사협회 이사로 활동하고 있다.

두껍아 두껍아 헌집 줄께 새집 다오!

Toad, Toad. I'll give you an old house. Then you have to give me a new house!

이창원 | 법무사 이창원 사무소 대표

"두껍아 두껍아 헌집 줄께 새집 다오." 필자의 어린 시절, 흙장난을 하면서 친구들과 놀던 기억이 새롭다.
국내 부동산경기가 끝을 알 수 없는 불황의 늪에 빠져 있는 가운데 건설과 부동산시장의 한 축을 형성하고 있는 이른바 재건축, 재개발시장도 중대한 고비를 맞고 있다.

헌집을 주고 새집을 받는 재건축, 재개발사업을 규율하는 법률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작년 말 국회를 통과하고 올해 2월 1일 공포되어 시행되고 있다.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을 담고 있어서 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로 다양한 정비사업제도를 마련하였다.
종래에는 광역적이고 획일적으로 일정한 지역 내에 있는 기존의 낡은 아파트나 단독주택 등을 철거하고 그 위에 새롭게 아파트나 상가 등을 건설하였으나, 이제는 이러한 전면철거나 광역적이고 획일적인 정비사업뿐만 아니라 각 지역의 지리적 특성과 주민의사를 최대한 반영하여 주거환경을 보전 · 정비 · 개량하거나 소규모로 개선할 수 있도록 주거환경관리사업과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새롭게 도입되었다. 이는 주거문화의 다양성확보라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둘째로 일몰제를 도입하였다.
사업진행이 제대로 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행정관청이 구역지정을 해제하도록 함으로써 주민 간 갈등과 소모적인 비용지출을 줄이도록 하였다. 이러한 일몰제는 사업성 등의 결여로 장기간 사업이 방치되는 것을 예방한다는 차원에서 그동안 입법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던 차에 이번 법 개정을 통하여 새롭게 도입되었다. 다만, 이미 사업을 진행하면서 지출했던 비용의 부담 등과 관련하여 현행법 규정이 불완전하여 법의 시행과정에서 상당한 갈등과 분쟁이 발생하리라 보여지므로 이에 대한 깊이 있는 검토와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셋째로 세입자의 주거권보장을 강화하였다.
정비계획을 수립할 때 세입자의 주거대책을 세우도록 함으로써 경제적 약자인 세입자의 주거권을 보다 두텁게 보장하도록 하였다. 종래에도 주거세입자에 대하여는 임대주택의 우선공급권과 주거이전비 등을 지급함으로써 세입자의 주거권을 보장하였으나 이에 더 나아가 계획수립단계부터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세입자 주거대책을 수립하도록 한 것이다.

우리 헌법은 제10조에서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는 갖는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집은 존엄한 인간이 행복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최소한의 공간적 기초이다.
재건축, 재개발사업의 목적은 사람이 안락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거주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 법과 제도를 만들고 운영하는데 있어서 이러한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지혜와 힘을 모아야 할 때이다.

필자는 현재 재건축 · 재개발과 경매 · 공매 전문법무사로 활동하고 있다.
연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주거환경정비사업전문가과정을 수료했다. 현재 대한부동산학회 포럼위원으로 활동 중이며, 서울특별시 중부기술교육원 공경매사과정에서 부동산사법과 부동산등기법을 강의하고 있다.

송도 글로벌대학 캠퍼스 1단계 2공구

SONGDO GLOBAL UNIVERSITY CAMPUS

건축주 | 송도글로벌대학캠퍼스(주)

설계자 | 최창섭_KIRA | ㈜무영 종합건축사사무소

- 설계팀 : 윤용권(총괄), 반병욱, 곽건섭, 이용수, 배효석, 윤숙희, 장주형, 양형모, 신지호, 이재혁, 정의석, 이영민, 장동수, 최우린, 곽진영_무영건축
  이병규, 최인성, 권현수, 권선욱_A&U
  권순흥, 김명준, 김용선, 허유형, 이윤태, 김영준_단건축
- 전문기술협력
  - 구조분야 : ㈜다원구조안전기술사사무소
  - 전기 · 통신설비분야 : ㈜일신이앤드씨
  - 기계설비분야 : ㈜융도엔지니어링
  - 토목 : ㈜에이스올
  - 조경 : ㈜신화컨설팅

시공자 | 현대건설(주)

대지위치 |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187

주요용도 | 교육연구시설

대지면적(Site Area) | 64,000㎡

건축면적(Building Area) | 25,544.33㎡

연면적(Gross Floor Area) | 128,042.93㎡

건폐율(Building to Land Ratio) | 39.91%

용적률(Floor Area Ratio) | 118.03%

규모(Building Scope) | B2–21F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일부 철골조

주요마감재 | 외부마감_THK24 복층유리, 금속패널
내부마감_비닐무석면타일, 수성페인트, 압면흡음텍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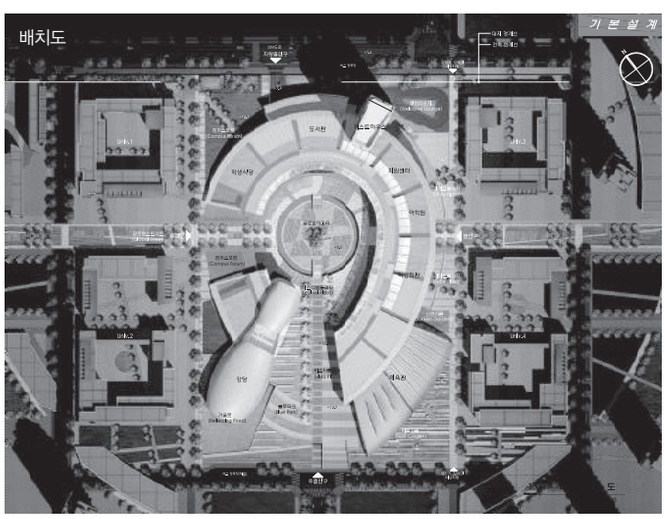
Client | Songdo Global University Campus

Architect | Choi, Chang-seob

General Constractor | Hyundai Engineering & Construction

Location | 187, Songdo-dong, Yeonsu-gu, Incheon, Korea

Structure | R.C, S.C



전경

송도글로벌대학캠퍼스 공동이용시설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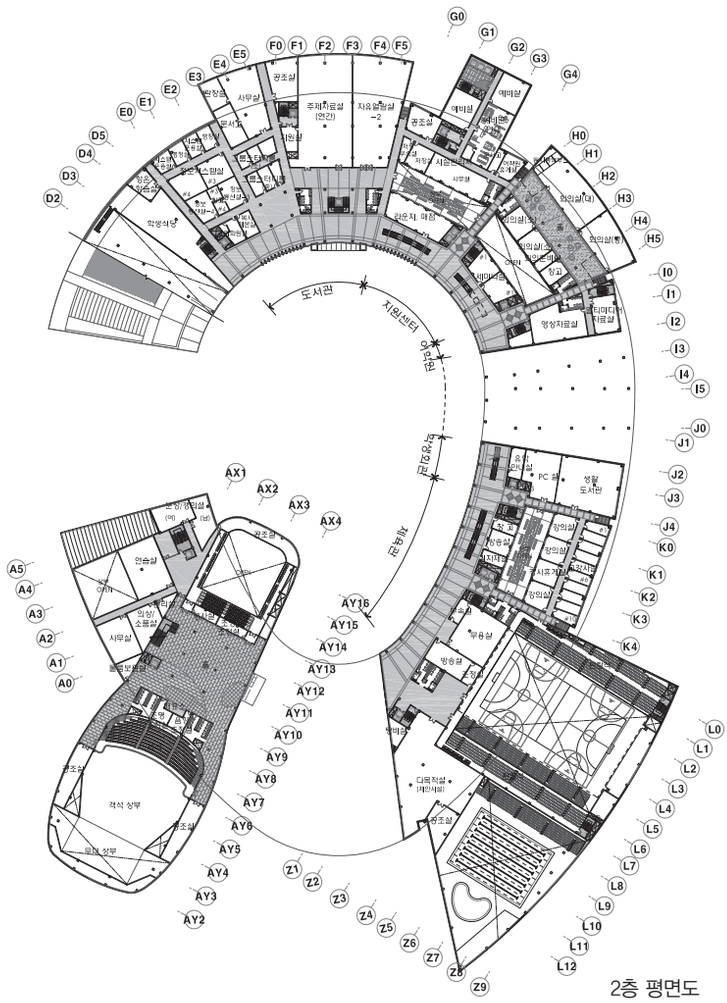
송도글로벌대학캠퍼스는 세계의 명문대학을 유치하여 지역과 대학의 발전을 선도적으로 이끌어나갈 세계적 수준의 송도글로벌대학캠퍼스의 공동이용시설로서 도서관, 학생회관, 강당, 체육관, 지원센터, 게스트하우스, 복합문화시설 등으로 구성된다.

본 시설은 송도글로벌대학캠퍼스 중심코어로서의 역할과 함께, 첨단교육도시 송도의 핵심시설로서의 랜드마크적 상징성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되었다. 이에, 각각의 캠퍼스의 공동이용시설로써 이용편의성을 고려하고 상징적 형상화를 위하여 집약적 시설배치가 극대화된 일체식 원형 Mass를 계획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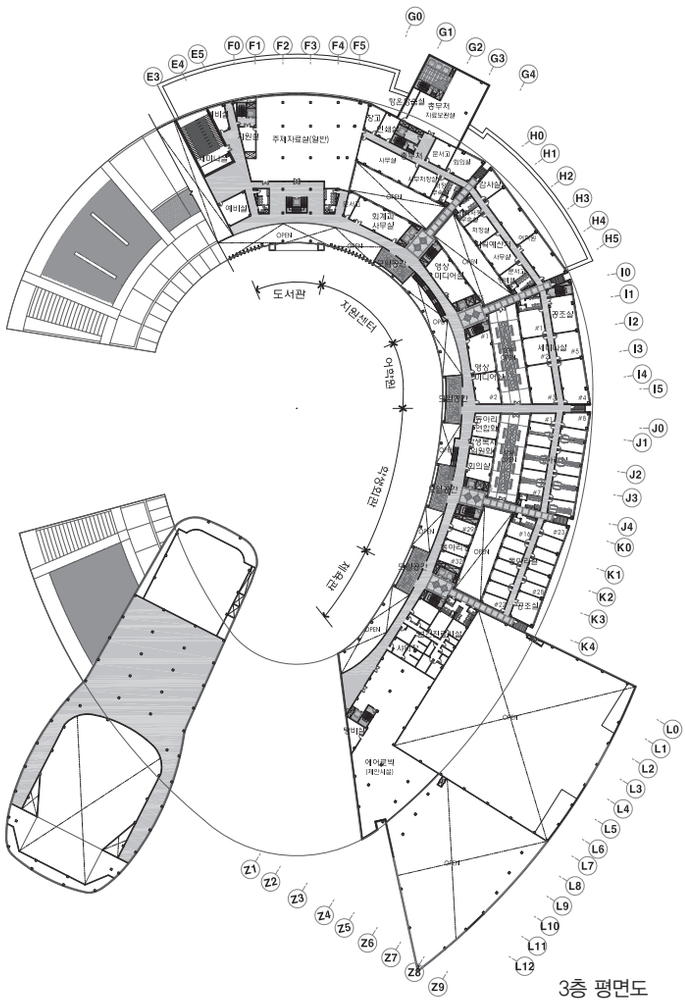
또한, 해안매립지라는 태생적 장소성을 고려하여 송도의 새로운 자연환경을 만들어주는 의미로 Landscape Architecture 개념을 도입, 풍부한 옥상녹화와 적극적 자연지반의 활용을 통해 다국적 학생들 간의 커뮤니티 형성을 위한 외부공간계획을 기본 전제로 삼았다.

This project attracts world's prestigious universities and the joint facility of Songdo Global Campus which leads development of region and university compose of library, student union, auditorium, gymnasium, support center, guest house, multicultural facility, etc. As a center core of Songdo Global Campus, core facility of Songdo high-tech education city should have a landmark-like symbolism. The joint facility for each campus considered utilization convenience, and a monolithic round shape mass was designed with maximized intensive facility arrangement for symbolic visualization. Introduce Landscape Architecture concept as meaning to create a new natural environment of Songdo considering coastal landfill as the origin and make exterior space design as standard premise to create community between multinational students through plenty of tree-planting on rooftop and use of nature base.

조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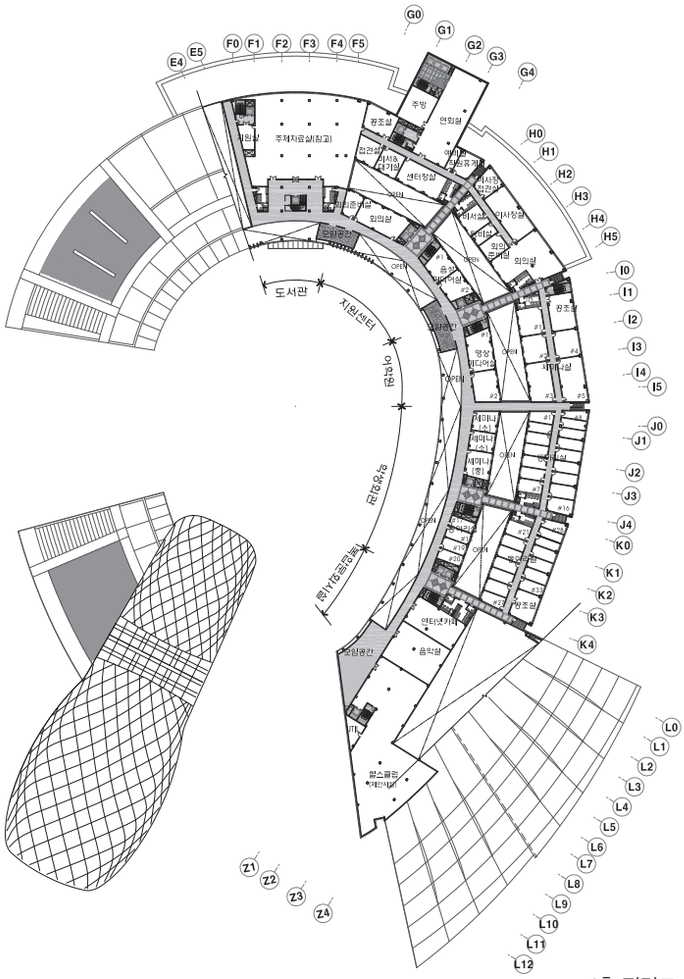


2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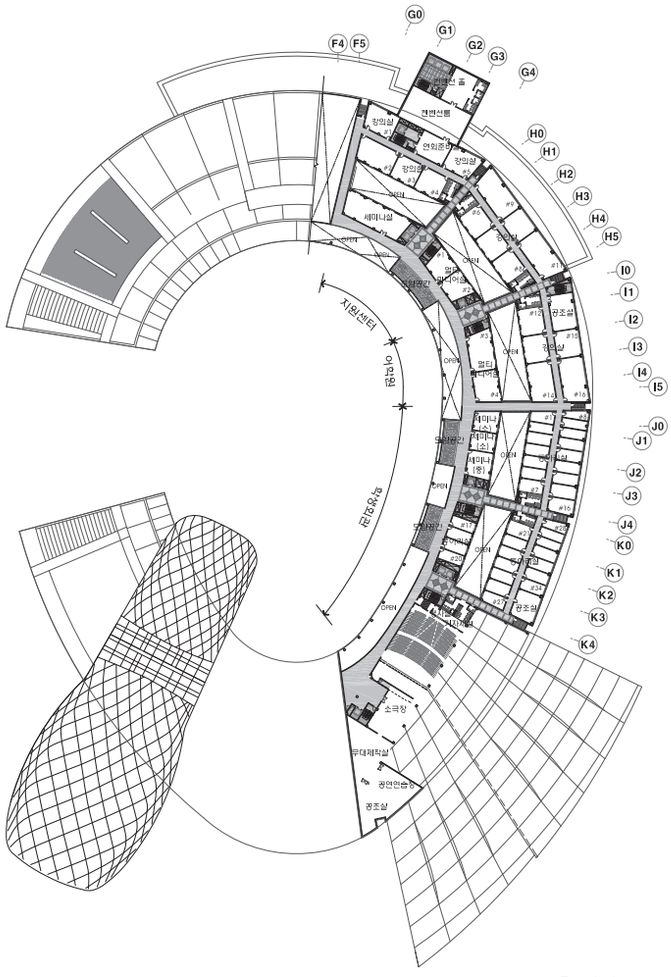


3층 평면도

송도글로벌대학캠퍼스의 중심코어



4층 평면도



5층 평면도

강당 외부 전경

글로벌 아고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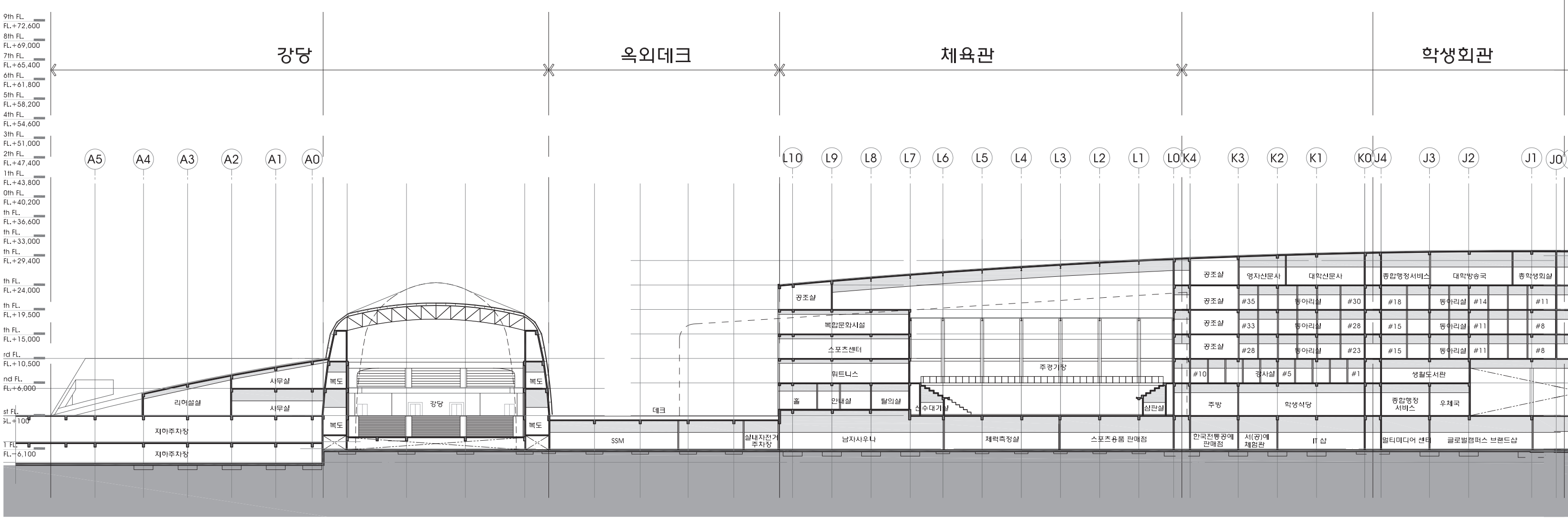
송도글로벌대학캠퍼스 석경

게스트하우스

라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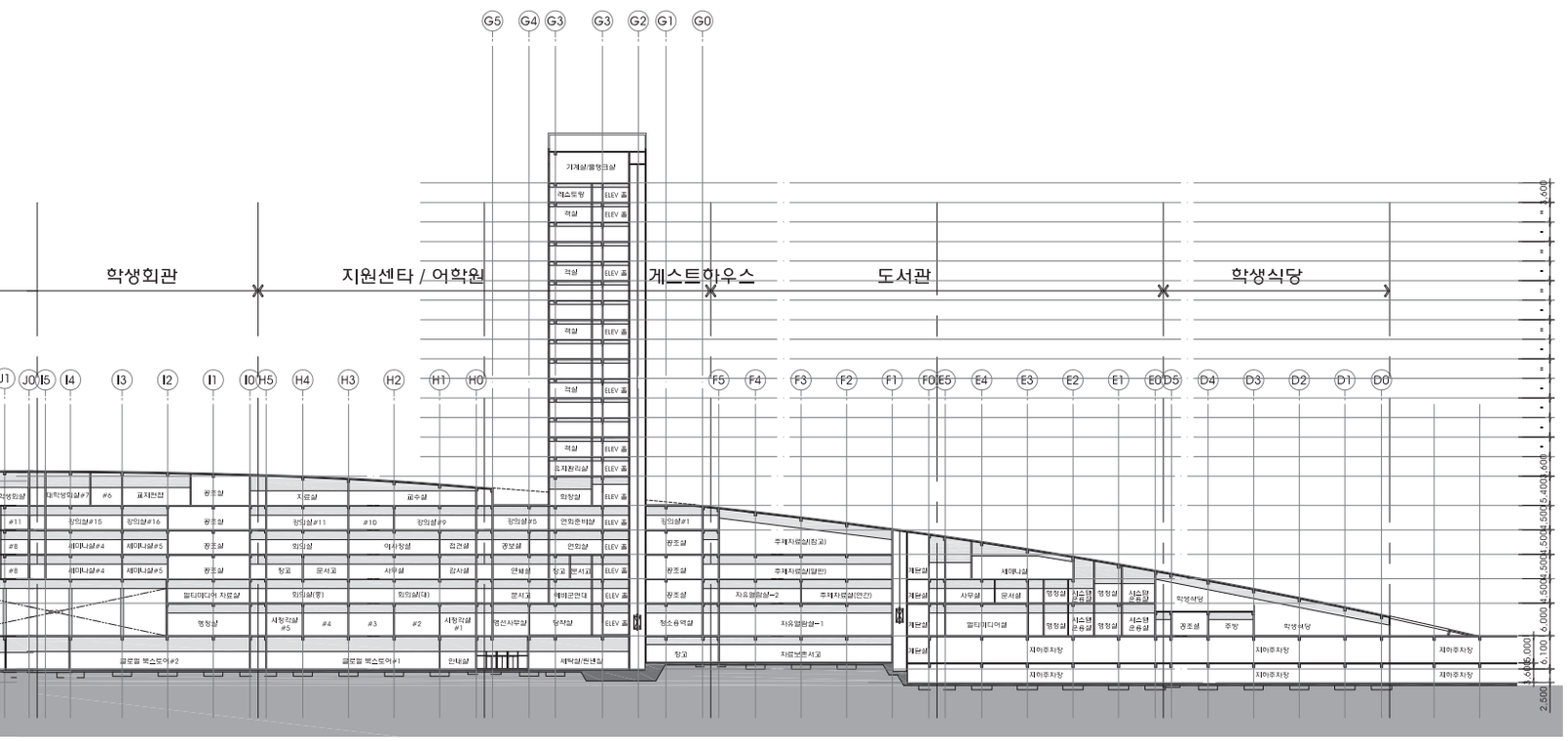
홀

강당


강당
옥외데크
체육관
학생회관
A5
A4
A3
A2
A1
A0
L10
L9
L8
L7
L6
L5
L4
L3
L2
L1
L0
K4
K3
K2
K1
K0
J4
J3
J2
J1
J0

체육관 보조시설

체육관 주경기장



단면전개도

목포시 북항 해양수산 복합공간

MOKPO-SI BUKHANG MARINE FISHERIES COMPLEX

건축주 | 목포시청

설계자 | 노형래_KIRA | ㈜건정 종합건축사사무소

- 설계팀 : 박진수, 조영채, 유진선, 김은영
- 전문기술협력
  - 구조분야 : (주)한울구조 안전기술사사무소
  - 전기 · 통신설비분야 : (주)유일엔지니어링
  - 기계설비분야 : (주)동도엔지니어링, (주)진성엔지니어링

감리자 | ㈜종합건축사사무소 동일감리단

시공자 | ㈜호반건설

대지위치 | 전남 목포시 산정동 1110-4외 2필지, 지선공유수면

주요용도 |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대지면적(Site Area) | 22,329㎡

건축면적(Building Area) | 4,276.90㎡

연면적(Gross Floor Area) | 6,996.46㎡

건폐율(Building to Land Ratio) | 19.15%

용적률(Floor Area Ratio) | 31.33%

규모(Building Scope) | 3F

구조 | 철근콘크리트 + 철골조

주요마감재 | 외부마감_ 폴리메탈패널, 루프데크패널, 칼라복층유리

설계기간 | 2007. 04 ~ 2007. 12

공사기간 | 2008. 06 ~ 2011. 03

Client | Mokpo City Hall

Architect | Roh, Heoung-rae

Project team | Park, Jin-su /Jo, Young-chae / Yoo, Jin-sun / Kim, Eun-young

General Constractor | Hoban Construction

Location | 1110-4, Sanjung-dong, Mokpo-si, Jeollanam-do, Korea

Structure | R.C, S.C

Structural Engineer | Hanwool Structure Engineer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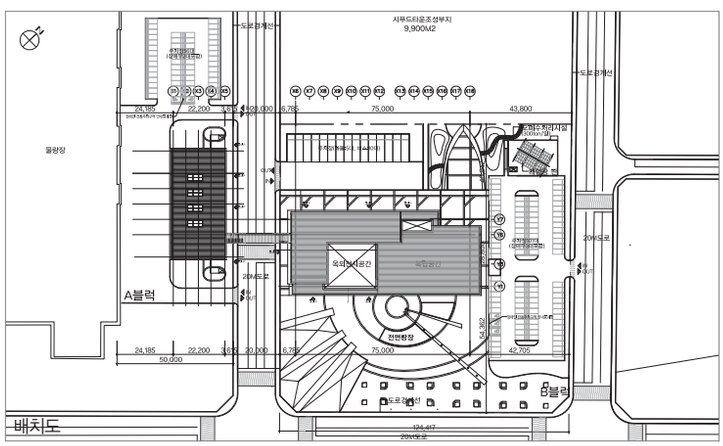
HVAC Engineer | Dongdo M&C In Spire, Jin-seng Engineering

Electrical Engineer | yooil engineering

Finishing Materials | polymetal panel, roof deck panel, pair glass

Design period | 2007. 04 ~ 2007. 12

Construction period | 2008. 06 ~ 2011. 03



배치도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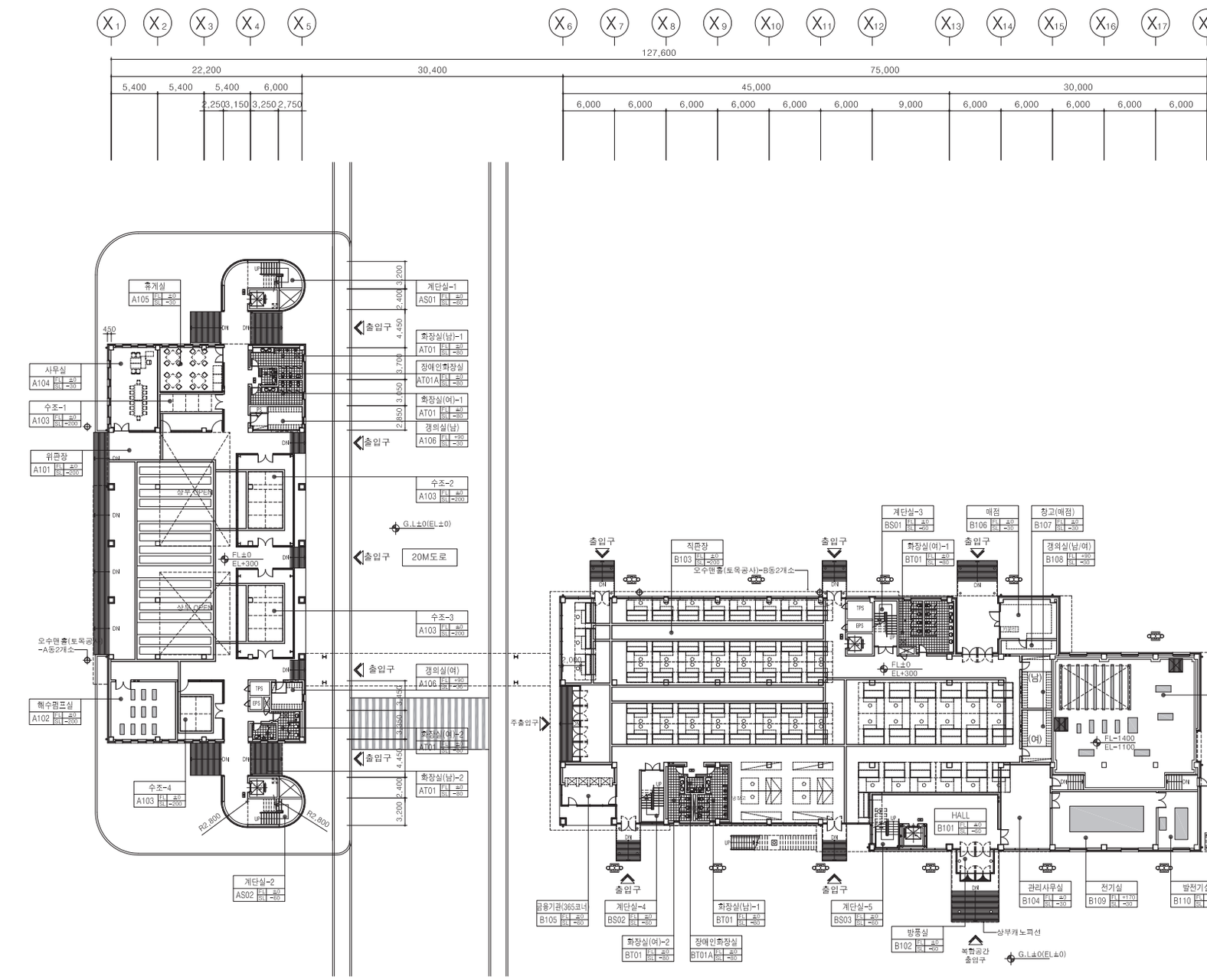
2층 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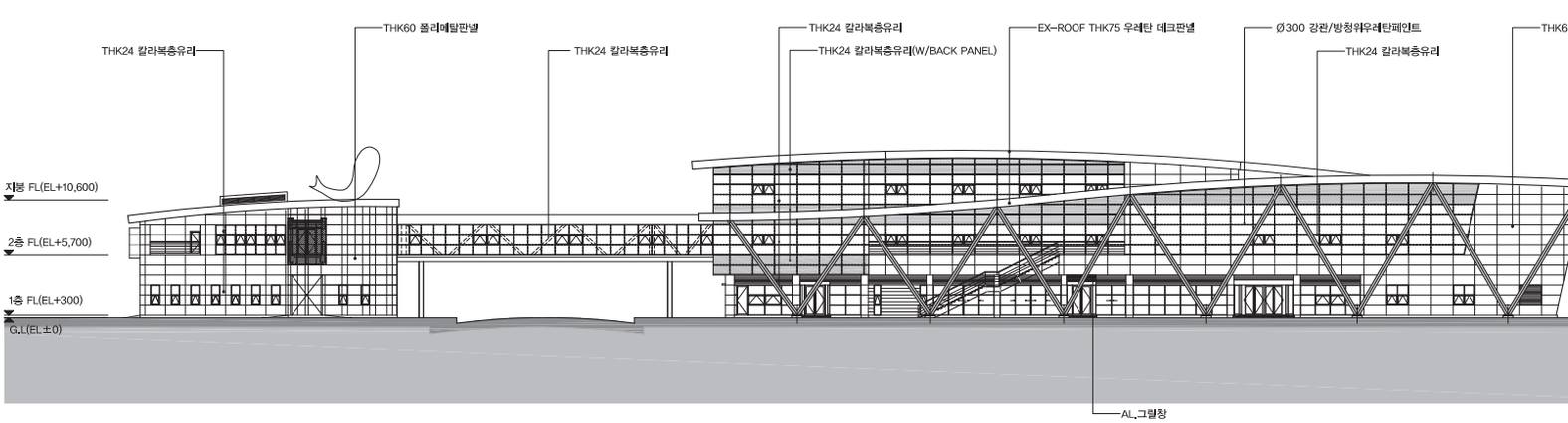
목포 해양수산 복합공간은 목포의 해양수산자원을 홍보/전시와 관람을 접목한 공간에 연근해 어업인을 지원하는 지역특산물의 직판기능을 갖춘 시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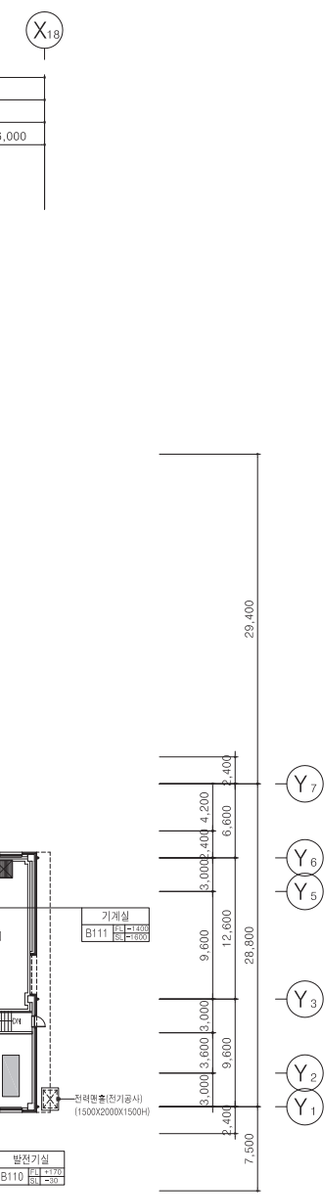
대지는 북항의 항만구역으로 북측으로 바다와 접해있고 주변에 높은 건물이 없어 사면으로 열려있는 환경을 가졌다.

이 복합공간의 2층 옥외 중정마당을 중심으로 지붕을 교차시켜 잔잔한 파도 형상의 곡선 입면은 목포 북항의 역동성과 관람객의 즐거움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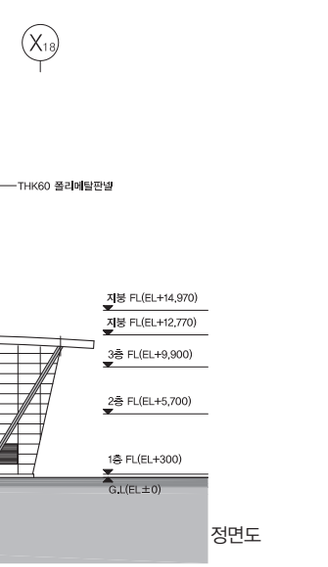
또한, 옥외 중정마당은 1층의 위판장과 직판장, 2층의 전용출입구로 분리된 전시실과 다목적강당, 3층의 전망 카페테리아 등 각각의 기능별 공간을 조닝하고 연결브릿지를 통한 공간의 연결은 복합공간으로써의 매개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


X1 X2 X3 X4 X5 X6 X7 X8 X9 X10 X11 X12 X13 X14 X15 X16 X17
127,600
22,200 30,400 75,000
5,400 5,400 5,400 6,000 45,000 30,000
2,250 3,150 3,250 2,750
6,000 6,000 6,000 6,000 6,000 6,000 9,000 6,000 6,000 6,000 6,000 6,000
휴게실 A105
사무실 A104
수조-1 A103
위관장 A101
수조-2 A103
수조-3 A103
수조-4 A103
해수펌프실 A102
계단실-1 AS01
화장실(남)-1 AT01
장애인화장실 AT01A
화장실(여)-1 AT01
갱의실(남) A106
갱의실(여) A106
화장실(여)-2 AT01
화장실(남)-2 AT01
계단실-2 AS02
출입구
20M도로
G.L±0(EL±0)
FL±0 EL+300
상부 OPEN
오수맨홀(토목공사)-A동2개소
주출입구
R2,800
계단실-3 BS01
매점 B106
창고(매점) B107
직판장 B103
오수맨홀(토목공사)-B동2개소
화장실(여)-1 BT01
갱의실(남/여) B108
HALL B101
관리사무실 B104
전기실 B109
발전기실 B110
금융기관(365코너) B105
계단실-4 BS02
화장실(남)-1 BT01
계단실-5 BS03
방풍실 B102
장애인화장실 BT01A
화장실(여)-2 BT01
상부캐노피선
복합공간 출입구
G.L±0(EL±0)


THK24 칼라복층유리
THK60 폴리에틸판넬
THK24 칼라복층유리
THK24 칼라복층유리
THK24 칼라복층유리(W/BACK PANEL)
EX-ROOF THK75 우레탄 데크판넬
Ø300 강관/방청우레탄페인트
THK24 칼라복층유리
THK6
지붕 FL(EL+10,600)
2층 FL(EL+5,700)
1층 FL(EL+300)
G.L(EL±0)
AL.그랄창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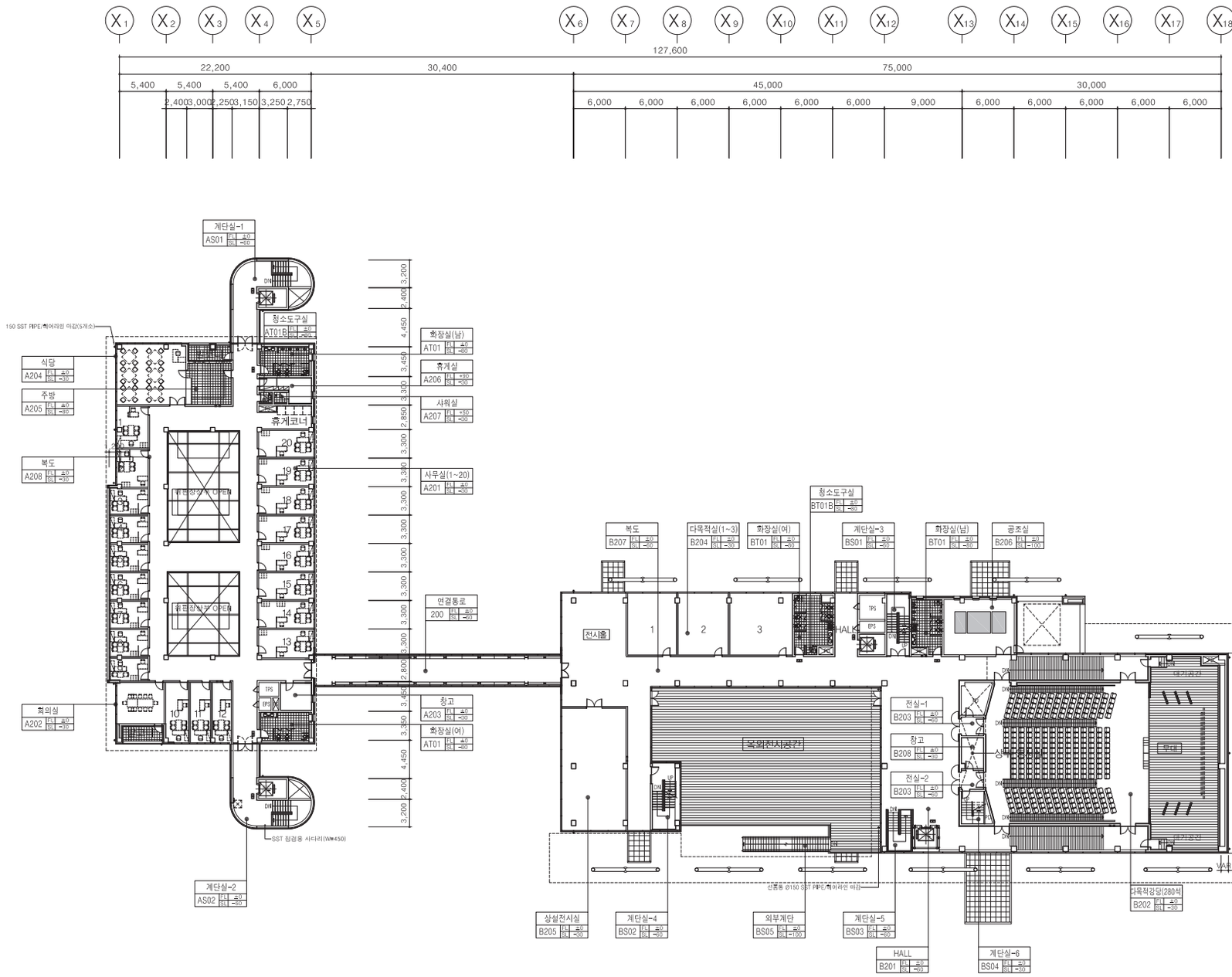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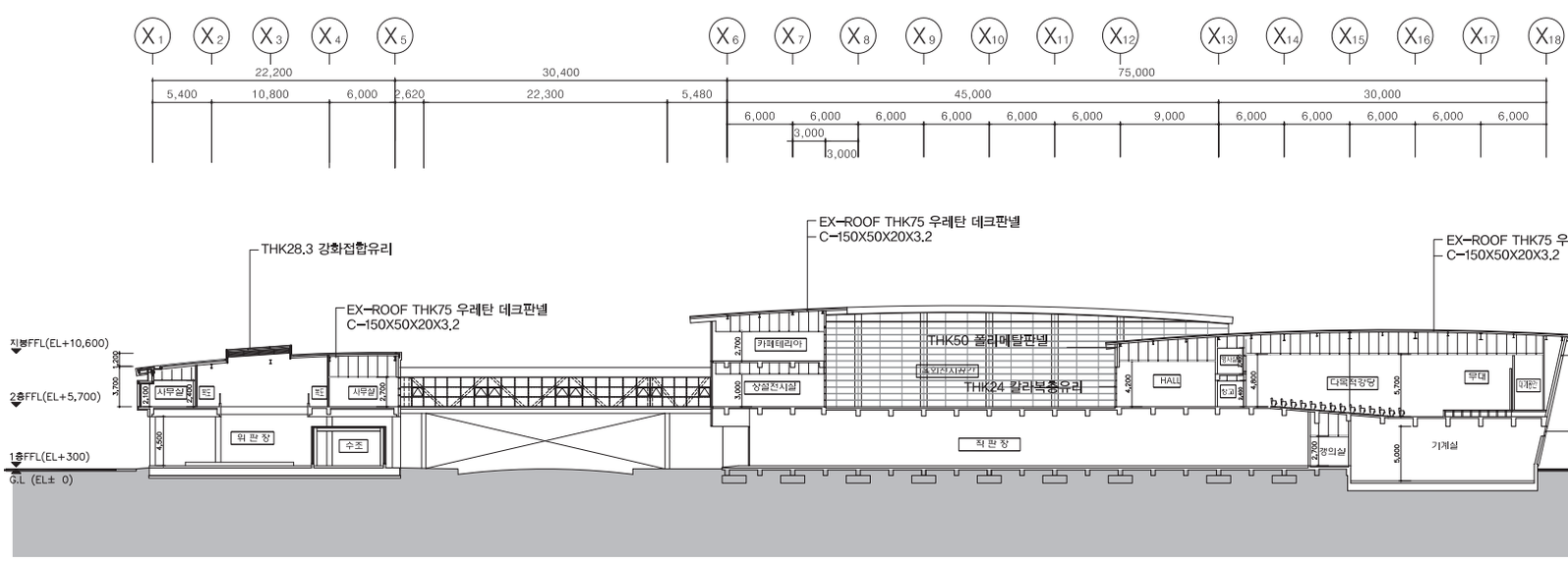
정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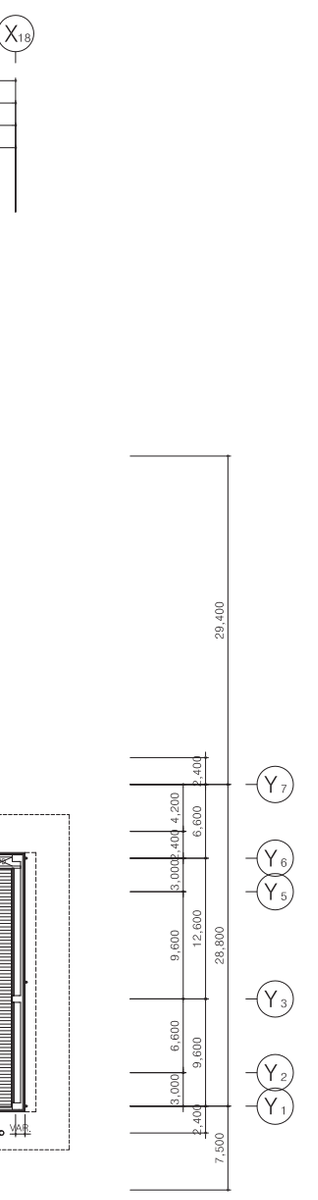
정면뷰

정면(야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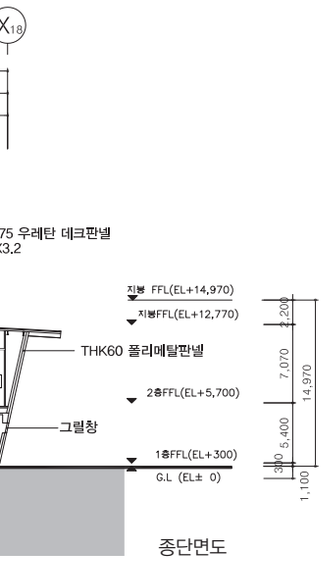
연결브릿지


127,600
22,200
30,400
75,000
45,000
30,000
계단실-1
AS01
청소도구실
AT01B
화장실(남)
AT01
휴게실
A206
샤워실
A207
식당
A204
주방
A205
복도
A208
휴게코너
사무실(1~20)
A201
연결통로
200
창고
A203
화장실(여)
AT01
회의실
A202
계단실-2
AS02
복도
B207
다목적실(1~3)
B204
화장실(여)
BT01
청소도구실
BT01B
계단실-3
BS01
화장실(남)
BT01
공조실
B206
전시홀
HALL
목회전시공간
전실-1
B203
창고
B208
전실-2
B203
무대
상설전시실
B205
계단실-4
BS02
외부계단
BS05
계단실-5
BS03
HALL
B201
계단실-6
BS04
다목적강당(280석)
B202


22,200
30,400
75,000
45,000
30,000
THK28.3 강화접합유리
EX-ROOF THK75 우레탄 데크판넬
C-150X50X20X3.2
EX-ROOF THK75 우레탄 데크판넬
C-150X50X20X3.2
EX-ROOF THK75 우
C-150X50X20X3.2
지붕FFL(EL+10,600)
2층FFL(EL+5,700)
1층FFL(EL+300)
G.L (EL± 0)
사무실
복도
위 판 장
수조
카페테리아
상설전시실
THK50 폴리메탈판넬
THK24 칼라복층유리
HALL
다목적강당
무대
직 판 장
기계실



2층 평면도



종단면도

옥외전시데크공간

출입구

외부계단

위판장

더 힐 갤러리
WHITE CRYSTAL THE HILL

건축주 | 김상운(한스자람.주)

설계자 | 신창훈_KIRA | 운생동 건축사사무소㈜

- 설계팀 : 김경태, 심재현, 최영은, 안보영, 양기란
- 전문기술협력
  - 구조분야 : 터구조
  - 인테리어분야 : usd design

시공자 | 금호건설㈜

대지위치 |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 810번지내
주요용도 | 근린생활시설
대지면적(Site Area) | 683.14㎡
건축면적(Building Area) | 485.076㎡
연면적(Gross Floor Area) | 2,730.31㎡
건폐율(Building to Land Ratio) | 71%
용적률(Floor Area Ratio) | 562.8%
규모(Building Scope) | B2–4F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주요마감재 | 외부마감_ AL 타공패널
내부마감_ 인조대리석
설계기간(계획/실시) | 2010. 06 ~ 2011. 06
공사기간 | 2011. 06 ~ 2012. 07
사진(Photographer) | Sergio Pirrone

Client | Kim, Sang-un
Architect | Shin, Chang-hoon
Project team | Kim, Kyeong-tae / Sim, Jae-hyeon
Choi, yeong-eun / An, Bo-yeong / Yang, Ki-ran
General Constractor | Kumho E&C
Location | 810, Hannam-dong, Yongsan-gu, Seoul, Korea
Structure | R.C
Interior Design | usd design
Structural Engineer | thekujo
Finishing Materials | interior_AL Punching Metal
exterior_Mock Marble
Design period | 2010. 06 ~ 2011. 06
Construction period | 2011. 06 ~ 2012. 07

한남동 주거단지의 커뮤니티시설중의 하나인 근린생활시설건축을 대지적 지형으로 치환하는 작업으로 더힐갤러리를 제안한다. 서울에서 아파트 근린생활시설은 주거시설에 비해서 디자인에 대한 비중을 주지 않는 주변의 건축으로 치부되고 있다. 우리는 이번 프로젝트를 통하여 이 주변적 건축을 새로운 커뮤니티 프로그램적 적절성의 역할을 복원하는 시도로 삼고자 한다. 대규모 주거단지를 구성하면서 기존의 지형의 파괴로 만들어진 자연적 단절을 새로운 지형의 맵을 이용하여 환원하는 과정을 가진다. 자연을 연결하는 인공산과 같은 도시적 역할을 구성한다. 기존의 더힐 아파트단지와는 확연하게 구분되는 별종의 아웃라이어(outlier)와 같은 존재이며 대지의 형상을 삼각형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추상적인 스킨으로 변환시킨다. 크리스토의 작업과 같이 기존의 건물을 새로운 막으로 덮어내고 새롭게 탄생시키는 일련의 대지예술과 같은 방식을 개입하였다. 쭈글쭈글한 흰색막을 기하학적인 건축어휘로 변환시켜 크리스털과 같은 공간을 내외부에 완성한다. 랜드스케이프이며 빛의 산으로써의

한남대로 북단에서 본 전경

랜드마크가 된다. 경사를 따라서 올라가는 대지의 프레임은 축제와 이벤트를 수용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의 장치이며 내외부의 이중막으로 작용하여 풍경과 환경을 제어하는 중간 매개체의 공간을 구성한다.

중간매개체적 스킨은 내부의 기능과 프로그램에 따라서 변화되는 반투과 형식의 변화를 구성한다. 경사스킨형식과 외부 프레임 스킨부분의 적절한 조합에 의해서 다이내믹한 빛의 산을 구성한다. 에코데크를 포함한 중간 중간 보이드 되어 있는 이벤트 조경과 같은 부분의 인공의 산의 자연적 조경부분으로 구성된다. 한남동 주거단지와 도시를 연결하는 관문이자 연결고리로써의 센터 기능도 수용한다. 도시로 접근하는 게이트웨이로서 도시 연결체로써의 문화센터를 구성한다. 커뮤니티 관망대와 같은 역할과 한남동 주거단지의 메모리를 기록하는 문화비전데크로써의 역할을 제공한다.

건축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덮고 있는 인공의 스킨의 시스템은 다양한 건축의 기능과 프로그램에 따라서 다르게 작용하는 환경조절 시스템을 가진다. 이중의 지붕과 같은 역할을 통하여 빛환경을 제어하는 부분과 지붕보이드를 통한 바람 길을 구성하는 공기적 친환경의 부분, 솔라시스템, 솔라루버 등을 이용한 제2의 에너지 시스템, 우수집약과 이용을 통한 친환경적 수공간을 만드는 등 다양한 친환경적인 시스템을 구성하는 인공산의 개념을 적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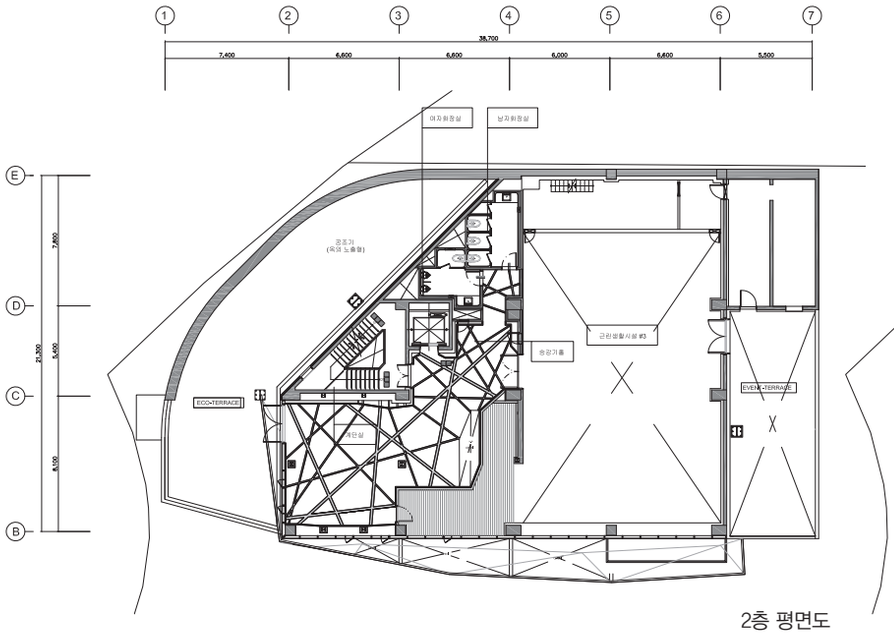
인공데크로써의 야외활동과 산책과 야외 리테일 갤러리 등의 다양한 이벤트를 수용하는 랜드스케이프적 시스템, 건축의 루프층과 새로운 지붕과 같은 부분의 옥상조경, 옥상 휴식, 옥상이벤트 등을 수용하는 친환경 zone, 인공데크에서 다양한 이벤트 – 야외공연, 이벤트 숲, 이벤트가든 등을 포함한 자연적 보이드 공간을 구성하는 친환경적인 시스템을 구성한다.

내부공간은 외부적 프레임을 보이드화 시킨 초현실적인 공간을 구성하려 하였다. 외피의 펀칭율의 차이에 의해 발생하는 빛의 밀도와 겹치며 편집증적인 프레임의 천정, 벽, 바닥에 이르는 연속과 겹침을 통해서 들뢰즈적 창조의 공간을 실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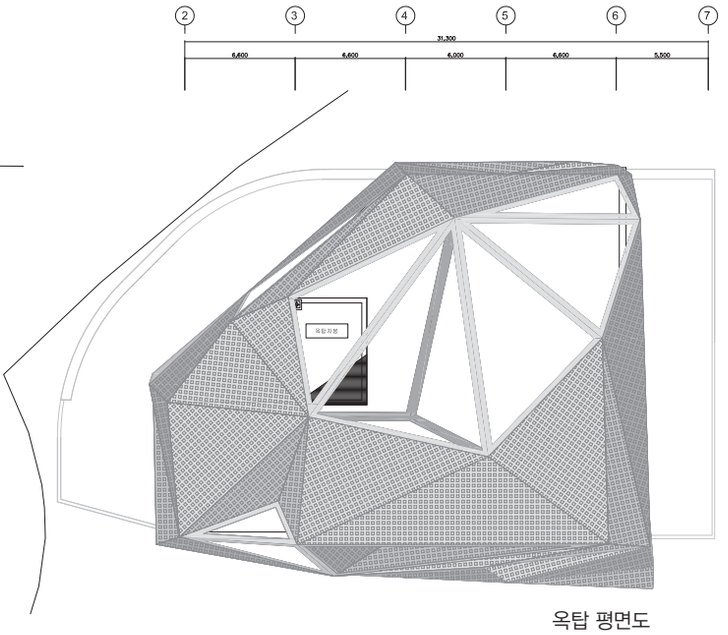
근린공원에서 본 전경

주출입구에서 본 측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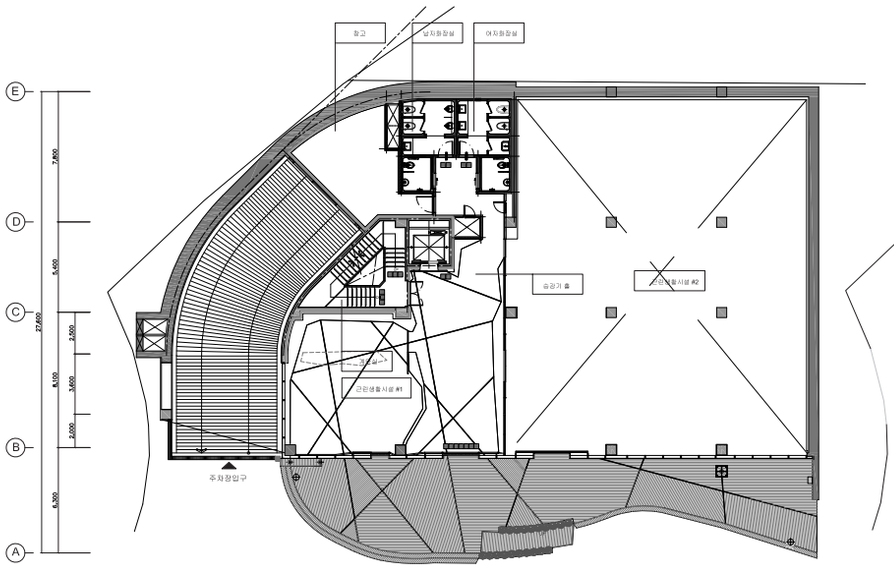
1층 cafe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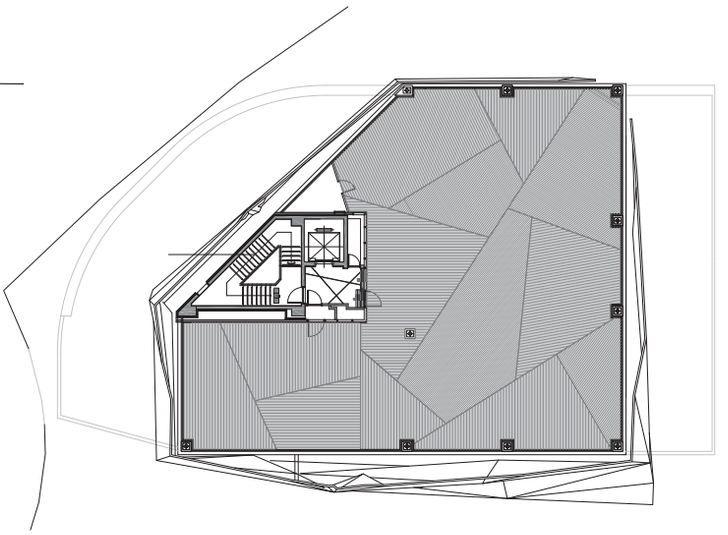
2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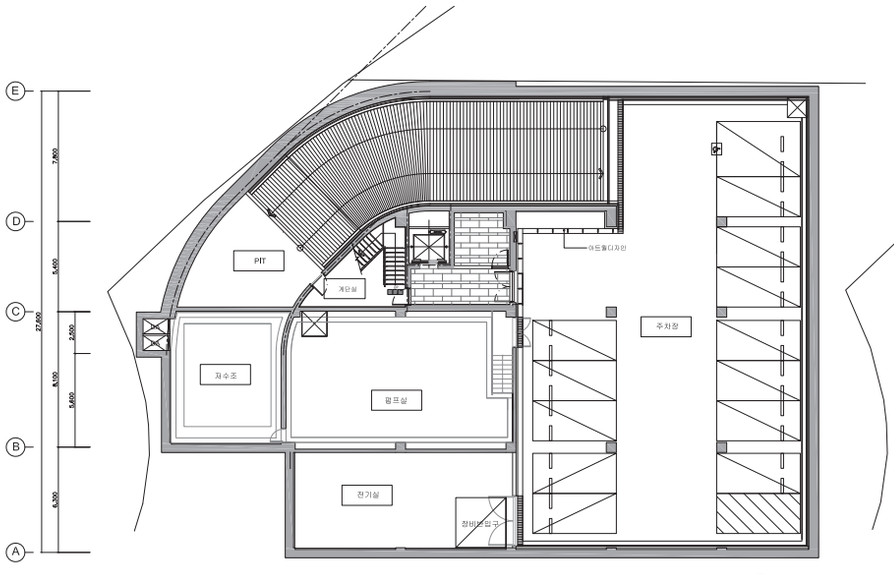
옥탑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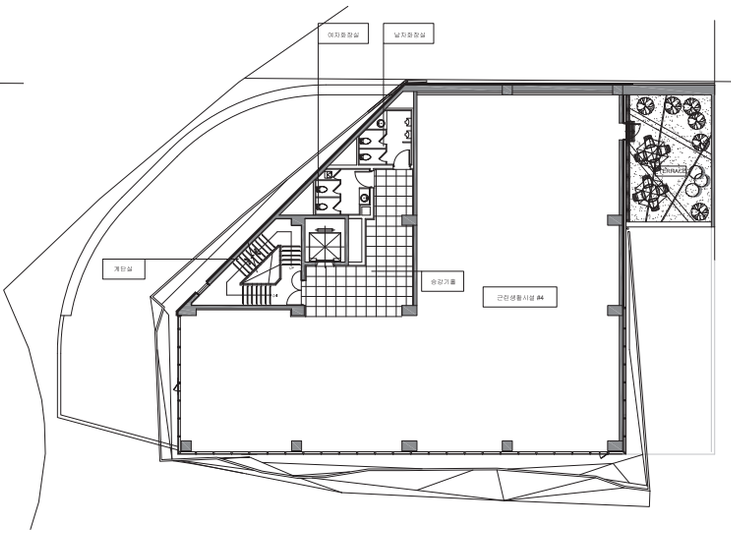
1층 평면도



옥상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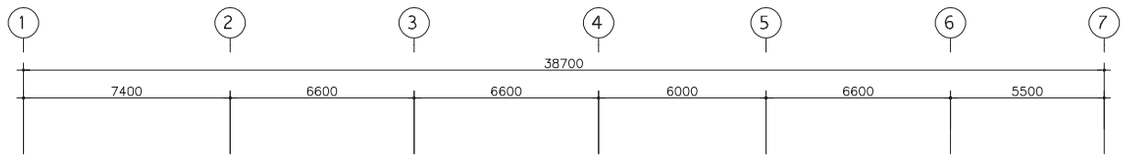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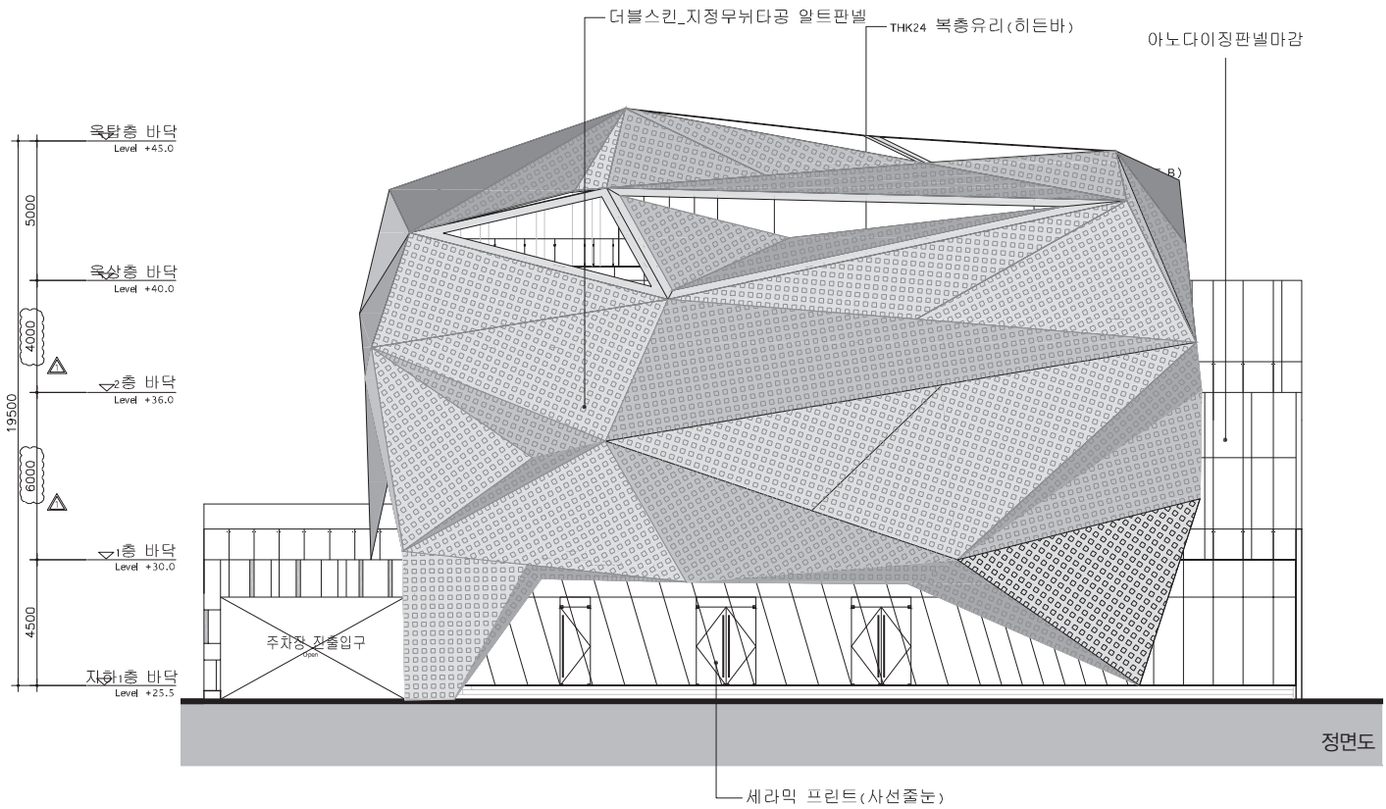
지하 1층 평면도



3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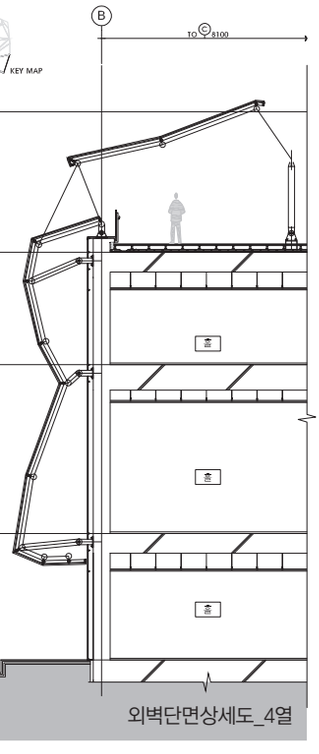
2층 커뮤니티 공간


1
2
3
4
5
6
7
38700
7400
6600
6600
6000
6600
5500


더블스킨_지정무늬타공 알트판넬
THK24 복층유리(히든바)
아노다이징판넬마감
옥탑층 바닥
Level +45.0
옥상층 바닥
Level +40.0
2층 바닥
Level +36.0
1층 바닥
Level +30.0
지하1층 바닥
Level +25.5
19500
5000
4000
6000
4500
주차장 차출입구
세라믹 프린트(사선줄눈)
정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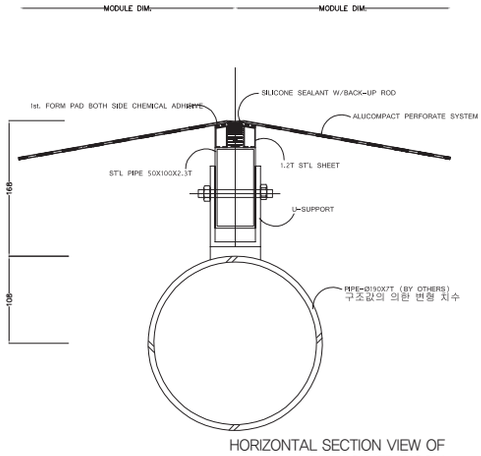
ROOF PT SL±0
GL +45.0
ROOF SL±0
GL +40.0
2층 SL±0
GL +36.0
1층 SL±0
GL +30.0
B1층 SL±0
GL +25.5

1층 로비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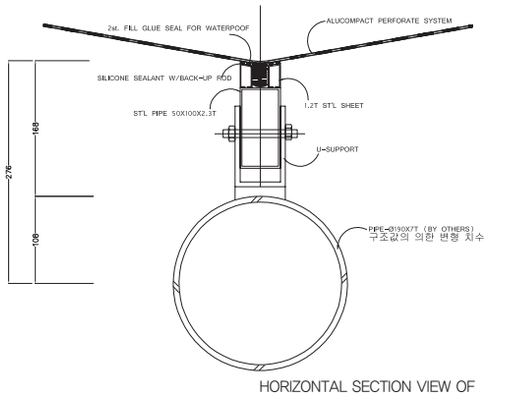


외벽단면상세도_4열

옥상 이벤트 정원



HORIZONTAL SECTION VIEW OF
MULLION/TRANSOM



HORIZONTAL SECTION VIEW OF
MULLION/TRANSOM

타공패널디테일_더블스킨

바우하우스
BAUHAUS

건축주 | 이종익

설계자 | 박상현_KIRA | 건축사사무소 갑목

- 설계팀 : 오세봉, 김현수, 김성진
- 전문기술협력
  - 구조분야 : 송우영(모아구조)
  - 전기 · 통신설비분야(소방포함) : 정진학(하나엔지니어링)
  - 기계설비분야(소방포함) : 정진학(하나엔지니어링)

감리자 | 박상현(건축사사무소 갑목)

시공자 | 류석법(전원건설)

대지위치 |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시랑리 동부산관광단지 685-10번지

주요용도 | 단독주택(다가구주택) / 제2종 근린생활시설(사무소)

대지면적(Site Area) | 330㎡

건축면적(Building Area) | 182.86㎡

연면적(Gross Floor Area) | 481.48㎡

건폐율(Building to Land Ratio) | 55.41%

용적률(Floor Area Ratio) | 145.9%

규모(Building Scope) | 3F

구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주요마감재 | 외부마감_ 제주산현무암, 징크판, 슬레이트석, 적삼목
내부마감_ 온돌마루판, 고급벽지

설계기간 | 2010. 07. 01 ~ 2011. 03. 30

공사기간 | 2011. 04. 07 ~ 2011. 07. 28

Client | Lee, Jong-ik

Architect | Park, Sang-hyeon

Project team | O, Se-bong / Kim, Hyeon-su / Kim, Seong-jin

General Constractor | Ryu, Seok-beop

Location | 685-10, Sirang-ri, Gijang-eup, Gijang-gun, Busan, Korea

Structure | R.C

Structural Engineer | MOA, Song, Woo-you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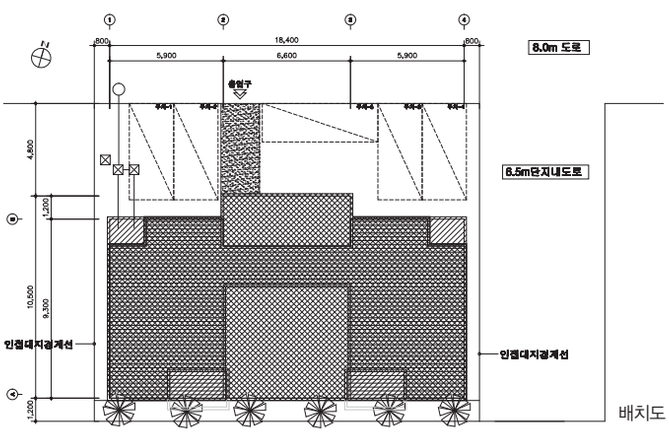
HVAC Engineer | Jeong, Jin-hak

Electrical Engineer | Jeong, Jin-hak

Finishing Materials | Jeju basalt, Zinc plate

Design period | 2010. 07. 01 ~ 2011. 03. 30

Construction period | 2011. 04. 07 ~ 2011. 07. 28



배치도

프롤로그

해운대에서 해안을 끼고 31번 국도를 따라 올라가다보면 송정 동부산관광단지 내 택지개발 조성지로 기반시설이 구축되고, 듬성듬성 가옥들이 들어설 때 현장에서의 느낌은 아늑함과 시원한 개방감을 느낄 수 있었다.
멍두산이 북, 서쪽을 받쳐주고 동, 남향은 바다가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완만한 경사지에 건축주는 도예작업실과 주민참여 교육할 수 있는 공간을 요구 하였기에 단독주택과의 동선은 최대한 분리하고 이미지는 하나로 묶는 디자인을 고려하게 되었다. 번잡한 도심에서 벗어나 조금은 한적하고 부산을 축소해 놓은 듯 눈앞에 푸른 바다와 뒷산, 배산임수의 자연지형과 어우러져 있는 송정 바닷가의 주택을 소개하고자 한다.

배치

주택의 기능과 공예교육공간의 기능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배면 주도로와

나란히 주차를 배치하고 접근성과 연계성을 강화하였다.
북측이 높고 남측 바닷가로 완만한 경사지의 부지를 그대로 순응하고 그래서 대지레벨을 이용한 동선분리와 조망권 확보를 부여하였다.

평면

도예작업실과 주택공간의 동선 분리로 기능 효율성과 합리성을 확보하고 외부 데크를 매개로 내.외부 공간의 적극적 연계 및 친환경 공간을 제공한다. 주방과 욕실을 북측에 배치하고, 거실을 남측 전면에 배치함으로써, 조망권 확보에 최대한 초점을 맞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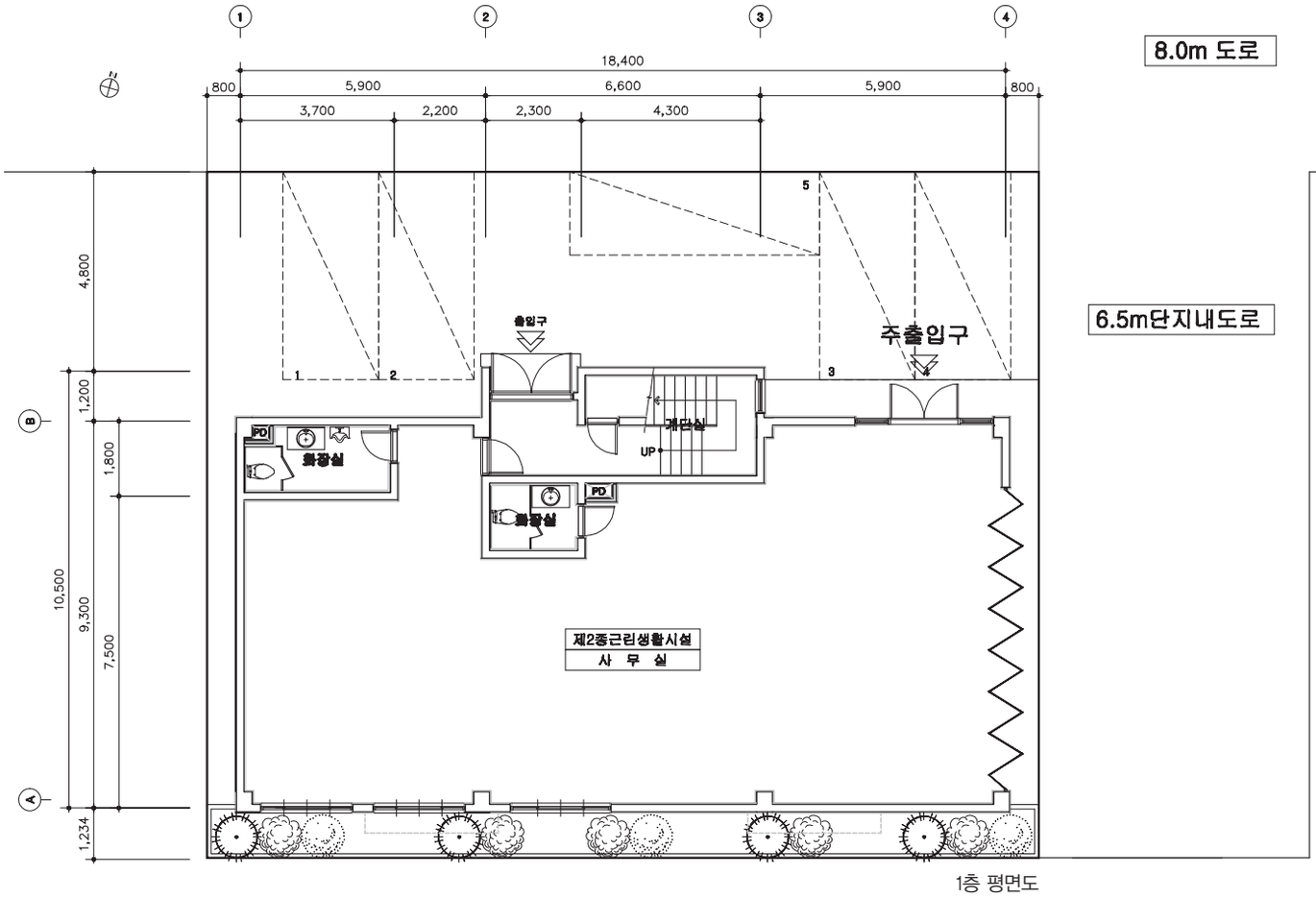
입면

정면 파사드 주거영역은 넓은 창으로 동해바다를 넉넉히 조망할 수 있게 하였고, 2층 발코니의 돌출과 3층 데크를 들여 배치하여 같은 발코니의 완충공간이지만 오목함과 볼록함으로 역동적인 이미지를 부여함으로써 정면의 밋밋함을 상쇄하고 측면에서 보면 전면지붕이 조금 높은 경사지붕으로 바다를 조망하는 듯한 느낌으로 매스를 잡고, 외부 돌마감은 제주산 현무암으로 짙은 회색이지만 가까이 들여다보면 구멍이 뚫려 있어 무겁지 않은 느낌을 갖도록 유도하고 스카이라인을 고려한 지붕 또한 제주산 현무암과 같은 색인 징크판으로 가벼우면서도 통일감을 갖도록 조율하였다. 그리고 제주산 현무암은 수분의 농도에 따라 여러 가지 질감을 나타내 바닷가의 날씨만큼이나 변화 있는 질감으로 지리적 조건과 연계성을 고려하였다.

단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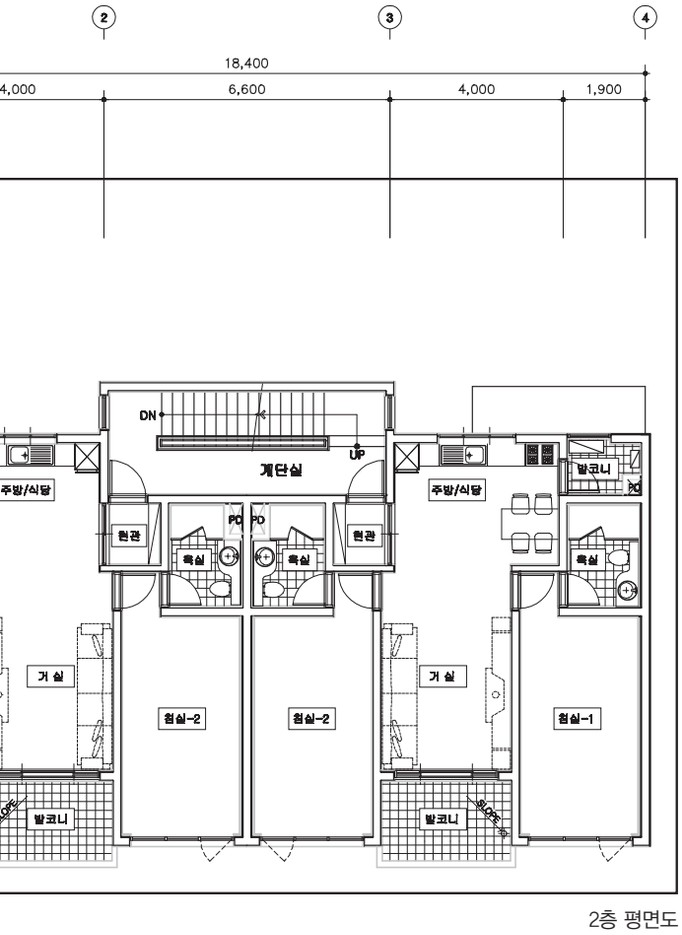
내.외부 공간의 매개역할의 발코니를 내밀거나 들여 배치하여 직선의 상. 하 동일선상의 발코니 위치를 탈피하고, 3층 전면지붕을 조금 높여 내부 조망 확보 및 외부에서 보면 바다를 응시하는 듯한 이미지를 유도하였다.

전면 도로측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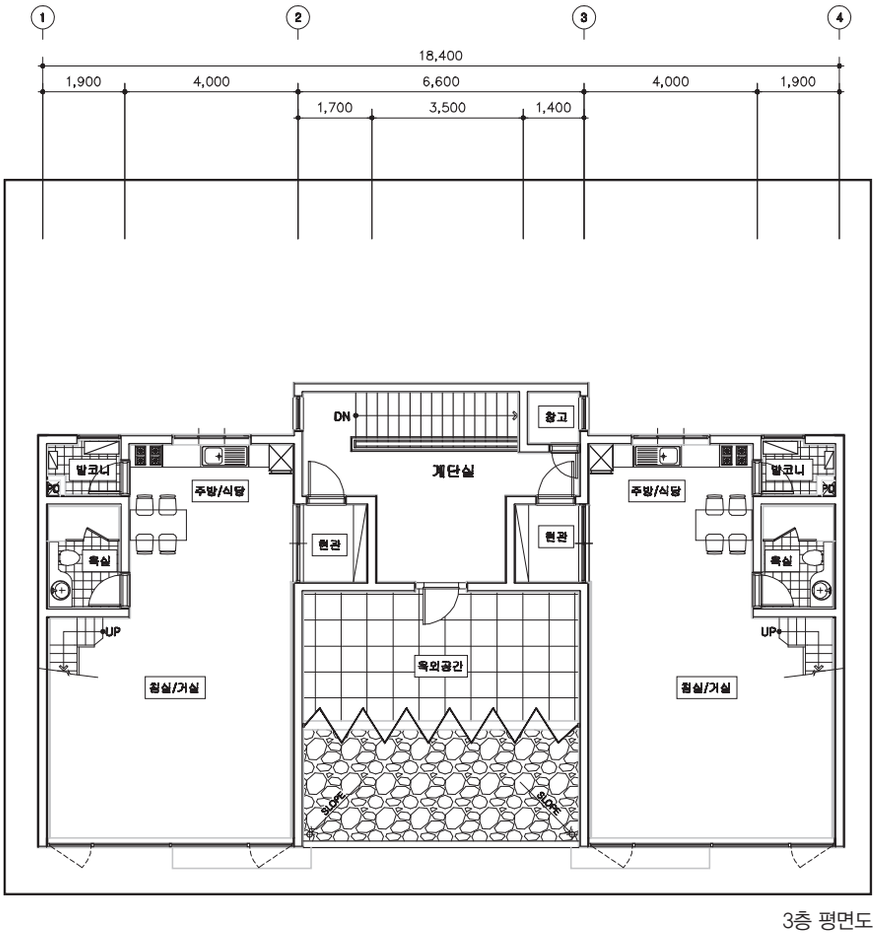


1층 평면도

측면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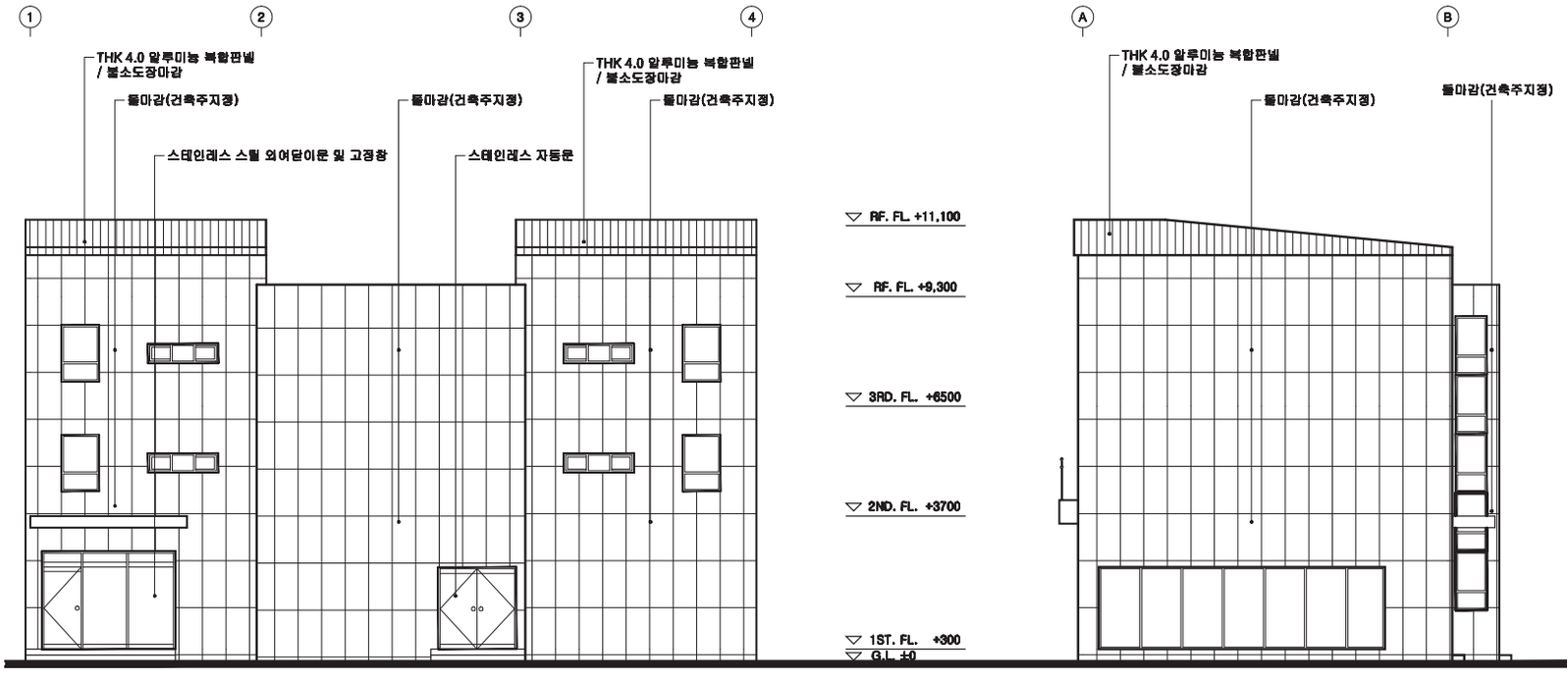


2층 평면도



3층 평면도

옥외 공간



정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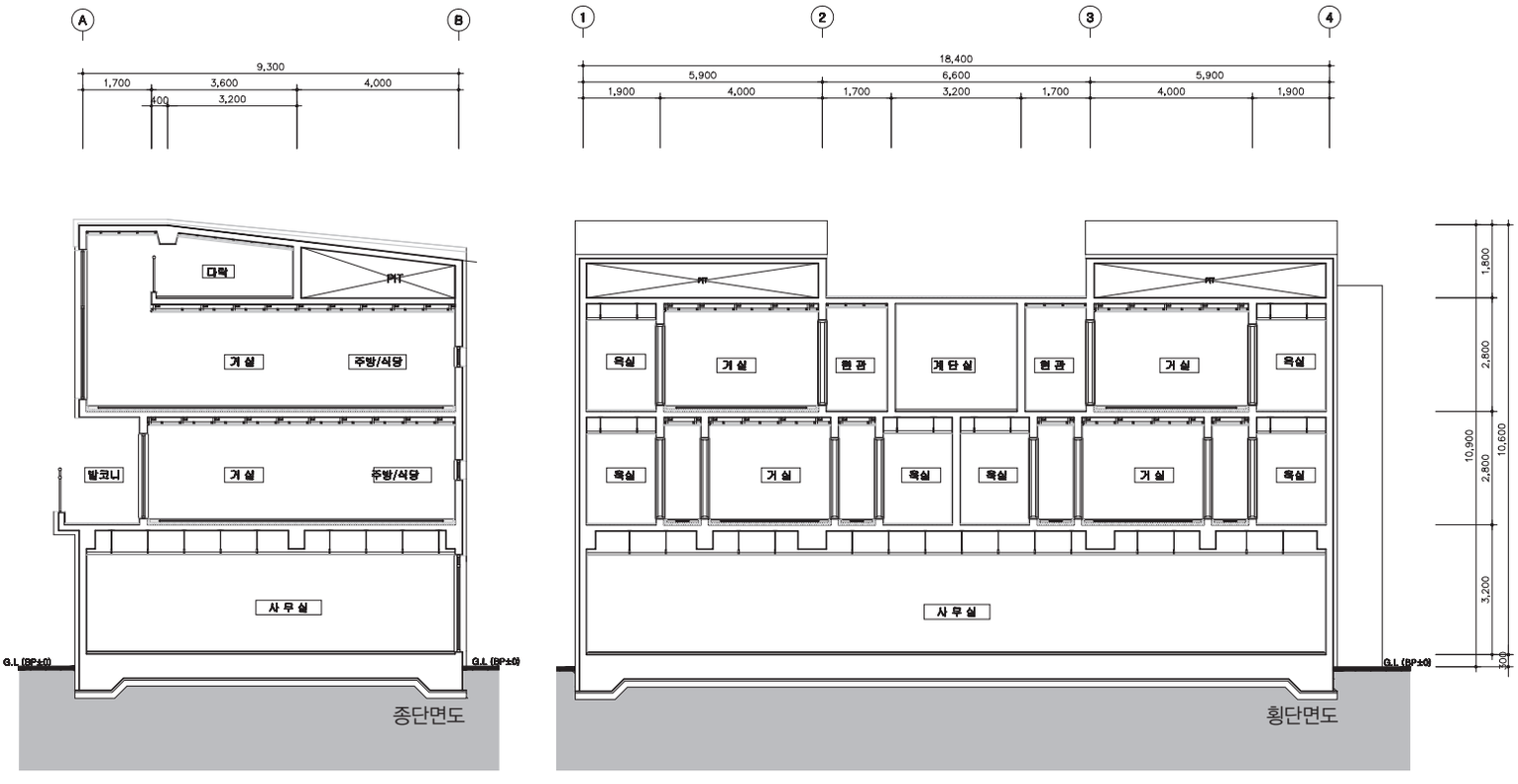
좌측면도

계단실 측면전경

야경

외부전경 스케치

작업공간



논현 R4-7 U-HAUS

NONHYEON R4-7 U-HAUS

건축주 | 오원복

설계자 | 정승이_KIRA | 유한 건축사사무소

설계팀 : 양용석, 고하동, 장재두, 유한건축 유하우스

감리자 | 유한건축 유하우스

시공자 | ㈜삼신종합건설

대지위치 | 인천시 남동구 고잔동(소래논현택지개발지구) R4-7

대지면적(Site Area) | 347.0㎡

건축면적(Building Area) | 168.27㎡

연면적(Gross Floor Area) | 339.18㎡

건폐율(Building to Land Ratio) | 48.49%

용적률(Floor Area Ratio) | 73.91%

규모(Building Scope) | B1-3F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주요마감재 | 외장 _ 외단열공법 + 스터코, 노출콘크리트

설계기간(기획/계획/실시) | 2011. 07 ~ 2011. 10

공사기간 | 2011. 10 ~ 2012. 05

사진(Photographer) | Byun, Jong-suk

Client | O, Won-bok

Architect | Jung, Seung-y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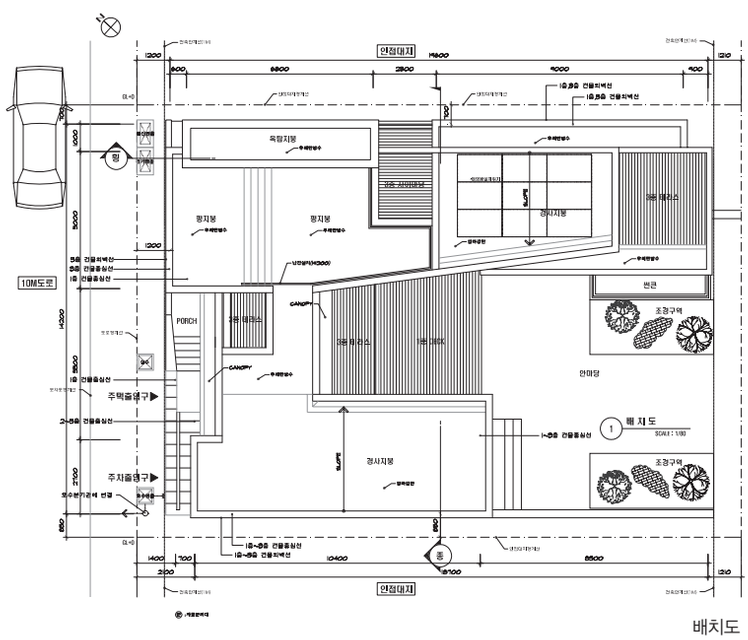
Project Team | Yang, Yong-seok, Ko, Ha-dong, Jang, Jae-du

Location | R4-7, Gojan-dong, Namdong-gu, Incheon, Korea

Structure | R.C

Design period | 2011. 07 ~ 2011. 10

Construction period | 2011. 10 ~ 2012. 05



배치도

대지는 북측에 도로, 좌,우로 인접지, 남측으로 녹지와 접해있다.
계획의 출발은 남측에 접해있는 둔덕(mounding) 녹지와의 관계맺음에서 시작된다. 이 프로젝트에서 해결해야할 가장 큰 계획적 요소였다. 대부분의 택지가 인접대지와 접해있어 외부공간을 적극적으로 구성하기에는 그리 넉넉지 않은 대지의 조건이었다. 대지 내에 구성할 수 있는 외부공간을 경관녹지와 연계시켜 시각적으로, 지각적으로, 공간감을 느낄 수 있는 방안으로 도입하였다.

조형계획

안마당을 중심으로 분절된 2개의 볼륨 중 북동측의 긴 볼륨은 공용공간, 남서측의 짧은 볼륨은 침실 등의 사적공간이 위치하며, 볼륨의 중앙부에는 동선을 연결하는 복도와 그 복도에서 연장되는 2층만의 외부공간이 양측에 놓여진다. 안

마당에 면한 건물과 일체화된 가벽의 기능은 인접 건물로부터의 프라이버시를 위해서이며, 2층의 가벽 프레임도 전면도로와 인접대지와의 관계를 고려하여 계획하였다.

안마당은 평면의 기능과 볼륨을 자연스럽게 분할시키며, 북서측에 위치한 공용공간으로 남측채광을 유입하는 방법으로 활용되며 대지 내,외부의 적절한 거리를 유지할 수 있는 소통역할을 한다. 건물내 주차장은 주차장과 함께 가족의 모임이나 공방의 공간으로 사용하게 하였으며, 마당의 크기를 확대시켜 공간의 쓰임새를 다양하게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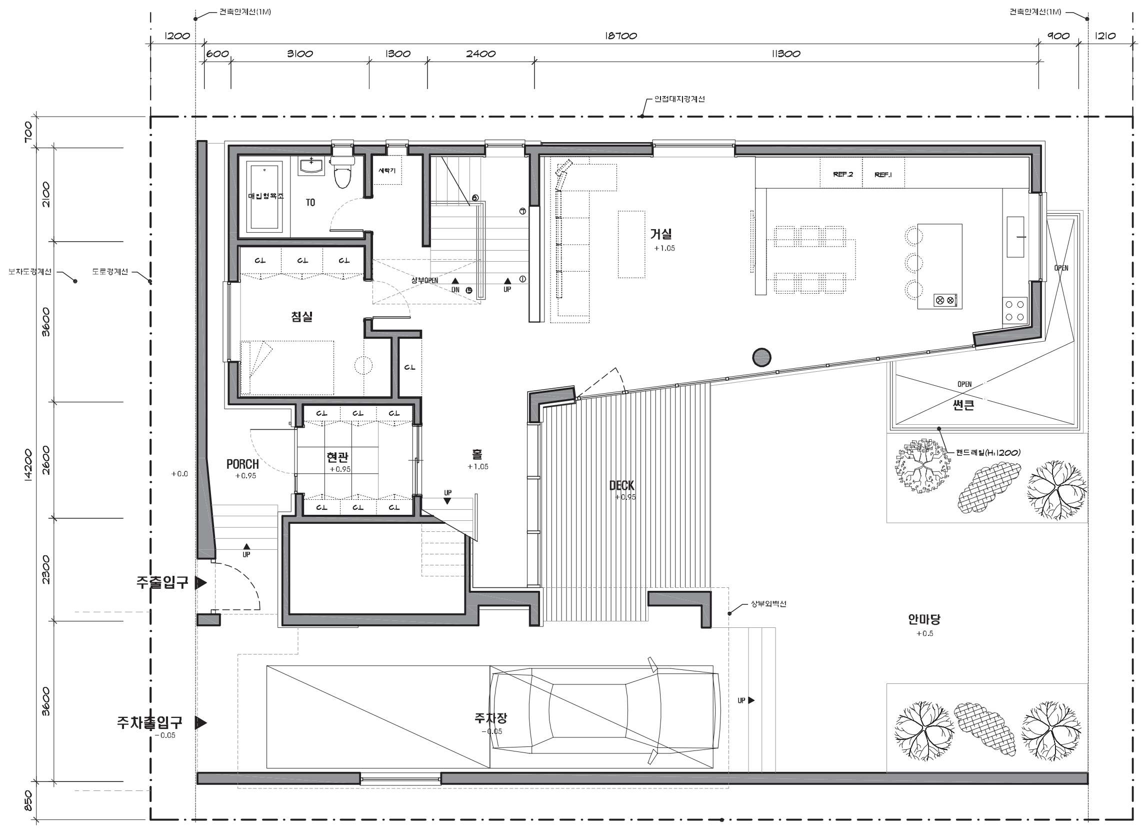
평면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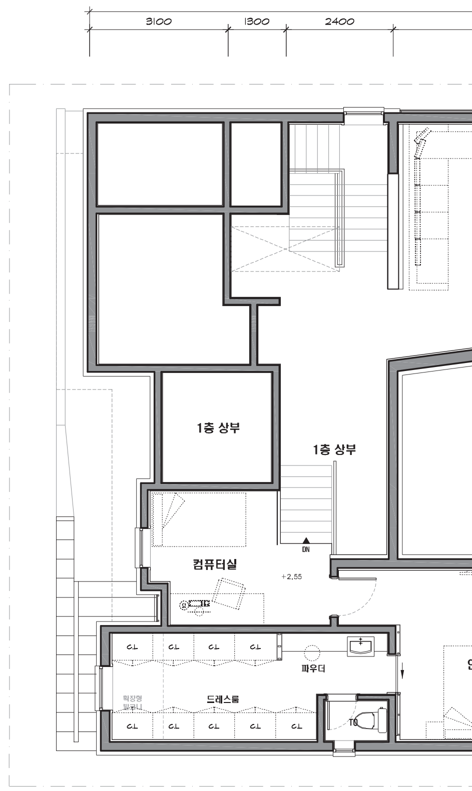
1층은 부모세대, 2층은 성장한 자녀세대를 위한 구성으로 2층의 외아들이 결혼 후에 부모와 같이 생활함에 서로간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계획되었다.

현관부에서 계단까지의 동선은 공유하되, 층 내부에서는 개인별 프라이버시를 확보할 수 있도록 거실과 주방 및 사이마당, 테라스 등의 외부공간을 별도로 구성하였다.

맺는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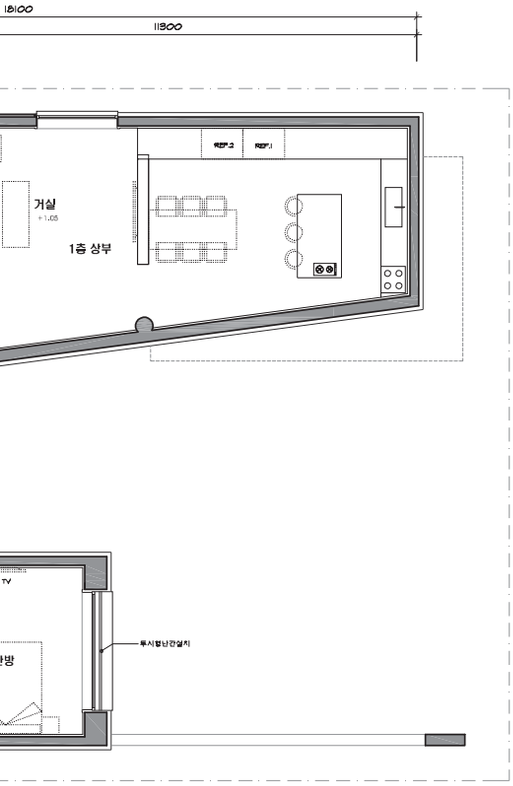
자녀와 같이 살아가기가 힘든 시기, 아들이 부모와 같이 살기를 원했다. 분가해서 살기를 원하는 현시대에 결혼해서 같이 살더라도 부모님도 불편하지 않고 아내도 불편하지 않기를 원했던 아들의 정성어린 마음과 함께하며, 진행했던 프로젝트로 기억된다.


18700
1200
600
3100
1300
2400
11300
900
1210
14200
거실
침실
현관
홀
DECK
썬큰
PORCH
주출입구
주차출입구
주차장
안마당
TO
CL
REF.2
REF.1
OPEN
UP
D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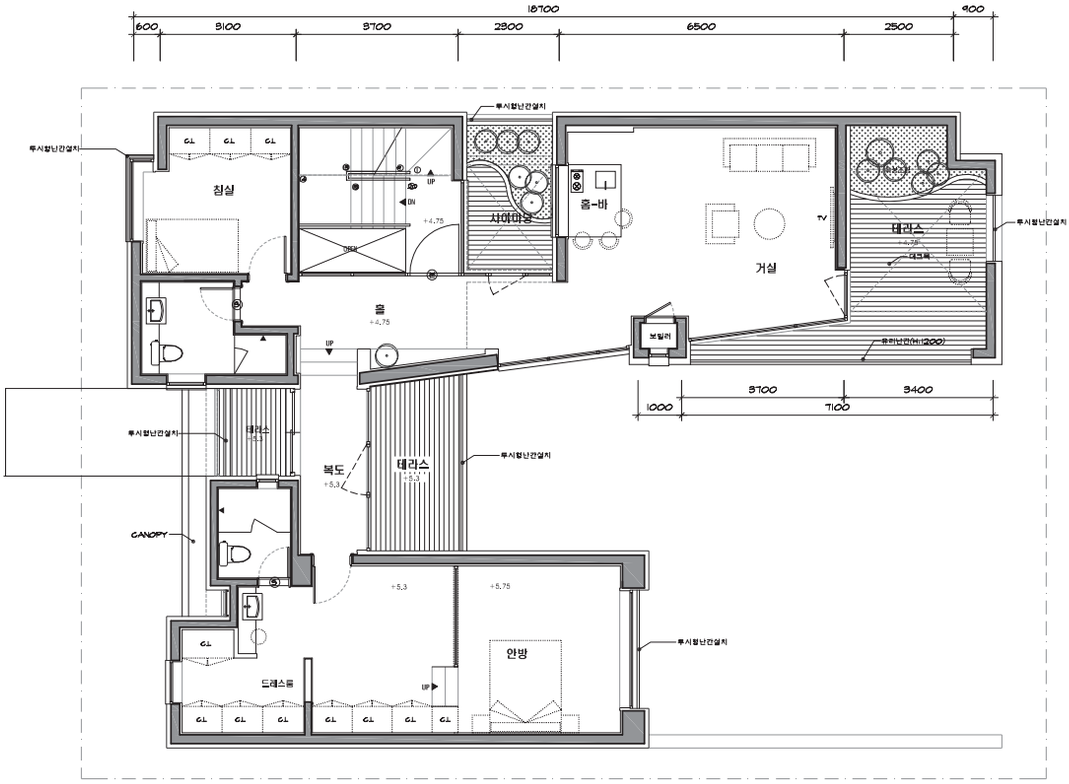

3100
1300
2400
1층 상부
1층 상부
컴퓨터실
파우더
드레스룸
CL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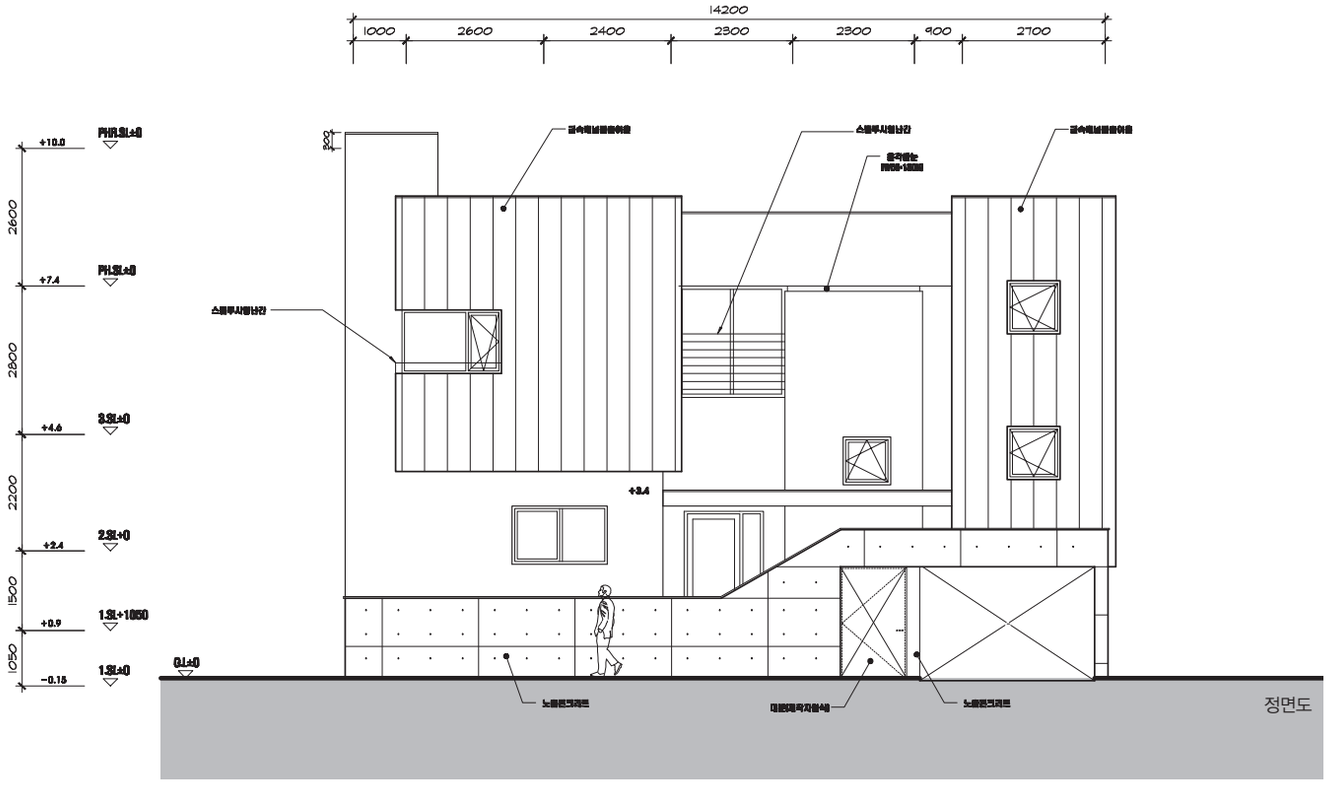
1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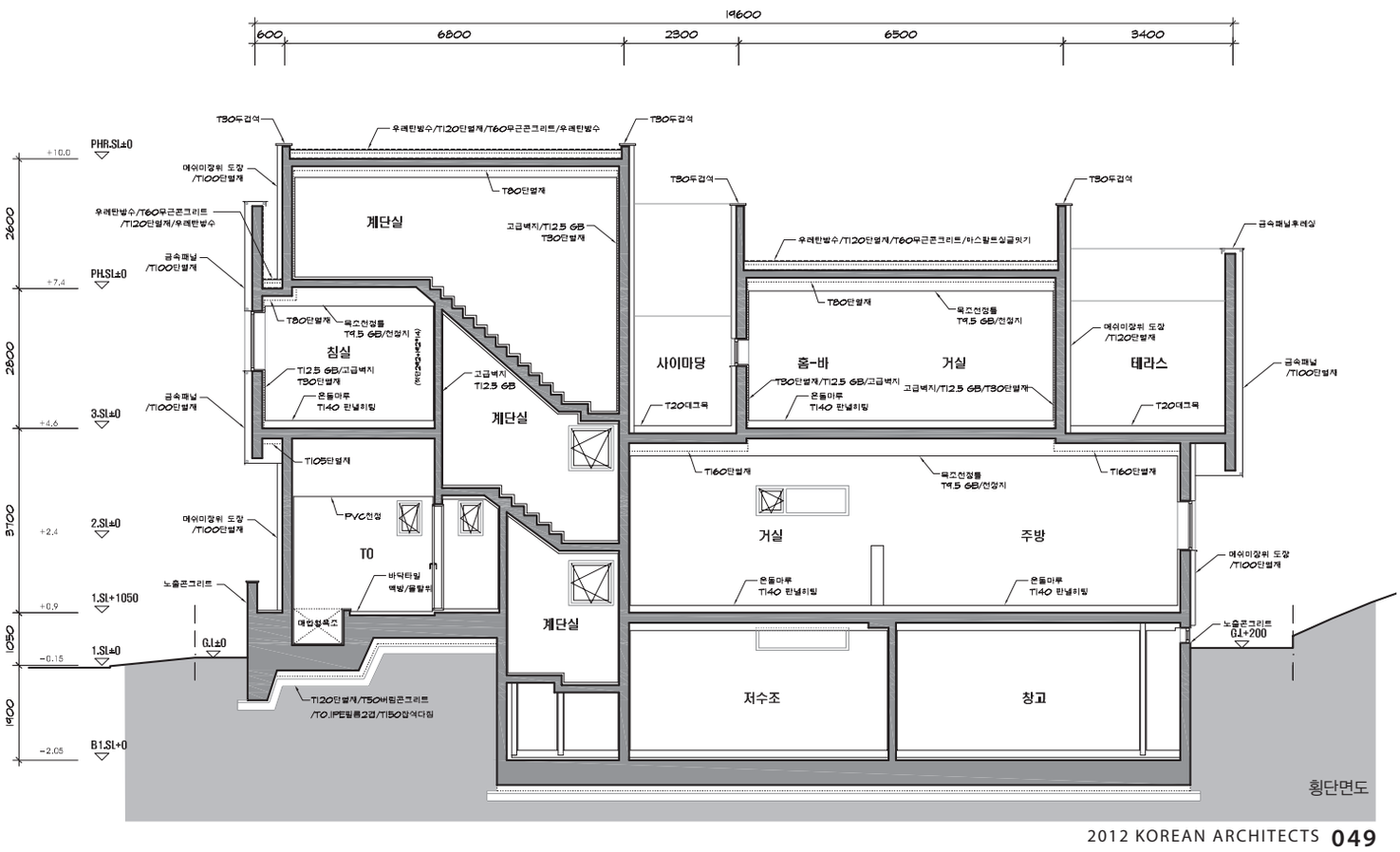

18100
11300
REF.2
REF.1
거실
1층 상부
TV
투시형난간설치

2층 평면도


18700
600
3100
3700
2300
6500
2500
900
투시형난간설치
CL
침실
UP
DN
+4.75
샤아마당
홈-바
거실
TV
테라스
홀
+4.75
보일러
유리난간(H:1200)
3700
3400
1000
7100
테라스
복도
+5.3
CANOPY
+5.3
+5.75
안방
드레스룸

3층 평면도


14200
1000
2600
2400
2300
2300
900
2700
+10.0
PH.SL±0
+7.4
PH.SL±0
+4.6
3.SL±0
+2.4
2.SL+0
+0.9
1.SL+1050
-0.15
1.SL±0
2600
2800
2200
1500
1050
300
+3.4
G.L±0
정면도


19600
600
6800
2300
6500
3400
PHR.Sl.±0
PH.Sl.±0
3.Sl.±0
2.Sl.±0
1.Sl+1050
1.Sl±0
B1.Sl+0
G.l±0
G.l+200
계단실
침실
T0
사이마당
홈-바
거실
테라스
주방
저수조
창고
횡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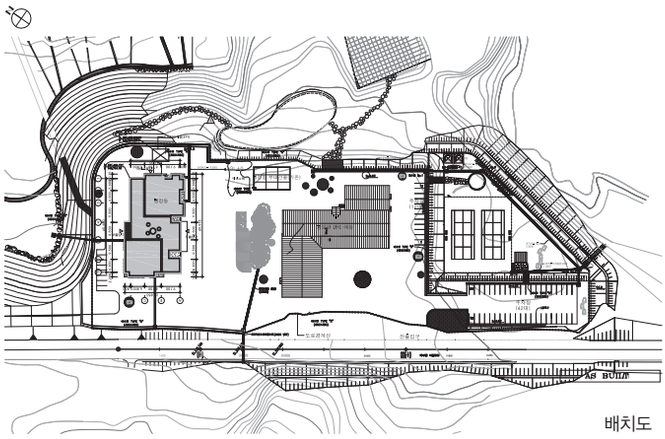
예천 양수발전소 행정동
YECHEON PUMPED STORAGE POWER PLANT ADMINISTRATION

건축주 | 한국수력원자력㈜
설계자 | 임준빈_KIRA | 건축사사무소 네오스페이스
- 설계팀 : 윤동원, 송기준
- 전문기술협력
  - 구조분야 : (주)맥이앤지, (주)반석티비에스
  - 전기 · 통신설비분야(소방포함) : 석정
  - 기계설비분야(소방포함) : 태영설비

감리자 | 한국수력원자력㈜
시공자 | 대림산업㈜

대지위치 | 경북 예천군 하리면 송월리 471번지 외 21필지
주요용도 | 발전시설
대지면적(Site Area) | 18,276.00㎡
건축면적(Building Area) | 1,504.28㎡
연면적(Gross Floor Area) |2,531.45㎡
건폐율(Building to Land Ratio) | 8.23%
용적률(Floor Area Ratio) | 13.85%
규모(Building Scope) | 2F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TVS공법(이방향 중공슬라브)
주요마감재 | 외부마감_ 노출콘크리트, 고밀도목재패널, 로이복층유리, 우드데크 등
설계기간(기획/계획/실시) | 2009. 10 ~ 2010. 8
공사기간 | 2010. 8 ~ 2011. 8

Client | Korea Hydro & Nuclear Power Co.LTD.
Architect | Lim, Jun-bin
Project team | Yoon, Dong-won / Song, Ki-jun
General Constractor | Daelim Industrial Co., Ltd
Location | 471, Songwol-ri, Hari-myeon, Yecheon-gun, Gyeongbuk, Korea
Structure | R.C, TVS
Structural Engineer | MAC ENGineering Co.,Ltd, TBS Korea Co.,Ltd
HVAC Engineer | Sukjung
Electrical Engineer | Taeyoung
Finishing Materials | Exposed Concrete, MEG panels, low-emissivity coated glasses
Design period | 2009. 10 ~ 2010. 8
Construction period | 2010. 8 ~ 2011. 8



배치도

우리나라의 양수발전소는 1979년 청평 양수발전소를 시작으로 2012년 예천 양수발전소까지 총 7개가 가동되고 있다. 이번 설계는 예천 양수발전소를 유지, 관리하기 위해서 한국수력원자력 직원들이 근무할 행정동 건물이다. 양수발전소가 산 속에 있다 보니 행정동 건물도 주변 풍경이 우수한 산으로 둘러싸인 평탄한 대지에 위치해 있다. 그 옆 대지에는 예천양수발전소 홍보관이 2013년에 완공 예정이다.

설계의 주요 개념은 주변환경을 고려하여 가능한 수평적인 볼륨으로 계획하는 것과 딱딱한 분위기에서 일하는 전형적인 공공건물 타입에서 벗어나, 일을 하면서 자연스레 심리적 치유가 되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다.
첫 번째로 주어진 요구 프로그램들을 최대한 넓게 펼쳐서 2층 규모로 계획하여 주변 자연환경을 거스르지 않고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
두 번째로 사무공간 이용자를 위한 심리적 치유를 위해 자연조경, 천창 그리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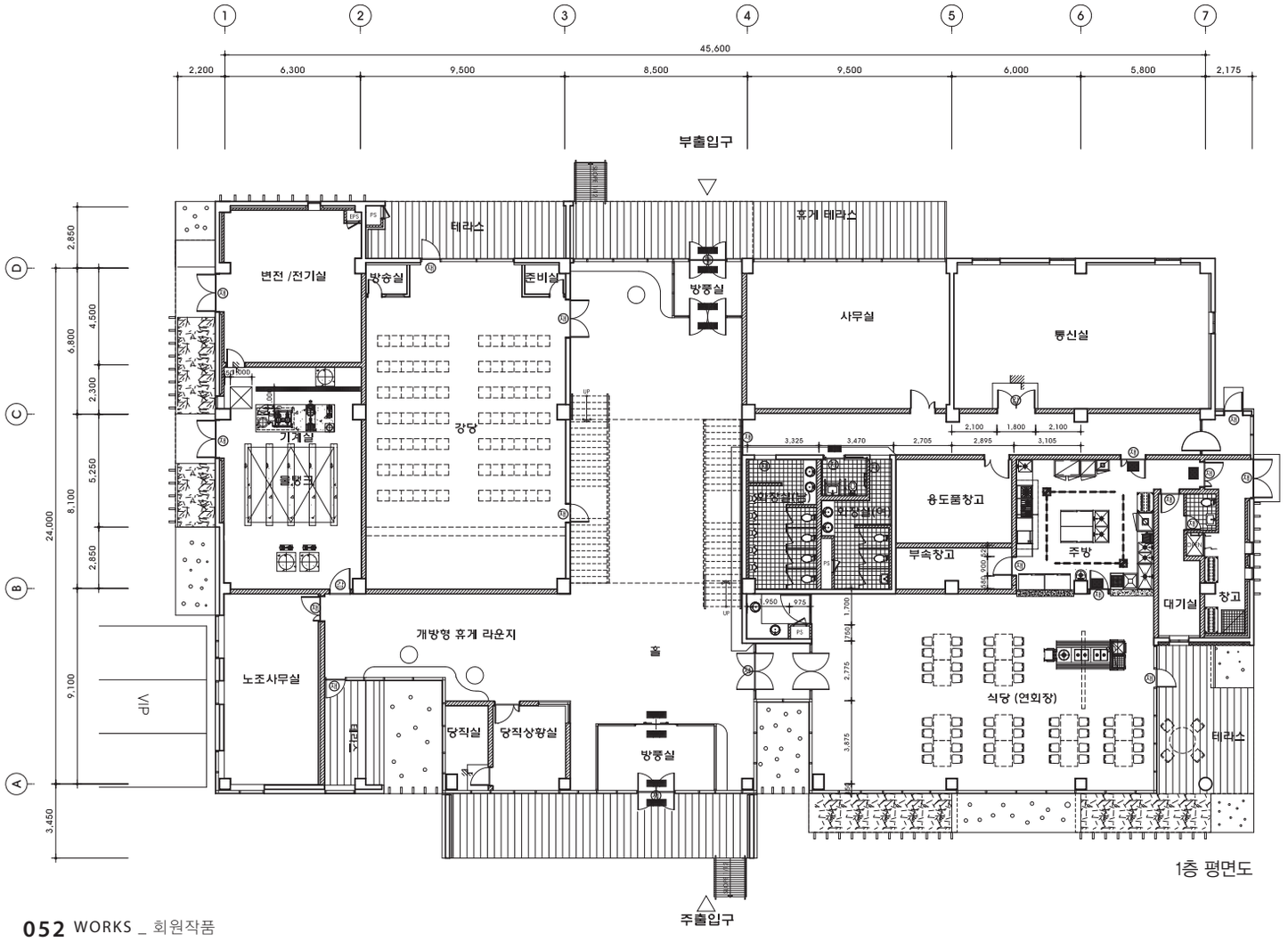
주도로에서 바라본 모습

휴게테라스를 곳곳에 계획하여 카페 같은 분위기 속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최적의 근무환경을 조성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또한 전형적인 공공건물의 천편일률적인 입면에서 벗어나 심리적 유연성을 유도하는 장치로 고밀도 목재패널과 로이복층유리의 다양한 조합으로 물을 형상화한(픽셀화한) 파사드를 계획하였다.

1층 로비는 앞마당과 뒷마당의 동선을 연계하기 위해서 넓은 오픈 스페이스로 열어 두었고, 상부에는 천창을 설치하여 자연채광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로비와 인접한 식당과 노조사무실 출입구에는 자연조경(대나무), 휴게데크 그리고 수직루버를 계획하여 이용자들은 일탈된 자연과 심리적 교감을 나눌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
2층 사무실과 사업소장실 그리고 직원 휴게실은 근무자들의 일상적 공간이기에 더욱 공간 배치하는 데에 고민이 많았다. 사무실은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주변 경관과 자연채광이 가장 좋은 곳에 배치하고 더불어 곳곳에 자연조경과 휴게 테라스를 내부로 끌여 들여 근무자들의 심리적 치유에 도움을 주었다. 또한, 직원 휴게실과 화장실에 연접한 휴게 테라스에서는 우수한 주변 경관을 조망하고 쉴 수 있도록 계획하고, 사업소장실과 부속실 사이에도 대나무 조경을 꾸며서 시원한 조망과 자연환기가 될 수 있게 하였다. 그래서 이용자들이 자연과 함께 공감각적 호흡을 통해서, 업무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이는 사계절이 지나면서 각각 다른 분위기로 보여질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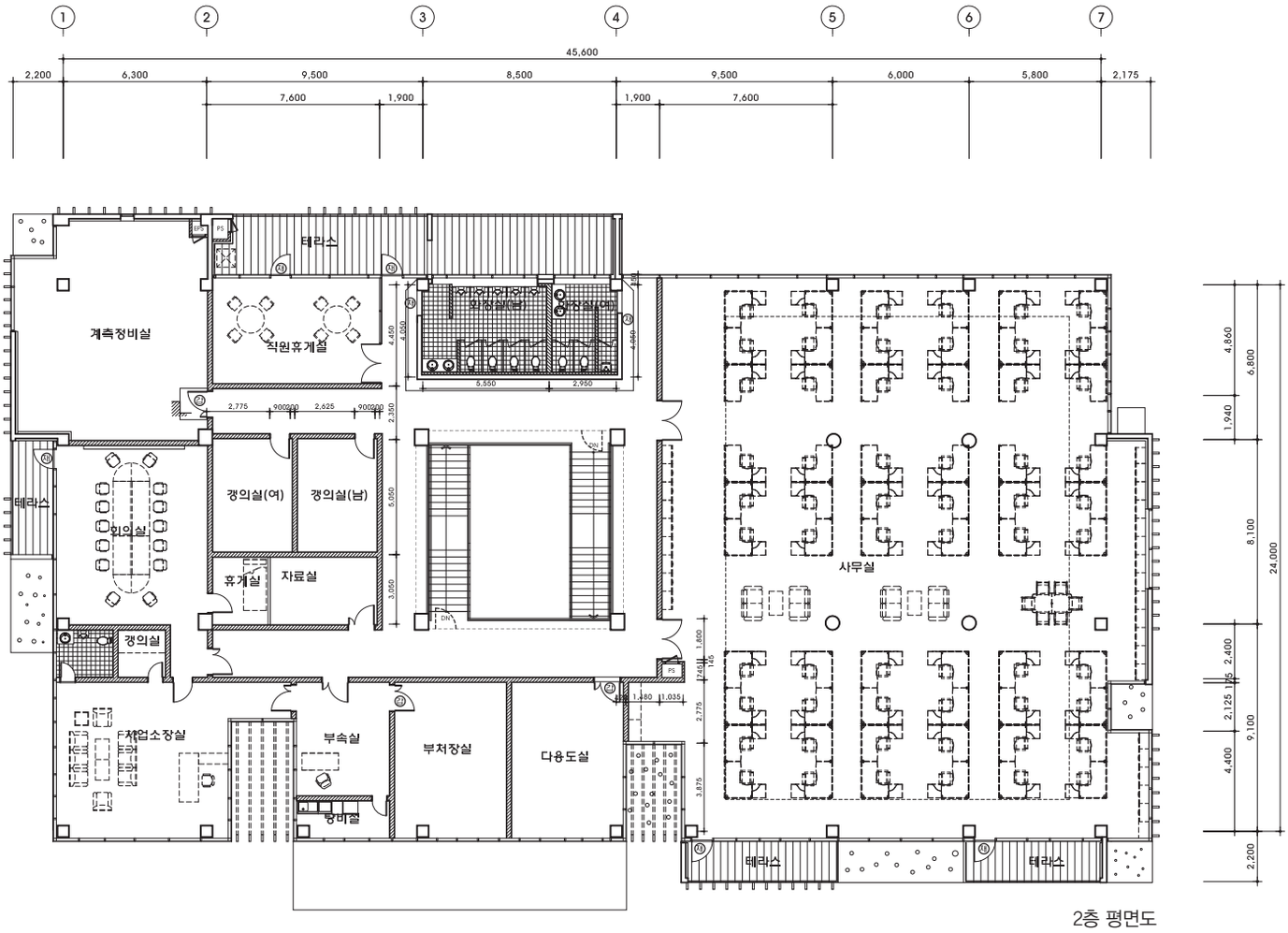
실제 완공 후 현장답사를 갔을 때 근무자들에게 이 건물에서 일하는데 불편한 점들이 없는지 물어 보았었다. 그들의 대답은 "꼭 휴양지 카페 같은 곳에서 일하는 기분"이라고 했다. 앞으로도, 이용자들이 꾸준히 잘 가꿔 심리적 치유와 소통이 배려된 건물로 유지, 발전 할 수 있길 기대해 본다.

진입로에서 바라본 모습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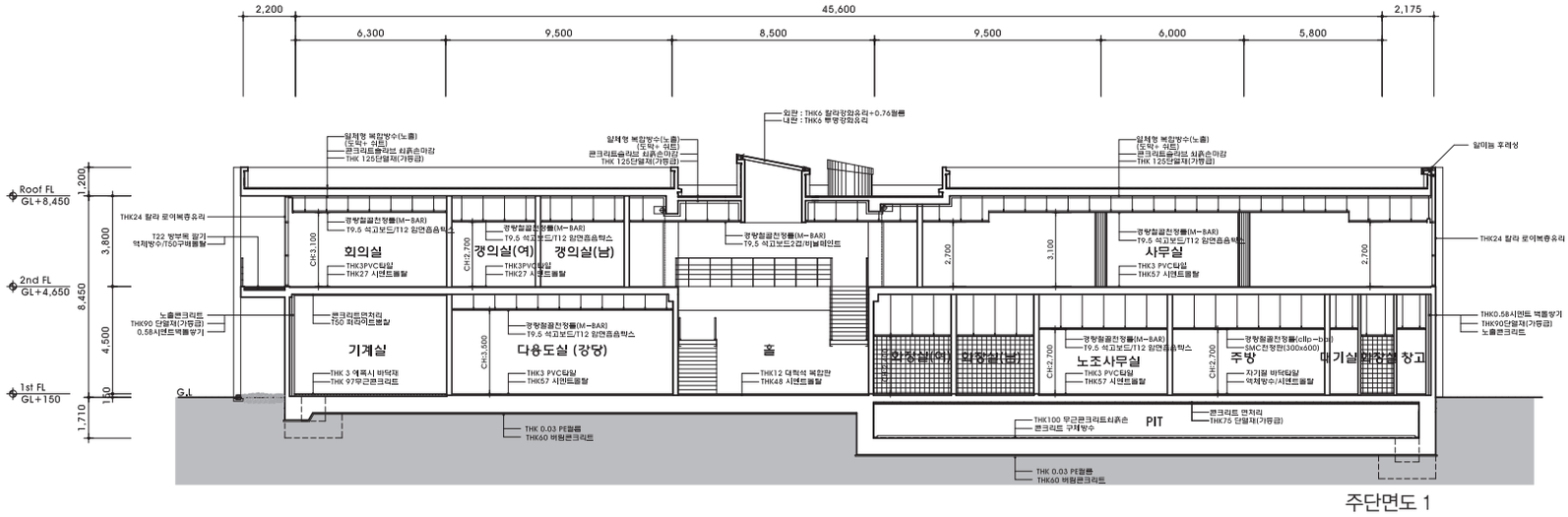
동쪽에서 바라본 모습



2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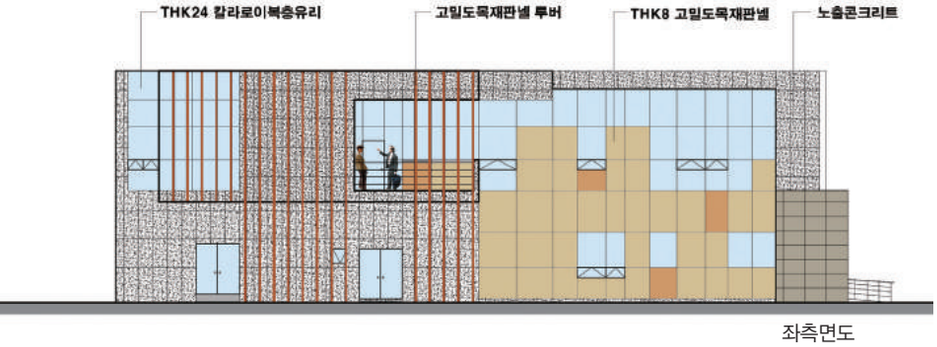
정면 부분입면

정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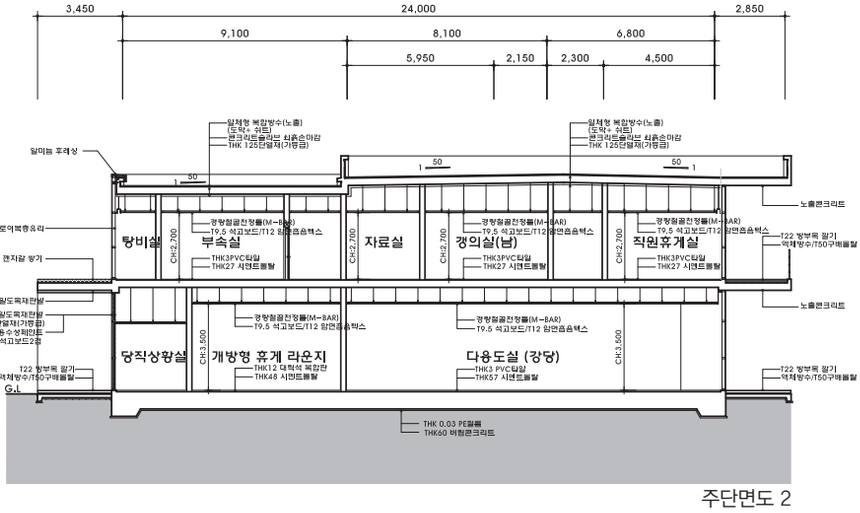
주단면도 1

1층 로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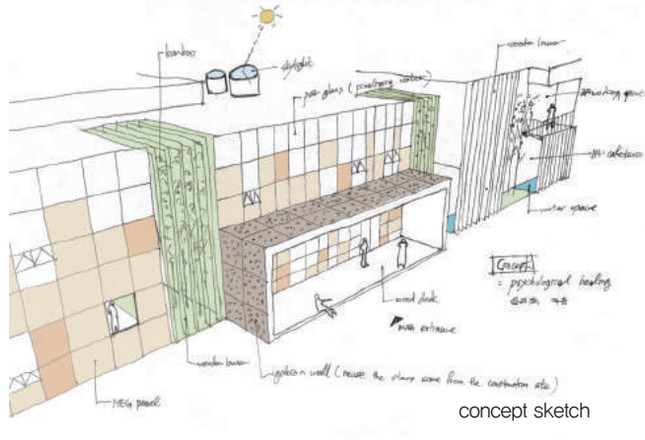


좌측면도

1층 강당



주단면도 2



concept sketch

김해 중소기업 비즈니스센터 _당선작

GIMHAE SMALL AND MEDIUM BUSINESS CENTER

발주자 : 김해시청

설계자 : 조영돈 KIRA | ㈜유선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조현석 KIRA | ㈜아이엔지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김상범 KIRA | 종합건축사사무소 아진
설계팀 : 손주섭, 목경웅, 조강희, 이정훈, 김지희, 김효경, 고종배_유선건축
송주영, 고성룡, 김한주, 이종호_아이엔지건축

전문기술협력
– 구조 : 대성구조진단 – 기계 : 세정이엔지
– 전기 : 우일엔지니어링 – 조경 : 쌈지조경

대지위치 김해시 주촌면 농소리 김해일반산업단지내
지역/지구 공업지역,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주요용도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노유자시설
대지면적 지원시설용지_6,464㎡/주차장용지_6,285㎡
건축면적 3,074.35㎡
연 면 적 12,972.33㎡
건 폐 율 47.56%
용 적 률 171.69%
구 조 철근콘크리트구조
규 모 지하 1층, 지상 5층
주요마감 석재마감, 징크아연판, 로이3중유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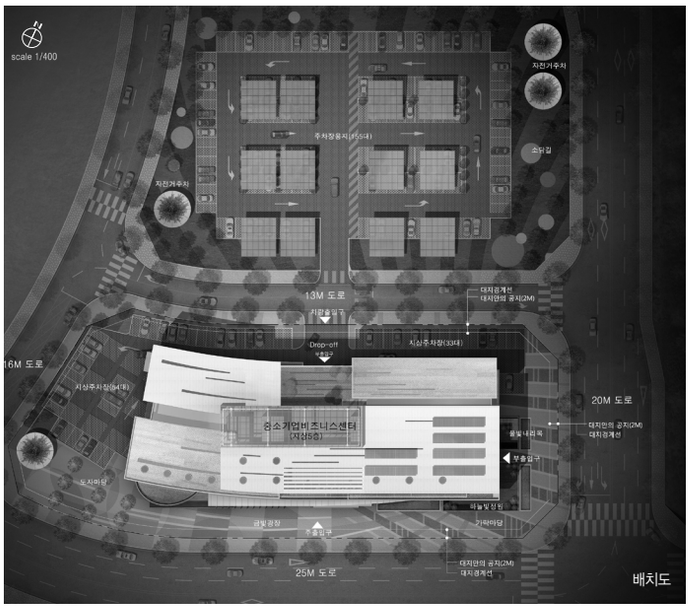
Wheeling Terrace [휠링 테라스]
톱니바퀴가 서로 맞물려 돌아갈 때 생기는 에너지처럼 6,500여개의 중소기업들이 협력관계로 모여 강한 시너지 효과를 내고, 세계로 성장하는 이미지를 모티브로 하였다.
지역 산업의 뿌리가 될 중소기업 비즈니스센터(Wheel)는 '환경'과 '디자인'까지 고려한 '녹색공간(Terrace)'이며, 김해를 넘어 동남권 기업 발전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해 본다.

지속가능한 녹색 산업단지 [Green]
자전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걷기를 생활화하는 녹색환경 지향적인 삶.
에너지 절감 디자인, 신재생 에너지의 활용을 통해 지속가능한 녹색 일반산업단지를 완성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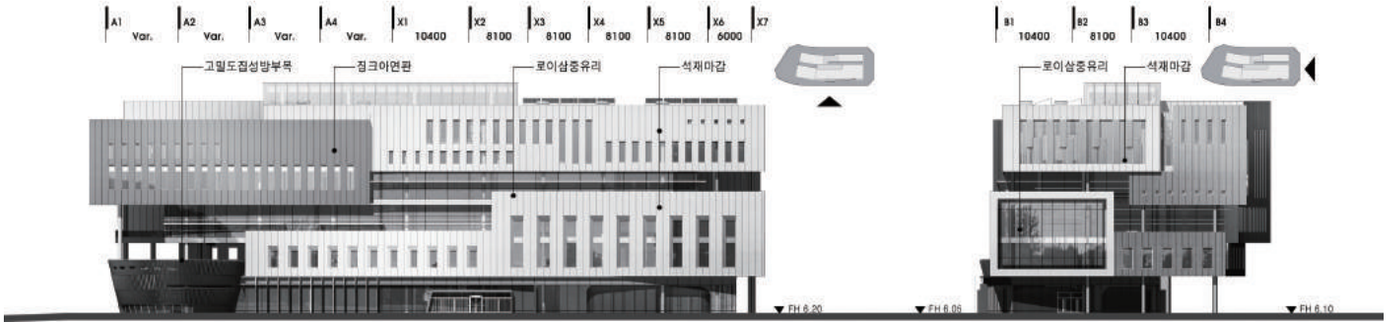
성장하는 기업 [Business]
환경을 생각하고 균형 있는 경제 발전을 도모하며, 미래지향적인 발전을 이루는 지속가능한 기업 원스톱(ONE-STOP) 지원센터는 작지만 강한 중소기업들이 모여 함께 성장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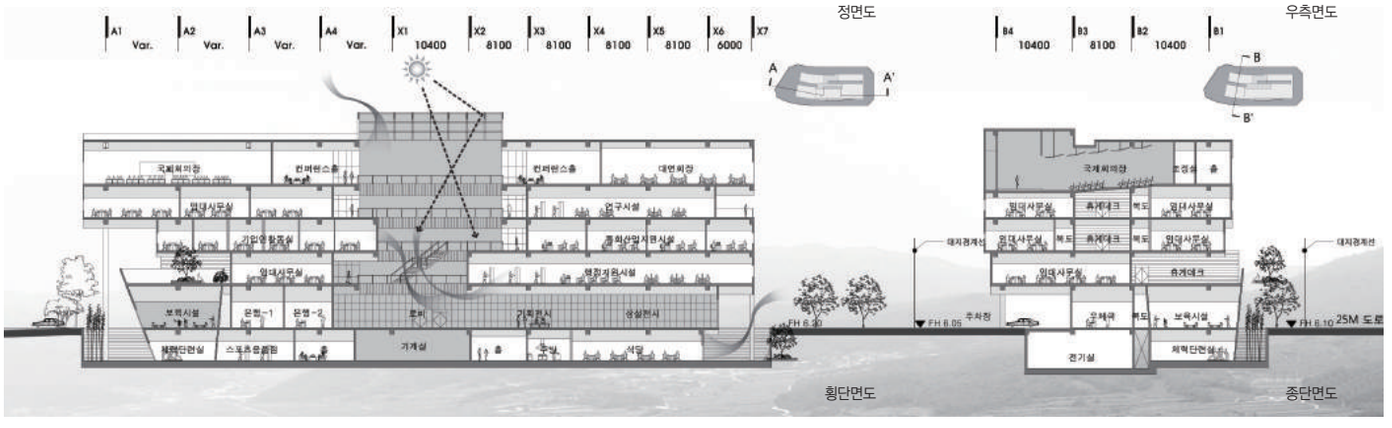
동남권 경제 발전의 원동력 [Center]
골든루트(Golden Root) 일반산업단지의 목표인 지속적인 녹색성장의 아이콘으로써, 동남권 경제 중심도시로 김해시가 성장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

건축계획
지원시설의 업무 효율성을 고려하여, 원활한 운영계획과 시설 간 독립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이용자의 동선에 따라 층별 그린테라스를 연결하고 직원 및 방문객의 휴게가 가능한 공간을 계획하였다.


scale 1/400
13M 도로
16M 도로
20M 도로
25M 도로
자전거주차
주차장출입구(55대)
소방길
지상주차장(33대)
지상주차장(54대)
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
(지상5층)
주출입구
부출입구
공원
배치도

경북 중소기업 비지니스센터


A1 Var.
A2 Var.
A3 Var.
A4 Var.
X1 10400
X2 8100
X3 8100
X4 8100
X5 8100
X6 6000
X7
고밀도집성방부목
징크아연판
로이삼중유리
석재마감
FH 6.20
정면도
B1 10400
B2 8100
B3 10400
B4
로이삼중유리
석재마감
FH 6.05
FH 6.10
우측면도


A1 Var.
A2 Var.
A3 Var.
A4 Var.
X1 10400
X2 8100
X3 8100
X4 8100
X5 8100
X6 6000
X7
A
A'
국회의장
컨퍼런스홀
대연회장
업무시설
의원사무실
기업입점시설
종합산업지원시설
임대사무실
보육시설
문화-1
문화-2
로비
기획전시
상설전시
행정지원시설
체험단련실
스포츠클럽장
가게실
주차장
FH 6.20
횡단면도
B4 10400
B3 8100
B2 10400
B1
B
B'
국제회의장
조경실
휴게데크
대지경계선
보육시설
체력단련실
기계실
FH 6.05
FH 6.10
25M 도로
종단면도

13M 도로
16M 도로
20M 도로
25M 도로
지상주차장(33대)
지상주차장(54대)
대지안의 공지(2M)
대지경계선
도서이용
주출입구
scale 1/500
1층 평면도
자연의 빛을 담은 쾌적한 지하공간 계획
지하 1층 평면도

공원속의 오피스와 같은 친환경적인 업무환경
3층 평면도
사용자와 방문객의 소통을 위한 커뮤니티 공간 계획
2층 평면도

김해 중소기업 비즈니스센터 _가작

GIMHAE SMALL AND MEDIUM BUSINESS CENTER

발주자 : 김해시청

설계자 : 김성우 KIRA | ㈜하우드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김병국 KIRA | 루사 종합건축사사무소
설계팀 : 정규백, 김기훈, 송명근, 이치열, 서재원, 김용진, 김진구, 윤하나, 엄나너

전문기술협력
- 구조 : ㈜건우구조엔지니어링
- 기계/전기 : ㈜지케이기술단
- 조경 : ㈜톨트리 디자인
- 친환경 : ㈜이에이엔테크놀로지
- CG : 인사이트 인터렉티브

대지위치 김해시 주촌면 농소리 김해일반산업단지내
지역/지구 공업지역,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주요용도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노유자시설
대지면적 지원시설용지_6,464㎡/주차장용지_6,285㎡
건축면적 3,869.09㎡
연 면 적 12,785.77㎡
건 폐 율 59.86%
용 적 률 164.99%
규 모 지하1층 지상 5층
주요마감 알루미늄쉬트, 컬러더블로이, 복층유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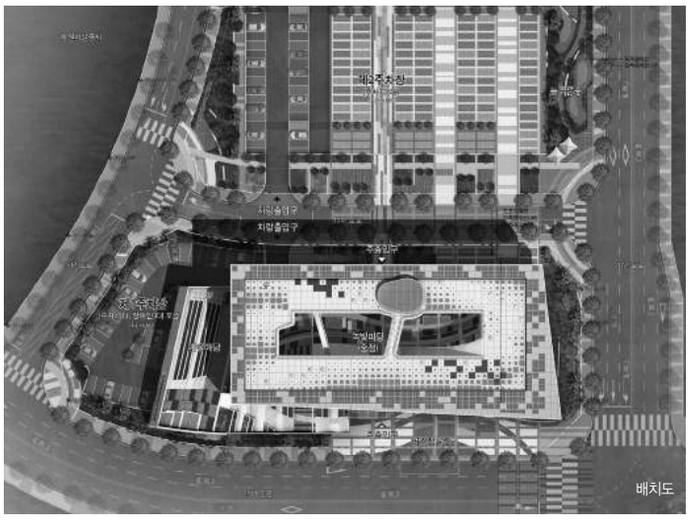
김해중소기업의 성장과 발전의 원동력을 제공하고 녹색산업단지의 안내자 역할을 하는 중소기업지원센터는 김해시 6,500여개 중소기업을 상징하는 성장 발전의 빛으로 재해석되어 기술개발, 경영혁신의 장으로 태어날 것이다.

MAIN CONCEPT–01
자연에 의한 변형–1 / 김해산업단지의 녹지축을 건물 내 · 외부로 유입, 확장하여 자연스럽게 매스를 분절시키고 녹지흐름에 따른 내 · 외부 동선의 흐름과 내부 중정으로 열린 입체적인 공간을 만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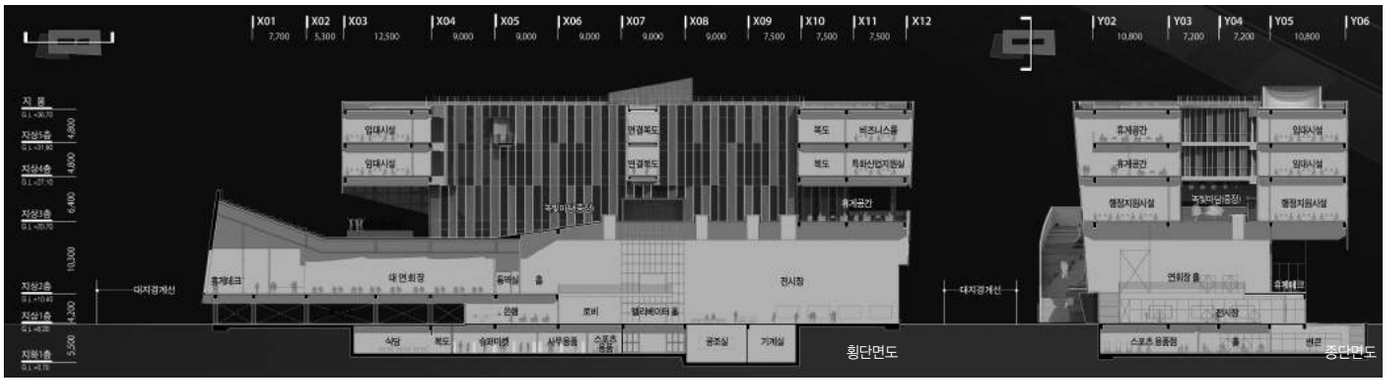
MAIN CONCEPT–02
프로그램에 의한 변형–2 / 기능성과 접근성을 고려한 프로그램의 변형을 통해 전시장–로비–대연회장이 하나로 연결된 개방적 대공간을 형성하고, 저층부 지원시설과 상층부 독립된 업무공간을 형성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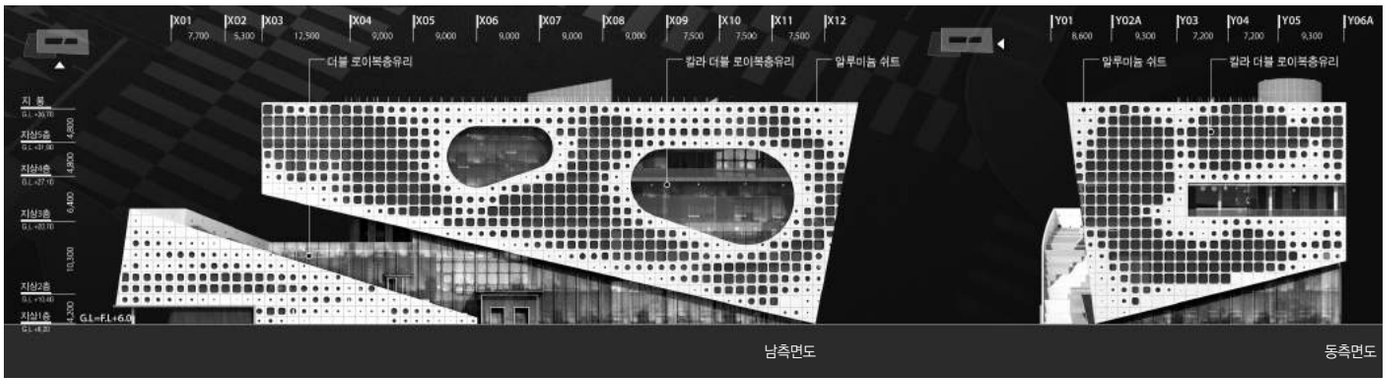
MAIN CONCEPT–03
주변 환경에 의한 변형–3 / 사면에서 강조되는 상징적 매스는 산업단지의 중심성을 강조하고, 자연채광과 바람길 환기가 고려된 중정계획을 통해 쾌적한 업무환경을 조성하여 친환경 산업단지의 상징성을 갖도록 계획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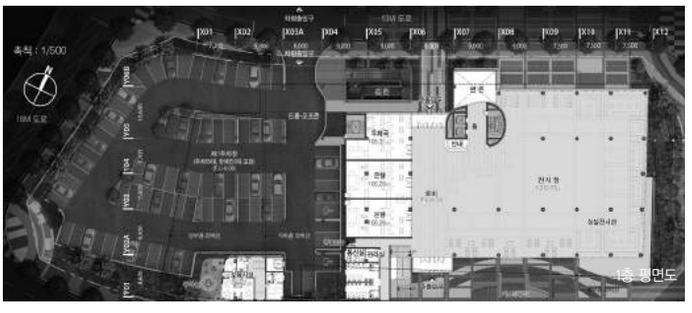
배치계획
산업단지의 도시축과 조만강에서 부터 이어지는 자연축의 교차점에 위치한다. 산업단지의 중심으로써 시민들이 모여 휴식할 수 있는 열린 광장과 북측 주차장부지와 연계한 외부공간 계획을 통해 문화와 정보가 교류하는 열린 장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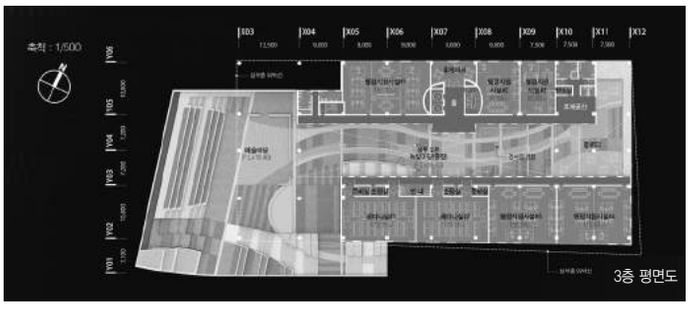

제2주차장
시민출입구
차량출입구
주출입구
주민센터
주민대장
주차장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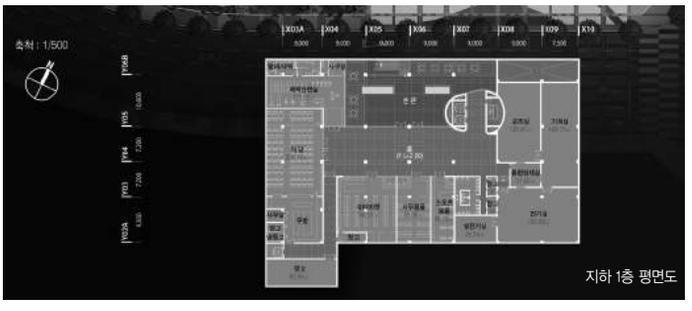
2015
김해 중소기업 박람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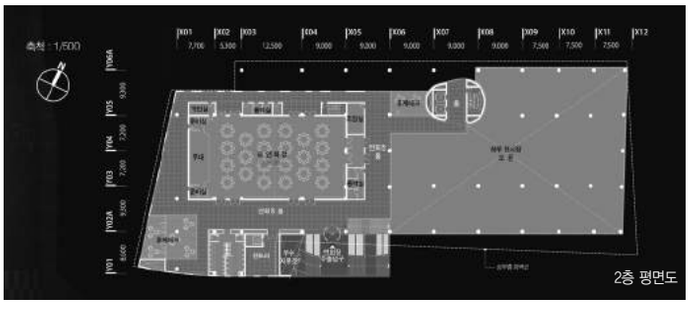

X01 X02 X03 X04 X05 X06 X07 X08 X09 X10 X11 X12
Y02 Y03 Y04 Y05 Y06
지 붕
지상5층
지상4층
지상3층
지상2층
지상1층
지하1층
대지경계선
휴게데크
대연회장
옥외실
홀
로비
엘리베이터 홀
전시장
은행
식당
복도
주차대분
사무용품
스포츠 용품점
공조실
기계실
휴게공간
행정지원시설
주민대장증정
연회장 홀
횡단면도
종단면도


X01 X02 X03 X04 X05 X06 X07 X08 X09 X10 X11 X12
Y01 Y02A Y03 Y04 Y05 Y06A
더블 로이복층유리
칼라 더블 로이복층유리
알루미늄 쉬트
지 붕
지상5층
지상4층
지상3층
지상2층
지상1층
G.L=F.L+6.0
남측면도
동측면도


축척 : 1/500
1층 평면도


축척 : 1/500
3층 평면도


축척 : 1/500
지하 1층 평면도


축척 : 1/500
2층 평면도

건축법 위반 건축물에 대하여 인근주민이 건축허가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가?

Can neighbors bring an action for nullity against a building permit if the building violates regulations?

박시준 | 정부법무공단 변호사

질문 1. 옆집에서 건축물의 건축법상 높이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건물이 완공될 경우 일조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면, 옆집이 받은 건축허가에 대하여 건축법 위반을 이유로 건축허가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

질문 2. 옆집에서 건축법상 용적률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건축물 건축허가를 받았다면, 옆집이 받은 건축허가에 대하여 건축법 위반을 이유로 건축허가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

답은 질문 1의 경우 취소소송 제기가 가능하다는 것이나, 질문 2의 경우는 취소소송을 제기할 경우 법원에서 소각하 패소판결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비슷한 건축법 위반 사안임에도 결론이 다르다. 이번 호에서는 이와 같이 처분 등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어떠한 처분에 관하여 다투고 싶을 때, 법원은 어느 범위까지 소송을 제기할 자격을 주고 있는지에 관하여 건축허가처분 취소소송 관련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구체적인 소송사건에서 원고가 될 수 있는 자격을 법적인 용어로 원고적격이라고 한다. 행정소송 중 취소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 무효등확인소송과 같이 어떠한 행정처분이 위법하다거나 행정처분을 하지 않는 부작위가 위법하다고 주장하는 항고소송에서 원고적격이라는 자격을 요구하는 이유는, 법의 보호를 받을 이익이 없는 자가 제기하는 소송을 배제하여 법의 보호를 받을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한 소송을 법원에서 더 충실하게 심리하게 위함이라고 한다. 조금 더 어려운 말로 유한한 사법자원의 효율적 활용 및 남소 방지가 제도적 취지이다.

원고적격과 관련하여 행정처분 등의 직접 상대방이 그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나, 행정처분 등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에 대해서는 어느 범위까지 원고적격을 인정할 것인지에 관하여 행정소송의 목적과 기능과 관련하여 여러 견해의 대립이 있다. 다만 실무에서 중요한 것은 역시 행정소송법 규정과 법원 판례의 입장이다.

행정소송법 제12조는 "취소소송은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판례는 이러한 행정소송법에 근거한 법률상 보호이익설에 따라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도 그 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당부의 판단을 받을 법률상 자격이 있다"고 하면서, 이 경우 법률상 이익은, "당해 처분의 근거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다만 간접적이거나 사실적,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데 불과한 경우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고 있다(대법원 1995. 12. 12. 선고 95누11856 판결 등).

그런데 '근거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의 의미가 추상적이어서 여전히 판단의 어려움이

답은 질문 1의 경우 취소소송 제기가 가능하다는 것이나,
질문 2의 경우는 취소소송을 제기할 경우 법원에서
소각하 패소판결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비슷한 건축법 위반 사안임에도 결론이 다르다.
이번 호에서는 이와 같이 처분 등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어떠한 처분에 관하여 다투고 싶을 때,
법원은 어느 범위까지 소송을 제기할 자격을 주고 있는지에
관하여 건축허가처분 취소소송 관련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봤다.

있다. 판례는 당해 처분의 근거법규 및 근거법규가 준용하거나 참작하도록 하는 법규(관련법규)를 기본으로 하되, 직접 개인의 이익을 보호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더라도 법규의 합리적 해석상, 근거법규 및 관련법규가 행정청을 제약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이유가 순수하게 공익을 보호하려는 데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 · 구체적 이익을 보호하는 취지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되는 경우에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으로 취급하는 입장에 있다.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건축허가처분에 대하여 건축허가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적격이 문제된 관련 판례 사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인근주민의 원고적격을 인정하지 않은 판례 사례

: 건축허가가 난 건물의 부지와 인접한 토지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원고가 건축허가가 난 해당건축물의 용적률이 법에서 허용하는 한도를 벗어났기 때문에 위법하다고 건축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건축법 제56조에 따라 건축물의 용적률을 제한하는 것은 적당한 도시공간을 확보하여 과밀화를 방지함으로써 도시기능의 조화를 도모하는데 그 주된 목적이 있는 것이고 이로써 직접 인접지 거주자 등의 개별적인 이익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건물의 부지와 인접한 토지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을 뿐인 원고로서는 가사 위 건물의 용적률이 법에서 허용하는 한도를 벗어났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이유만으로 위 건물에 대한 건축허가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2두1556 판결). 그리고 이러한 법원의 입장에 따른다면 건축허가가 난 해당건축물의 건폐율이 건축법 제55조에서 허용하는 한도를 벗어났기 때문에 위법하다고 인접 토지 소유자가 건축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건축허가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볼 것이다.

2. 인근주민의 원고적격을 인정한 판례 사례

인정사례 (1) : 주거지역 안에서는 구 도시계획법 19조 1항과 구 건축법 32조 1항에 의하여 공익상 부득이 하다고 인정될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주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해치는 모든 건축이 금지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거지역내에 거주하는 사람이 받는 위와 같은 보호이익은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이익이라고 할 것이므로, 주거지역내에 위 법조 소정 제한면적을 초과한 연탄공장 건축허가처분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는 제3거주자는 비록 당해 행정처분의 상대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그 행정처분으로 말미암아 위와 같은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받고 있다면 당해행정 처분의 취소를 소구하여 그 당부의 판단을 받을 법률상의 자격이 있다(대법원 1975. 5. 13. 선고 73누96,97 판결).

인정사례 (2) : 건축법 제61조의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규정은 인근주민이 원고적격을 인정받을 수 있는 근거법규가 된다(대법원 1992. 4. 24. 선고 91누11131 판결 유추).

개항과 전쟁, 도시의 운명을 바꾸다

Shaking up Cities since the Opening of her Ports in 1876

안창모 | 경기대학교 대학원 건축설계학과 교수, 역사문화환경보존프로그램

개항, 도시를 재편하다

1876년 2월 27일 조선 정부는 세계를 향해 문호를 개방했다. 일본과 체결한 강화도 조약[1]을 통해서였다. 강화도조약 이전에도 조선은 중국과 일본은 물론 류큐왕국 등과 교류를 하고 있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강화도 조약을 통한 문호 개방은 인접 국가보다는 그 동안 외교관계가 없었던 서구제국에 대한 문호개방과 교류를 시작했다는 사실이 조선의 운명을 이전과는 다르게 만들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일본과 조약을 체결함으로써 조선은 이전의 일본과는 다른 차원에서 관계를 새롭게 정리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일본의 입장에서는 이전까지 조선과의 외교관계가 을의 입장에 가까웠다면, 강화도 조약을 통해서 대등하거나 힘의 우위에 있음을 확인하는 기회이기도 했다.

강화도조약 제4조는 '조선국 부산 초량항에는 이미 오래전부터 일본 공관이 세워져있어 양국 백성들의 통상 지구로 되어왔다. 지금은 응당 종전의 관례와 세견선 등의 일은 없애버리고 새로 만든 조약에 준하여 무역 사무를 처리한다. 조선국 정부는 제5조에 실린 두 곳의 항구를 개항하여 일본국 백성들이 오가면서 통상하게 하며 해당 지방에서 세를 내고 이용하는 땅에 집을 짓거나 혹은 임시로 거주하는 사람들의 집을 짓는 것은 각기 편리대로 하게 한다.'고 규정하고 제5조에서는 대조선국 개국 485년 병자년(1876년) 2월부터 모두 20개월 안에 경기, 충청, 전라, 함경 5도 중에서 연해의 통상하기에 편리한 항구 두 곳을 지정한다고 하였다. 즉 1878년 말까지 부산항외에 2곳을 추가로 개항한다는 내용이었다. 이에 따라 개항된 곳이 원산과 인천이었다. 원산

그림1. 인천 감리서 전경

1) 공식 조약 명칭은 '조일수호조규(朝日修好條規)'

이 1879년, 인천이 1880년에 개항하였다.

부산은 이미 통상을 위한 용도로 개항되어 있던 상태였으니, 실질적으로 새로 개항된 곳은 원산과 인천인 셈이다. 이중에서 동해안에 개항된 원산은 러시아에 대한 견제와 대륙침략을 위한 거점 그리고 통상을 위한 개항장의 성격이 강했다. 그러나 인천은 원산과는 성격이 달랐다. 조선의 수도인 한성부와의 관계 때문이었다.

개항은 도시의 재편을 가져왔다. 조선시대에는 사농공상(士農工商)의 4개 직업군 중에서 상업(商)을 마지막에 둘 정도로 상업을 천시하였는데, 이는 고려시대에 상업의 발달이 가져온 사회적 폐해를 다시는 반복하지 않겠다는 사대부들의 다짐의 결과였다고 할 수 있다.

그 결과 외국과의 거래가 거의 없어 포구의 발달이 미비했다. 포구는 국내용으로만 필요했다. 유일한 국제 항구의 역할은 일본을 향해 열려 있던 삼포였다. 부산포, 내이포, 염포 중 부산포가 강화도 조약이후 개항장으로 지정되면서 빠른 변화를 겪게 되었다.

정부는 개항장에 통상 사무업무를 관장하는 감리서를 개항장에 설치하였다. 감리서는 행정면에서는 관찰사와 동등한 지위를 가졌으며, 통상교섭관련 업무에 한해서는 목사나 부윤에게 훈령하고 지령을 할 수 있었다. 그러나 1906년 2월 1일 통감부가 설치되면서 9월 24일에 감리서가 폐지되고, 해당 업무를 통감부 이사청에서 관장하였다.

부산, 왜관에서 일본의 전관조계지로의 전환

강화도조약 제4조에서 언급되어 있는 바와 같이 부산의 초량항에는 이미 일본 공관이 있고, 양국 간에 통상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1407년(태종 7년) 동래의 부산포를 시작으로 웅천의 내이포와 울산의 염포 등에 왜관이 설치되었다. 세종 1년 대마도 정벌과 임진왜란을 비롯하여 크고 작은 말썽이 일어, 설치와 폐지가 거듭되기는 했지만, 삼포에 설치된 왜관은 오랜 세월동안 일본과의 통상과 교류근거지로 역할을 수행해왔던 것이다.

강화도 조약에 의한 부산의 개항은 1876년 8월 24일에 이루어졌고, 1877년 1월 30일에 체결된 '부산항 조계조약(釜山港 租界條約)'에 따라 일본의 전관거류지가 설치되었다. 조선 최초의 조계지다. 이때 설치된 조계지의 면적은 약 11만평으로 예전의 초량왜관의 면적과 같았다[2]. 부산의 조계지는 위치나 규모가 실질적으로 조선시대 초량왜관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일인들의 전관조계지 동측에 각국 거류지가 조성되었고, 영국영사관과 러시아공사관 부지도 마련되었다.

지금의 용두산을 중심으로 용미산을 포함하는 지역에 설치된

그림2. 부산초량왜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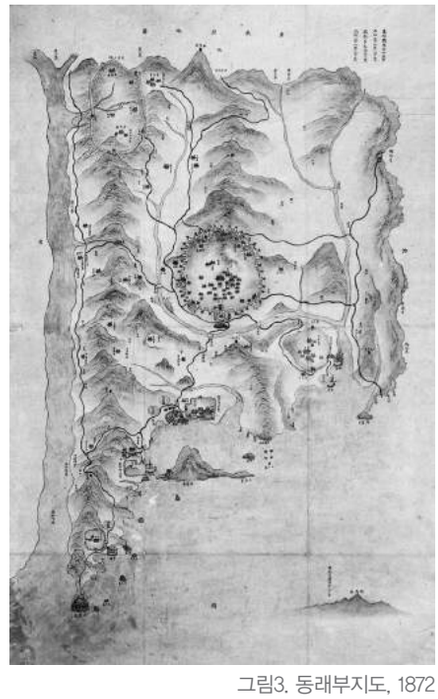


그림3. 동래부지도, 1872

그림4. 부산항시가 및 부근지도, 1903

조계지에는 1880년 4월에 용두산 남측산록에 영사관이 설치되었고, 1905년 을사늑약 이후에는 영사관은 이사청으로 바뀌어 부산의 행정을 담당하였으며, 1910년 이후에는 부산부청으로 사용되었다. 부산 영사관은 서양식 목조건축으로 지어졌으며, 전면에 베란다가 설치되었다.

을사늑약 체결 전까지 개항장의 외교 통상업무를 담당하던 감리서의 업무를 초기에는 동래부사가 겸임하였으나, 1890년 업무

그림5. 용두산과 일본 조계지 전경

2) 정소연, 우신구, 부산개항장의 주요시설 형성과 변천에 관한 연구, 한국건축역사학회

그림6. 일본 영사관, 이사청시절 모습

그림7. 부산부청 모습

가 증가하여 독립적인 감리서[3]가 설치되었다.

용두산에는 일인들의 신사가 건축되었으며, 용두산 주변에는 일본인 주거지와 상권이 형성되었고, 용두산 북측에는 일본군병영이 설치되었다. 일본군병영 터에는 1929년에 동양척식주식회사[4] 부산지점이 지어졌다. 용두산 남측에 위치한 용미산에 1907년에 신사가 건축되었으나 1936년 3월에 부산부청이 건축되었다. 용미산에서 영도를 연결하는 부산대교(현 영도대교)는 1924년 11월에 건설되었다. 개통 당시 부산대교는 배의 통행을 위해 다리가 들어 올려지는 도개교의 형식을 갖추고 있었다.

그림8. 부산부청과 영도다리

그림9. 용두산공원의 신사

원산, 일본의 대륙 침략 거점

원산은 동해안에 위치한 항구도시로 강화도조약으로 개항된 3개의 항구 중에서 일본의 대륙진출과 통상의 의미가 두드러지는 개항장이었다. 개항장 선정을 위한 교섭과정에서 일본은 영흥만(永興灣)의 북쪽에 있는 문천군(文川郡) 송전리(松田里)를 개항지로 요구하였으나, 문천이 왕릉의 소재지라는 이유로 거부되자 차선책으로 원산진을 개항장으로 요구했다[5]고 한다. 일본이 원산의 군사적 가치가 개항지 선정에 영향을 미쳤음은 일본정부가 개항 교섭을 담당했던 하나부사 요시모토(花房義質) 대리공사에게 '이 항구는 무역에 긴요할 뿐 아니라, 근린국의 군사적 준비에 대하여 양국의 이해가 걸려 있으니, 개항에 차질이 없도록 임무를 다할 것'을 지시한데서도 드러난다. 한편, 개항과 함께 조선시대에 상권의 중심에 있던 객주(客主)[6]의 활동 무대가 개항장으로 옮겨졌다. 1879년에 개항한 원산에는 1883년에 원산상회소가 설립되었으며, 1884년에 45명의 객주가 있었다고 한다. 개항 초기에는 통상조약에 의해 외국상인들의 활동 반경이 제한되었기 때문에 외국 상인은 한인 도매상인 객주의 중개를 거쳤다고 한다. 당시 정부의 수입중 관세와 개항장에서 걷어 들이는 수입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였는데, 정부는 객주 영업 허가권을 가지고 있었다. 객주의 영업독점점은 절대 다수를 차지하던 일본 상인의 요구로 갑오개혁 이후 폐지되었으나, 객주의 영업독점권은 강제병합까지 지속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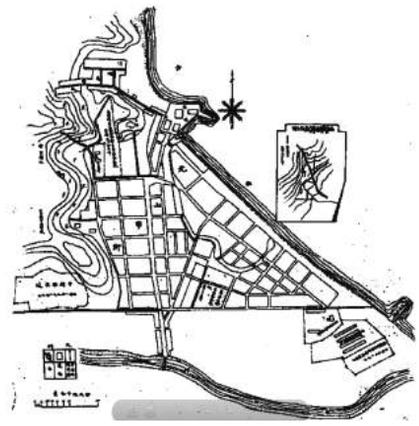


그림11. 원산일반도, 1906추정, 출처: 양상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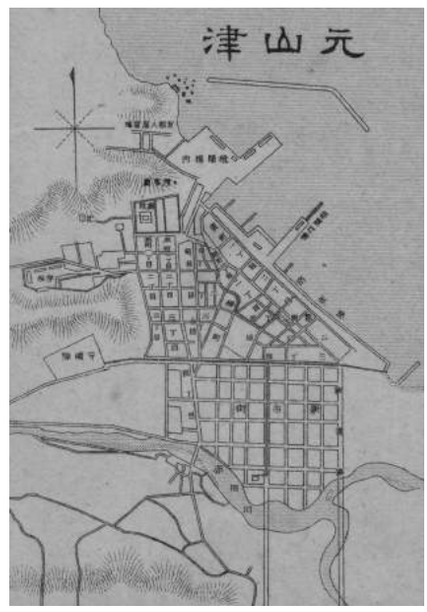


그림12. 원산진 지도, 1910년 조선교통지도

원산은 부산에 이은 두 번째 개항도시지만, 부산이 조선시대부터 일본과 통상을 행하던 도시로 조선시대의 도시조직을 그대로 이어받고 있었던데 반해, 원산은 개항으로 인해 조계지가 새롭게 조성되었기 때문에 개항 이후 조성된 신시가지로는 원산이 첫 번째 도시라고 할 수 있다.

1881년 5월 23일에 일본영사관이 설치되고, 이어서 '원산진거류지지조약서(元山津居留地地租約書)'가 조인되었다.

원산에는 일인과 청국인 거류지가 위치하였는데 청국인 거류지는 원산진 북측에 위치해 있으며, 일인 거류지는 기존의 한인

그림10. 원산, 신사(엽서 중앙 산 중턱)와 영사관(오른쪽 산 중턱)

3) 부산감리서는 부산 중구 영주동 봉래초등학교 부근에 위치했었다.
4) 식민지 수탈의 상징인 동척 부산지점은 해방 후인 1949년에 미국 해외공보처 미문화원으로 사용되었으며, 6.25전쟁 중에는 미국대사관으로도 사용된 바 있다. 전후 미국문화원으로 사용되었으나 1999년 4월 30일 우리 정부에 반환되어 2003년 이후 부산근대역사관으로 사용되고 있다.
5) 양상호, 원산거류지의 도시공간의 형성과정에 관한 고찰, 건축역사연구 제3권 2호, 1994년 12월, 92쪽
6) 객주란 '객상지주인(客商之主人)'의 축약어로 객상인 선상(船商)과 행상(行商)의 위탁을 받아 매매를 주선하고 보수를 받는 상인을 말한다.

마을인 원산진의 서남측 약 2.5km거리에 위치해 있다. 1906년 지도로 추정되는 〈그림4〉의 지도는 서측으로는 구릉지에 접하고 동측으로 바닷가에 면한 거류지의 모습을 보여준다. 1910년에 발행된 조선교통지도의 원산시가도에서는 삼각형 시가도 제일 위쪽에 영사관이 위치하며 삼각형 밑변의 서측 끝에는 일본군 병영이 위치했음을 알 수 있다. 을사늑약이후에는 거류지가 확대되면서 남측으로 격자형 신시가지가 조성되었다.

인천, 개항으로 성장하고 국권 상실로 버려진 도시

인천은 세 번째로 개항된 도시지만, 서울과의 지리적 연계성으로 인해 서울의 관문이라는 성격을 갖고 있어, 중요도가 가장 높고 가장 빠르게 성장한 도시다. 1908년에 발행된 〈인천개항 25년사〉에 따르면 '인천은 갈대만 무성히 자라고, 월미도 동쪽과 만석동 해변에 소수의 어촌만이 점재한 곳'이었다고 한다. 그러나 서울의 관문이라는 지정학적 입지와 1930년대 일본의 중국 침략으로 인천의 군사적 입지가 중요해지면서 매우 빠르게 성장하였다. 그러나 흥미롭게도 인천이 갖고 있는 지정학적 중요성은 정부의 인천에 대한 개항 결심을 늦추는 결과를 가져왔다. 주목할 것은 인천의 인구변화다. 1910년 한국이 강제병합된 이후 1930년대 중반까지 인천시 전체의 인구는 꾸준하게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인들의 인구는 1910년대 이후부터 정체되었다. 이는 인천이 갖고 있는 지정학적인 특징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서울과의 가까운 거리로 인해 개항에 신중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어 개항이 늦어졌지만, 러일전쟁이후에 조선에 대한 지배권을 확보한 일본의 입장에서는 부산-서울-의주라는 전략적 가치의 입지에서 벗어나 있는 인천의 위치로 인해 한국의 강제병합이후에 인천의 가치는 매우 낮았기 때문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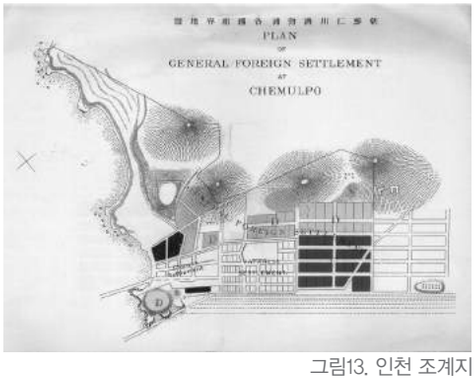


그림13. 인천 조계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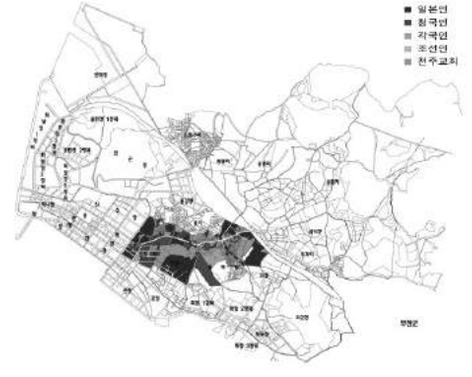


그림14. 개항장과 동인천 지적지도, 1912년

인천의 개항이 결정될 즈음에 미국과 '조미수호통상조약'이 체결되고 연이어 영국, 독일, 러시아, 프랑스와 조약이 체결되었다. 이들 국가들과 '인천 제물포 각국조계정정'이 체결되면서 인천에 공동 조계지가 설치되었다. 〈그림 13〉은 이때 마련된 일본과 청 그리고 서양 각국을 위한 조계지 계획도다.

그림15. 러시아영사관

그림16. 일본영사관

중앙의 일본 조계지를 중심으로 왼편에 청국조계지 오른편에 각국 조계지가 위치해 있으며, 일본조계지 위쪽으로 각국공원(현 만국공원)이 위치해 있다. 도면에서 D로 표시된 지역은 영국영사관이 위치했던 곳이다.

개항장 인천을 이해하는데 있어 중요한 곳이 동인천 지역이다. 이곳은 개항장의 형성과 함께 한인주거지로 형성된 곳이다. 개항장이 외인들과 외인들과의 교역을 위한 장소였다면, 동인천 지역은 한인들의 거주지였다. 개항장과 동인천은 동시기에 형성되었지만, 두 지역의 운명은 전혀 달랐다. 개항장은 개항이후 제도적 지원 하에 새로운 신시가지로 조성되고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성장해왔지만, 동인천은 자생적으로 시가지를 형성하면서 동시기의 인천의 또 다른 역사를 만들어온 지역이다. 동인천과 개항장 사이에는 한인과 청국인과 일본인 그리고 서양인이 함께 거주하는 잡거지가 형성되어 있었으며, 학교와 종교시설을 비롯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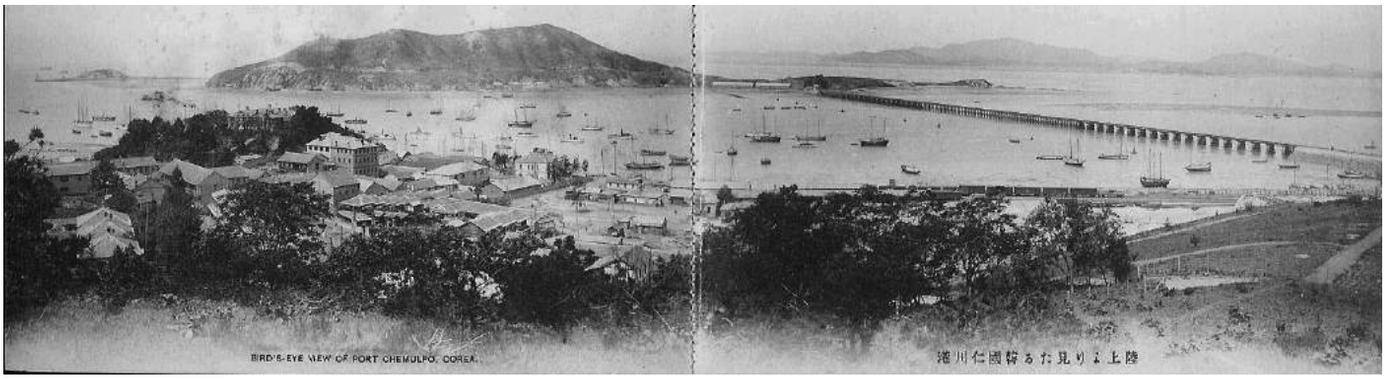


그림17. 인천 전경

그림18. 인천 본정통, 인천제일은행, 18은행 58은행이 나란히 위치하고 있다.

그림19. 인천 동인천역 앞 길

도시적 삶을 위한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었다. 그림14의 필지 소유관계가 표지된 1912년 지적도는 개항장과 동인천이 개항장 인천을 구성하는 2개의 축이었음을 보여준다.

1910년 한국이 식민지로 전락한 이후, 조선총독부에게 있어 인천은 대한제국기의 인천이 아니었다. 인천을 대신하여 일본과 직접 연결되는 부산의 중요성이 매우 높아졌고, 서울을 중심으로 부산과 연결되는 경부철도와 의주와 연결되는 경의철도 그리고 원산으로 연결되는 경원철도가 중요해 졌다. 한국의 식민지화와 함께 인천의 위상이 현저히 약화된 것이다. 인천은 경기도 일원에서 생산된 쌀의 수탈항으로 역할이 바뀌었다. 우리에게는 군산이 쌀의 도시이자 쌀 수탈의 상징적인 장소로 알려져 있지만, 인천에는 가또정미소를 비롯한 대규모 공장형 정미소가 자리 잡고 있었다. 개항장으로서의 위상을 잃어버린 인천에게 남은 것은 위락지로서의 인천이었다. 서울에서 가장 가까운 바닷가였던 인천은 서울사람들에게는 위락지로서 최적지였다. 월미도에는 당시 위락시설이 갖추어야할 모든 것을 갖추고 있었다.

그림20. 정미소 위치도

그림21. 가토정미소 전경

그림22. 월미도 유원지내 조탕 전경

바다를 이용한 수영장과, 해수욕장이 부족한 서해바다의 단점을 해결하기 위해 바닷물로 즐기는 온천이라고 할 수 있는 해수조탕도 만들어졌다.

'인천은 몰라도 월미도는 안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유명한 관광지였다. 1892년에 발행된 인천사정(仁川事情)에는 살구나무가 많아 4월 꽃이 필 무렵 인천항에서 보면 마치 일대가 붉은 노을을 갖고 있다고 표현할 정도로 경치가 좋았던 듯하다. 바로 이러한 장소성은 개발로 이어졌다. 1923년에 개장한 조탕(潮湯)은 개장 첫 해부터 흑자를 낼 정도로 인기를 거두었다. 일제강점기 원산의 송도원과 부산의 해운대와 함께 3대 위락지였던 월미도는 해수탕과 해수욕장 그리고 호텔과 요정, 보트장과 간이 동물원까지 모든 위락시설을 갖춘 종합리조트시설이었다.

그림23. 월미도 유원지 해수욕장

전쟁, 철도의 운명을 바꾸다_개화와 침략의 첨병

철도, 개화의 첨병에서 수탈의 수단으로 전락

서구사회에서 철도는 산업혁명의 상징적 아이콘이자 근대인의 삶에서 지리적 경계를 무용지물로 만든 일등공신이었지만, 우리에게 있어 철도는 침략과 수탈의 상징으로 깊이 각인되어 있다. 일제강점기에 철도가 침략과 수탈의 상징이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일본인들은 부산을 통해 한반도에 입성했고, 서울에 들어왔으며, 또 다시 신의주에서 만주로 청나라로 침략의 루트를 확장했다. 일본의 한국과 만주 그리고 중국을 침략하는 루트의 근간에는 철도가 있다. 경부선과 경의선이 대표적인 예다.

그러나 모든 철도가 일본의 뜻대로 시작되고 움직였던 것은 아니었다. 우리나라 철도역사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경인철도가 그 예다. 경인철도는 대한제국의 의지로 건설이 결정되었다. 미국인 모스에게 주어진 경인철도 부설권이 경제적인 문제로 일본에게 넘어갔지만, 1900년에 완공된 경인철도는 대한제국의 근대화

의지를 드러내는 대표적인 사업의 하나였다. 그러나 경의철도와 경부철도는 달랐다. 경의철도는 한국침략을 위한 준비로 시작되고, 러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이 한반도에 대한 지배력을 확보하면서 건설한 철도가 경부철도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건설된 경의철도와 경부철도가 한국을 식민지화하는데 앞장섰고, 한국이 식민지로 전락한 이후 경부철도, 경의철도 등과 함께 경인철도 역시 식민지수탈과 침략의 도구로 전락하였다.

경인철도_외교루트에서 수탈루트로 전락

경인철도는 대한제국에 의해 건설된 최초의 철도다. 경인철도 부설권을 획득한 제임스 모스(James R. Morse)가 서울과 제물포 사이의 철도부설계획을 수립하여 1897년 3월 28일 인천 우각현에서 공사를 시작하였다. 그러나 자금난으로 1898년 5월 10일 철도부설권이 '경인철도합자회사'에 넘어갔다. 1899년 9월 18일 1차로 노량진까지 개통되었고, 1900년 11월 12일 서대문을 종착역으로 하는 경인철도가 완공되었다.

경인철도는 대륙침략과 식민지 수탈의 상징인 경의철도나 경부철도와는 달리 대한제국이 근대국가 건설의지가 담겨 있는 철도였다. 경인철도의 건설은 조선시대에 중요한 외교 상대였던 중국을 대신하여 인천항을 통해 서구열강과 국제적인 관계를 형성하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개성에서 평양을 거쳐 의주를 통해 중국으로 연결되는 외교루트가 효력을 상실하고, 경인철도를 통해 서구와의 외교와 통상루트가 형성되었다. 결과적으로 경인철도 건설은 개항이후 서울의 성장 축과 공간구조 개편의 시발점이 되었다.

경인철도는 대한제국이이 세계를 만나는 새로운 길이었다.

조선이 외교관계를 수립한 각국은 인천을 통해서 서울로 들어왔고, 그들을 통해 조선은 세계무대에 데뷔했다. 미국 선교사들이 인천을 통해 들어왔고, 통상도 확대되었다. 곧이어 놓인 경인철도는 서구 문물을 받아들이는 문화의 고속도로였다.

그림24. 부산역

그림25. 신의주역

경의철도와 경부철도_한반도와 중국침략의 루트

경의철도는 1896년과 1899년 프랑스 피브릴(Fives Lile)과 대한철도회사가 각각 부설권을 얻었으나 자금조달 실패로 부설권을 상실하고, 1900년 내장원 산하에 서부철도국을 두고 서울-개성 간 측량을 시작으로 철도부설을 준비하였다. 그러나 1904년에 러일전쟁을 도발한 일본은 전쟁수행을 위해 서울-신의주간 철도부설을 서둘렀고, 이를 위해 임시군용철도감부를 설치하였다. 1904년 3월 용산-개성구간을 시작으로 1906년 청천강 대동강철교가 완공되면서 전 노선이 개통되었고, 1911년에는 압록강철교가 완공되어 중국과 연결되었다.

한편, 1904년 러일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하면서, 한반도에 지배권을 확보한 일본은 한일의정서를 체결하고 용산에 일본군 병영을 건설하였다. 이로써 서울에서 최초의 신시가지인 용산은 병영과 철도의 신시가지가 조성되었다. 그렇게 형성된 신용산은 일제강점기에 구용산과 달리 일인들의 도시였으며, 비록 함께 개설된 한강로로 원 도심과 연결되었지만, 사대문안과는 구별되는 독립적인 시가지가 형성되었다.

경인철도와 경의철도와 달리 경부철도는 1898년 9월 처음부터 일본이 부설권을 확보한 철도였다. 일본은 1901년 6월 경부철도주식회사를 세웠지만, 설립자금의 4분의 1이 일본정부 돈이었다. 경부철도주식회사 사장이었던 시부자와 에이이치는 '경부선은 조선에서 일본의 유일 맥관이자 사활의 기관'이라며 경부철도가 일본에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강조하며 왕족에서 시골 농민에 이르기까지 경부철도에 투자할 것을 선동하였다고 한다. 1904년 12월 27일에 개통되었다. 일본이 러시아와의 전쟁에서 승리함으로써 경부철도의 종착역인 부산역은 일본의 한반도 침략의 창구가 되었으며, 경의철도의 종착역인 신의주역은 중국 침략의 관문이 되었다.

이후 부산은 일제강점하에서 한국의 제2의 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게 되고, 의주 옆에는 역사도시인 의주를 대신하여 신도시인 신의주가 건설되었으며, 압록강 맞은편에는 신의주와 이란성 쌍둥이라고 할 수 있는 안동시가 신시가지로 새롭게 만들어졌다.

2012년 아시아건축사대회 참가 보고서

The 15th Asian Congress of Architects

제15차 아시아건축사대회(The 15th Asian Congress of Architects) 및 아시아건축사 협의회(ARCASIA) 각종회의와 건축대학생잼버리대회가 2012년 10월 29일부터 11월 3일까지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렸다.

아시아건축사협의회가 주최하고 인도네시아 건축사협회(IAI) 주관으로 진행된 2012년 행사는 10월 29~30일 아시아건축사대회(ACA 15), 10월29일~11월2일 학생잼버리대회(Student Jamboree), 10월 31일 아시아건축사협의회 각종 위원회, 11월 1일~2일 제33차 이사회 및 11월 3일 공식답사로 구성되었다. 대회 이튿날에는 2011~2012 ARCASIA 건축상 수상식이 있었다. 같은날 예년과 마찬가지로 국제건축사연맹 제 4 지역 회의(UIA RegionⅣ)도 개최되었다.

본 협회는 공식대표 강성익 회장과 6명의 국제위원회 위원, ARCASIA 고문 1인, 사무국 국제협력팀 1인 및 2명의 학생이 대표단으로 참가 했다.

대회 참가의 특기할만한 사항은 본 협회는 오랜 회원국으로서 우리가 잘 할 수 있는 것을 제안한다는 뜻에서 "아시아건축유산위원회(ARCASIA Committee on Architectural Heritage of ASIA)" 개설 요청을 했었고 임원회의에서 임시 위원회명칭을 "ARCASIA Committee on Heritage and Conservation(ACHC)"로 권고 받아 제안서 및 정관 등을 제출했던 점이다. 임원회의의 긍정적인 검토를 거쳐 개시는 안 되었지만 우선은 활동을 하면서 추이를 보기로 했다.

또한 본 협회 조인숙 건축사가 제2소주제인 건축설계분야 연사로 초청되어 "한옥설계의 여러 가지 시도들(Designing Hanok, the Korean Organic house : Contemporary Challenges)"이라는 제목으로 아시아건축사대회(10월 29일) 및 학생잼버리(11월 1일)에서 강연을 함으로써 한옥의 우수성을 아시아에 알렸다. 2011년 베트남 다낭에서 결정된 2011-2012 ARCASIA건축상은 (주)공간 건축 이상림 건축사의 "Olympic Plantation Farm Shop" (B1 : Public amenity Commercial buildings 분야)과 다리건축 조인숙 건축사의 "The HMS House-한무숙 문학관 수리"(D2 : Restoration and Adaptive Re-use 분야) 두 작품이 상(Gold Medal)을 받았다. 학생잼버리대회는 2012 한국건축문화대상 수상자중 선발된 홍익대 최호근 학생과 예년에 없던 논문공모를 거쳐서 논문이 채택된 한양대학교 대학원 이성호 학생이 대표로 참가하였다. 2013년부터는 격년제로 짝수 해에 열리는 학생잼버리대회와 더불어 홀수 해에 학생설계경기가 개최될 예정이다.

Ⅰ. 제15차 아시아건축사대회 (The 15th Asian Congress of Architects)

이번 대회 ACA15는 "모더니즘의 도전-새로운 패러다임의 아시아도시와 건축유산(A Modernism Challenge: Asian Cities and Architecture heritage in a New Paragidm)이라는 주제 하에 1) 아시아 도시와 도시개발(Asian Cities & Urban Development) 2) 건축설계(Architectural Design) 3) Cross-Border Practice의 세 가지 세부

주제를 놓고 동시다발적으로 열리는 학술대회로 열렸다.

10월 29~30일 (월~화) 진행되었으며 대회 장소는 인도네시아 발리 누사두아 컨벤션센터(Bali Nusa Dua Convention Center :BNDCC)였다. 대회장(Convener)은 인도네시아건축사협회 전 회장 엔디 수비요노(Endy Subijono, IAI) 였다.

대회 첫날 개회식은 BNDCC에서 진행되었고 발리 전통춤에 이어서 지역전통의식인 커다란 공(Gong, Gamelan이라는 인도네시아 전통 타악협주곡에 사용하는 악기)을 치는 것으로 대회의 시작을 알렸다. 대통령 대신에 관광창의경제부(Ministry of Tourism and Creative Economy of Indonesia) 장관 마리 엘카 판게추(Mari Elka Pangestu, 중국명 펑휘란 冯慧兰, 1956년생) 박사의 "아시아 도시와 도시개발(Asian cities and Urban Development)"이라는 주제 하에 폭넓은 이해의 도시문제와 건축에 관한 강연으로 학술대회가 개회되었다. 판게추 박사는 중국계 인도네시아 인으로서는 최초로 여성장관(통상부)으로 기용되어(2004~2011) 괄목할만한 업적을 남기고 신설부처인 관광청의 경제부 장관으로 발탁되었다. 인도네시아는 이 부처에서 건축 및 예술분야를 다룬다.(장관 일정이라 기조강연 앞으로 순서를 바꾼 것 같다)

고령이지만 여전히 활발히 움직이는 일본인 마키 후미히코(槇 文彦, 1928년생) 씨의 대회 기조강연 "언어, 경관 및 모임이라는 관점에서 보는 일본 문화(Japanese Culture fron the Point of View of Lanuage, Landscape and Gathering)" 로 대회를 열었다. 마키 씨는 결론적으로 "부유하는 모더니즘(floating Modernism)"이라는 것으로 귀착하며 '21세기 모더니즘의 특징은 애초의 목적이나 원칙 스타일 등을 상실한 채 정보의 홍수에 그냥 녹아는 것이다. 건축사들은 더 이상 커다란 배에 타고 있는 승객이 아니라 완전히 열려있는 바다를 헤매는 채로 남겨진 사람들이다. 물론 개개의 건축사들이 각자의 목적이나 원칙 및 스타일은 지니고 있다. 그러나 망망대해에서는 무엇을 잡아야할지 어디로 헤엄쳐 나가야할지를 알아야한다. 모든 것이 관련된다는 맥락 속에서 건축의 미래를 생각해보자면 지역문화의 질에 대해 재해석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피력했다.

제2소주제 건축설계(Architectural Design)는 타일랜드가 나은 세계적인 건축사 수멧 줌사이(Sumet Jumsai, 1938년생) 씨가 괄목할만한 헤리티지 건축과 새로운 작품들을 중심으로 강연했다.

제3소주제는 싱가포르 건축사협회 회장 및 싱가포르대 교수를 역임한 아시아의 석학 타이 켕 순(Tay Kheng Soon, 1940년 생)씨가 Cross-border practice라는 소주제를 놓고 그동안 본인이 아시아 건축에서 좋은 설계가 뭐냐에 대해 오랫동안 고민해 온 "루바니제이션(Rubanisation)"에 대해 강연했다. 루바니제이션이란 인간 정주(定住)에 대해 도시와 도시를 에워싼 그 주변이나 도시 밖의 시골이 서로 다른

강연 '한옥설계 – 여러가지 시도들'

영역이 아니라 하나의 공간으로 간주되어야한다고 재해석한 개념이다. 이는 사회정의, 문화정의 그리고 환경정의 측면에서 유래한 개념이다. 그러므로 진정한 생명력 있는 선택의 삶을 위한 공간의 구체가 요구된다는 주장이다.

주제 강연에 이어 초청연사와 발표논문 모집을 통해 채택된 논문의 두 종류로 동시다발적으로 소주제별로 세 곳의 다른 장소에서 강연 및 발표가 진행되었다. 대회 첫 날 약 15명이 발표를 했다.

오후 강연 중 건축설계 소주제에서는 앞서 언급한 "한옥설계-여러가지 시도들"이라는 제목으로 과거 10년 동안 작업한 것 중 다섯 개의 한옥작품을 통해 빈 대지에 짓는 한옥; 수리와 재활용 한옥; 콘크리트 안에 넣는 한옥에 대해 설명하면서 한옥의 구성 원리 및 개념에 대해 소개함으로써 두 번째 소주제 관련 한국의 상황을 피력했다.

대회 둘째 날은 인도네시아 최초의 환경부 장관을 지낸 에밀 살림(Emil Salim, 1930년생) 박사의 기조 강연으로 시작했다. 골자는 발리섬에 적용되는 "트리 히타 카라나(Tri Hita Karana)" 라는 영혼과 인간과 자연의 합일로 이루어진 삶의 균형을 의미하는 개념을 바탕으로 공간계획(spatial planning)을 통한 초경계의 건축실무에 대해서였다. '트리 히타 카라나'란 2000년 전부터 인디아와의 문화교류를 통해 자리매김을 한 철학적 개념으로 인도네시아 경관조성의 기틀이 된다.(인간과 신, 인간과 인간, 그리고 인간과 자연의 관계인 이 개념이 적용된 인도네시아의 경작지 경관 "the Balinese Subak Cultural Landscape"이 2012년 7월 세계유산에 등재되었다).

기조강연 후에는 첫째 날과 마찬가지로 각 소주제에 대한 강연이 있었다. 덴파사(Denpasar) 시장 라이 달마위자야 만트라(I.B. Rai Dharmawijaya Mantra)씨의 아시아 도시와 도시개발에 대한 강연의 주 내용은 정부의 역할에 대해서였다. 자국문화를 기초로 하는 창조도시란 발리의 원래 문화에 기저가 있으며 조화롭고 균형 있는 개발을 의미한다고 했다.

두 번째 소주제인 건축설계 대해서는 싱가포르의 찬수키안(CHAN Soo Khian, 1962년생)씨가 "시(詩)적 건축(Poetic Architecture – Architecture as narrative)"이라는 제목으로 근작들을 소개 했다. 찬수키안은 자국 대통령상뿐만 아니라 영국, 미국 등에서 다양한 건축상을 수상한 알려진 건축사로, SCDA 건축사사무소의 설립자로 설계총책을 맡고 있다.

세 번째 소주제인 Cross-border Practice에 대해서는 말레이시아의 에사 무하마드(Dato Haji Esa Muhamed)가 국제건축사연맹의 건축실무위원회 권고안을 중심으로 이야기 했다. 에사 무하마드 씨는 2001년 아가 칸 상(Aga Khan Award) 수상자이며 현 국제건축사연맹 제4지역(UIA RegionⅣ) 부회장이기도 하다.

전날과 마찬가지로 세 곳의 다른 장소에서 진행되었고 약 15명이 발표를 했다.

소주제 발표는 동시에 세 곳에서 개최되어 다 들을 수는 없었지만 학술발표내용 중 흥미로웠던 주제는 발리건축(Balinese Architecture)이다. Cross-Border Practice에서 전통의 재해석(Reinterpreting Traditions for Cross-Border Practice in Design and Architecture)이라는 제목으로 연사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윌리암 부스 프로젝트(구세군 국제본부) 설계를 수행한 케툿 아타나(Ketut Arthana, IAI) 였다.

주요 개념으로 발리주택 공간구성에 나타나는 전형적인 열어가는 공간(Unfolding Space), 대부분의 발리 힌두사원 공간구성에 적용되는 동적인 조화(Dynamic Balance), 정적인 균형을 이루는 인간척도(Human Scale), 내면과 외면의 통합(Unity of the internal and external-Buana Agung and Buana Alit), 음과 양의 조화(Yin and Yang-Rwa Bhinada), 신-인간-자연의 관계 속의 조화로운 삶(Tri

Hita Karana), 그리고 최고의 예술의 경지를 표현하는 의미의 '탁수' (spirit or power –Taksu) 등을 소개했다. 한편 설계업무의 어려움에 대해 전문가의식의 결여 및 외국건축사들에 대한 의뢰인의 태도 등에 대해 언급했다.

각 세션마다 질의응답이 있었다. 기타 주요연사로는 프랑스의 폴 앵드류(Paul Andrew)나 말레이시아의 케빈 로우(Kevin Mark Low) 등이 있었다. 학술발표 내용은 PDF파일을 참조하기 바란다.(홈페이지 게재)

참고로 학술대회 대회장은 인도네시아대학(University of Indonesia) 건축학부 교수인 헨드라자야 이스나에니(Dr. Hendrajaya Isnaeni) 박사였다.

대회 둘째 날 오후에 계획되었던 단체장 포럼(Presidential Forum)은 글로벌포럼(Global Forum)으로 형식을 바꿔서 진행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1) Zone A 부회장 칼림 시디뀌(Kalim A. Siddiqui, IAP)가 ARCASIA의 역사를 정리해서 1967년부터의 활동상황과 발전경과 및 각 위원회에 대해 발표했다. 2) 에사 무하마드(PAM)는 앞으로의 가능성 및 웹사이트 등에 대해 피력 했다. 3) 호주건축사협회 차기회장이자 시드니대학 교수인 폴 버크마이어(FRAIA Paul Berkemeier)는 굿 거버넌스 시스템 및 Canberra Accord에 관해 언급을 했다. 그리고 나서 4) UIA2014 Durban세계대회(주제: architecture OTHERWHERE durban 2014) 조직위원장이 대회에 대한 경과보고와 로고의 변화과정, 대회주제 등에 대한 설명 및 개최 도시인 더반의 에센스에 대해 소개했다. 건축사대회(Congress)는 2014년 8월3~7일, 총회(General Assembly)는 8일~10일 이며 더반 국제 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차차기(2017년) 개최지가 서울이므로 진행과정 발표가 흥미로웠다.

대회(Congress)는 격년제로 열리는 2011~2012 ARCASIA 건축상 시상식과 참가수료증을 배부하는 것으로 종료했다. 건축상 시상식은 컨벤션센터 홀에서 작품 전시 및 영상전시와 함께 열렸는데 예정시간 보다 빨리 진행하는 바람에 잘 차려입고 시상식에 참석하려던 각국 건축사들이 도착했을 때는 시상식이 이미 끝나서 나중 이사회에서 다소 잡음이 있었다. 일본 참가자의 경우 어쩔 수 없이 별도로 진행을 했다는 후담이 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한국은 두 작품이 상을 받았다.

조인숙 국제위원회 위원장

II. 위원회(ARCASIA Committees)

각종 위원회는 10월 31일(수) 발리의 문화와 건축의 중심지인 우붓의 맨션호텔(the Mansion Resort, Ubud, Bali)에서 열렸다. 임원회의(Office Bearers Meeting, OB)에는 이근창 ACASIA고문 , 교육위원회(ARCASIA Committee on Architectural Education, ACAE)는 조인숙 위원장 및 이윤석 위원 , 친환경위원회(ARCASIA Committee on Green and Sustainable Architecture, ACGSA)는 전성호 위원, 실무위원회(ARCASIA Committee on Professional Practice, ACPP)는 이승석 위원, 사회책임위원회(ARCASIA Committee on Social Responsibility, ACSR)는 김성민 위원 및 임희선 위원, 그리고 펠로우십 회의(Fellowship Meeting)에는 회장 이하 전원이 참석 했다.

1. 아카시아 임원회의(ARCASIA OFFICE BEARER'S MEETING)

2012년 ARCASIA 임원회의는 10월31일 09:00시에 인도네시아 Bali, The Mansion Resort Hotel 1층 회의실에서 직전회장만 불참하고 임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임원은 회장, 사무총장, 재무관, ABC Zone 부회장, 직전회장과 고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임원회의에서는 이사회의 안건을 정리하고 큰 줄거리를 잡아 이사회를 원만히 진행할 수 있게 하는것이 주요 목적이다. 회의에서는 이사회 아젠다 중 보고 사항이 아닌 토의와 의결해야 할 안건만 다룬다. 임원회의에서 결정한 사항 일지라도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최종 결정하여야 한다.

회의 진행에 앞서 UIA 4지역 부회장인 Ar. Esa Mohamed의 요청을 받아들여 전날 있었던 4지역 회의 내용을 간략히 설명할 기회를 주었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4지역의 활성화와 유대 강화를 위해 지역에 속한 오스트레일리아와 뉴질랜드를 아카시아 회원국으로 참여 할 수 있는 문호를 개방해 주기 바란다.

2) UIA 내에 다양한 Working Program에 아카시아 회원국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

3) UIA 교육위원회에서 항상 부딪치는 유럽과 아시아의 교육제도에 대해 논의했고 그 중심에 Canberra Accord가 있음을 유념해주기 바랍니다.

4) Young Architects의 도약을 위해 UIA에 요청된 일부 프로젝트에 40세 미만 건축사만 참여하도록 하는 방안이 심도 있게 논의하고 있다.

5) 아카시아의 Student Jamboree는 UIA의 모델이다. 더욱 발전시켜 주기 바란다.

6) 건축사 업무의 실질적인 국경을 넘나드는 이동성과 인정은 UIA Professional Practice Commission뿐 아니라 총회의 중요한 안건이다. 아시아권에서는 ASEAN, APEC에서 활발히 논의되고 있으나 아카시아 회원국 간의 건축사 상호인정에 대한 큰 틀도 논의되기 바란다.

7) CPD에 대한 논의 역시 UIA와 보조를 맞추어 진행해 주기 바란다.

임원회의 논의된 주요안건과 의결사항은 아래와 같다.

1) 회비 송금은 발송국의 책임이다. 필리핀에서 방글라데시로 송금한 회비가 실종되어 문제가 발생한 것에 대한 조치사항이다.

2) 회계감사는 본 회의의 유용하는 자금이 소규모이므로 가능한 회장국에서 받되 저렴하게 제안을 한 회사로 한다.

3) 각 Zone의 노력으로 새로운 회원국을 발굴하였고, 그 연락처를 확인하여 통보하기로 한다. 가능한 새 회원 가능국은 부탄, 브루나이, 미얀마, 캄보디아, 타이완이다.

4) 라오스의 경우 전 회기에서 조건을 부여한 내용인 ALACE내에 건축국 신설이 완료되었으므로 정회원국 권한을 부여한다.

5) 국제기구 간 MOU는 ACE, CAA와 논의 중이며 국가와의 LOC는 호주, 뉴질랜드와 협의 중이다.

6) 위원회 활동에 관해서는 일부 정관수정을 하기로 한다.

각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두기로 하고, 부위원장이 차기 위원장직을 맡기로 한다. 신설된 위원장회의의 의장은 순번으로 하는 방안과 위원장 회의에서 정하는 방안을 이사회에 상정하여 정하기로 한다.

7) 필리핀에 등록된 법인의 Trustee는 현실에 맞게 수정하다. 필리핀 법에 의해 자국인의 60% 이상이어야 함으로 3명의 UAP 회원과 2명의 ARCASIA 인원으로 하되 적정 인물은 이사회에서 정하기로 한다.

8) KIRA가 제시한 Heritage And Conservation 위원회는 설치하는 것으로 이사회에 제안한다.

9) Timeline Chart(2nd edition)는 다음 교육위원회에서 발간하기로 한다.

10) 기 발간된 ARCASIA Heritage Book에 표기된 국경이 UN Definition과 상이한 부분에 그에 맞게 수정하여 전 회장이 Mubasshar

Hussein이 각 회원국에 통보하기로 한다.

11) 배부하고 현재 UAP에 남아있는 ARCASIA Book의 발송료를 ARCASIA에서 선불하고 차기 회장단에서 회원국으로부터 징수하기로 한다.

12) 마카오에서 담당하기로 한 ARCASIA Award Book 발간은 지속하기로 하고 수집이 안 된 작품은 각 회원국에게 통보하여 제출토록 한다.

13) ARCASIA Award의 대상은 회원국으로 한정하되 Forum의 Speaker와 AA Magazine 의 참여를 전 세계로 확대하는 방안은 이사회에 상정하기로 한다. 더불어 ARCASIA Award의 시상을 심사와 같은 해에 하는 것을 이사회에 제안하기로 한다.

14) News Letter가 원활이 진행되지 않았으나, 그 중요성을 볼 때 차기 회장단에서 맡아 발간하기로 한다.

15) Architecture Asia Magazines은 PAM에서 지속적으로 발간하기로 하고 그 내용과 방법은 이사회에서 논의하기로 한다.

16) ARCASIA의 국제적 활동을 위해 비엔날레의 개최하는 것을 점진적으로 논의하기로 한다.

17) Student Jamboree 참석 학생이 각 회원 협회를 통하지 않는 점에 대해 시정 요구하기로 한다.

임원회의는 각 위원회와 동시에 개최되었고, 각 위원회 논의 사항이 간략히 보고되었다. 위원회 논의사항은 위원회 보고서를 참조하기로 한다.

이상 회의를 16:00에 마치고, 곧이어 Fellowship 회의가 진행되었다.

이근창 ARCASIA 고문

2. 제 33차 교육위원회(ACAE, ARCASIA Committee on Architectural Education)

1) 회의일시: 2012년 10월 30일 9:00~17:30
2) 장소: 인도네시아 발리 우붓, The Mansion Resort
3) 참석: 15개국 대표 26명 (중국, 라오스, 베트남 대표 불참)
   - 의장: Prof. Abu Sayeed M. Ahmed(방글라데시 IAB)
   - 부의장: Dr. Chalay Kunawong(타일랜드 ASA),
   - 총무: Dr. Walaiporn Nakapan(타일랜드 ASA)
4) 한국대표: 조인숙 위원장, 이윤석 국제위원
5) 각국 연례 활동보고

15개국의 대표위원들이 아래 제시된 내용 중 주요 이슈들을 발표함.

가) 건축 학교 프로그램 / 나) 건축교육의 중요 이슈 / 다) CPD 프로그램 / 라) 건축사 등록 및 자격 요구사항 / 마)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위한 잠재성 / 바) 교육 인증원의 상태와 정식명칭, 이메일 주소 / 사) 학생 인턴십 프로그램 / 아) 대학교와 연락처 목록 아시아 건축 학교 핸드북 참조 / 자) 미래 계획

ACAE 교육위원회 이윤석 위원, 조인숙 위원장

ㅇ ARCASIA 학생 잼보리 매뉴얼
- 작성자(금회 불참) : Ar. Akeel Bilgrami(파키스탄 IAP)
- 이 매뉴얼에 대해서는 각국의 협회가 토론을 거쳐 2013년 2월까지 피드백을 주기로 함
- 수정 본은 각국의 대표들에게 전달되어 확인을 하기로 함
- 2013 네팔 포럼을 통해 최종 협의

ㅇ 2012 인도네시아 발리 ARCASIA 학생 잼보리
- 보고: Prof. Dewi Jayanti(Udayana대학교수, 학생잼보리 의장)
-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진행 중인 2012 학생잼보리의 상황에 대해 보고함
- 모든 학생들은 잼보리 매뉴얼에 의거, 각국의 대표 협회를 통해 선택되어져야 함

6) ACAE의 진행프로젝트들에 대한 토론과 앞으로의 계획

ㅇ 아시아 건축 학교 핸드북
- 16개국(인도가 새로 추가되고 라오스와 베트남은 아직 추가되지 못함)의 700여개 대학으로 갱신됨
- 인쇄물로 출판 하지는 않음

ㅇ ARCASIA Time line Chart: 웹 버전
- 현재 웹 버전의 ARCASIA Time line Chart 이용가능
- 다음으로 더욱 상세한 정보를 위한 Time line 연장 초안을 작성해야 함

ㅇ 가상 아시아 건축학교(VASA, Virtual Asian School of Archecture)
- 제안: Dr. Kemas(IAI)
- 내용: 아시아 건축 학교 건립 방안(기술적 부분, 인증원)
- 인증을 위한 특별 인력은 Dr. Kemas(IAI)의 주도 하에 진행 예정
- 시험용 가상 워크숍이 Nanu Saures(AAM)에 의해 진행될 예정

ㅇ 아시아의 건축학교를 위한 ACAE 위원회
- 발표: Dr. Kemas(IAI)
- 내용: 인증원에 대한 아이디어
- Prof. John Fernandez가 특별 인력을 주도할 것임

ㅇ 온라인 ARCASIA 연구 학술지 착수
- ACAE 부위원장 Dr. Chalay Kunawong이 컨셉 발표
- ARCASIA e-Journal로 명명하기로 함
- John Fernandez (UAP)에 의해 특별인력이 주도될 예정
- IIA, AAM, IAB, UAP로 부터의 검토 자문
- 첫 번째 이슈는 ARCASIA 기술적 협력 검토 기한을 거쳐 나올 예정임

7) 미래 계획 (발표: 의장 Ar. Abu Sayeed)

ㅇ 단기 계획 (1년)
- Time Line Chart의 전자 출판
- 아시아 건축 학교의 핸드북 편찬
- 잼보리 기간 내 ARCASIA 학생 디자인 공모전 정기 개최
- 현존하는 ARCASIA AWARD 내에 학술적 실무적 연구를 위한 새로운 카테고리 소개
- 인쇄물 없는 ACAE 회의(각 국의 리포트는 Matrix Format으로 제출)

ㅇ 중기 계획(5년)
- 협회 멤버들 간의 국가 간 인턴십 프로그램
- ARCASIA 회원국 학생들 간의 교류 강화를 위한 웹 사이트 개설

ㅇ 장기 계획(10년)
- "ARCASIA Architect" 인증 의회 개설
- 가상 건축 학교 개설

– ARCASIA e-Journal의 분기별 출판

8) 현 의장의 추천으로 다음 의장단(2012~2013)의 구성이 결정됨
의장: Dr. Chalay Kunawong(태국 ASA)
부의장: Dr. Kemas Ridwan Kurnawan(인도네시아 IAI)
총무: Dr. Walaiporn Nakapan(타일랜드 ASA)

이윤석 국제위원회 위원

3. 건축실무 위원회(ACPP, ARCASIA Committee on Professional Practice)

1) 일시: 2012년 10월 31일 09:00~15:00
2) 장소: The Mansion Resort, Ubud
3) 좌장: Ar Balbir Verma(IIA)
4) 참석자: So Ching(HKIA)/ Saifuddin Ahmed(PAM)/ Shinjiro Wachi(JIA)/ Swarup Koney(SONA)/ Bambang Barata(IAI)/ Dilip Chandra(IIA)/ Nitis Sthapitanonda(ASA)/ Senkham Phinith(ALACE)/ Jayantha Perera(SLIA)/ Hoang Huu Phe(VAA)/ Edric Marco Florentino(VAP)/ Chan Kok Way(SIA)/ Ishtiaque Zahir(IAB)/ Miguel Guerrero(UAP)/ Esa Mohamed(PAM)/ 이승석 국제위원 (KIRA)
5) 의제
가) 지난해 다낭에서 제안된 의제의 경과보고
– 컨트리 리포트 초안 검토
– 건축실무자의 업무상 처해지는 곤경에 관한 상황(인도)
나) CPD의 국가별 진행상황 및 앞으로의 발전방향
다) 인턴십/경력인정
라) 국가 간 상호 협업(Mobility of Architects and Practice in Host country)
6) 토의내용
가) 커미티의 각국 대표들이 서로 돌아가며 소개를 하는 것으로 회의를 시작하였다.
나) 컨트리 리포트의 초안을 검토하였으며 각국의 정보들을 조속한 시일 내에 취합하여 완성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보다 효율적인 과정을 위하여 UIA에서 취합한 자료와 중복되는 부분을 감안하고 그 데이터를 기준으로 추가되는 내용을 업데이트하기로 함.
다) 물론, 모든 업데이트 된 자료는 각국에서 재검토를 하여 최종 취합하는 것으로 한다.
라) UIA database와는 차별을 두고 작업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음. 아카시아만의 database를 갖도록 차별화된 노력을 하기로 함.

ACPP

마) IIA의 Dilip Chandra, 건축실무에서의 업무상 처해지는 곤경에 관한 내용을 발표하고 각국의 의견을 물음. 인도에서는 건축실무자의 책임 하에 이루어지는 행위가 때로는 형사고발의 상황에 놓일 수 있음을 부당하다고 이야기 하였으며 실제 현행법 조문에 실린 건축실무자의 업무내용, 그리고 그 가운데 형법에 영향을 받는 부분을 자료로 배포함. (아래 내용 참조)
The word "Supervision" is the most important professional commitment of an Architect in the profession. Fortunately or unfortunately an Architect majority of the projects/works are related with the shelter for human activities of different uses. Any mishap during execution or post construction, resulting death or bodily injury, drags him or her under criminal laws. In India we do have an Architects act wherein the various professional liabilities of an architects are mentioned under Architectural Practice vide No COA/DOC/04/2002/APR/12&13. (중략)
바) 이는 인도의 특이한 상황으로 대부분 국가에서는 건축실무자의 업무영역이 형사상의 책임까지 규정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의견을 보임.
사) CPD는 이제 건축사제도를 가지고 있는 모든 국가에서 꼭 필요한 절차가 되었음을 인식하고 있으며, CPD를 우선 진행하는 국가에서는 관련정보를 공유하여 후발 국가들이 유사한 제도를 만들어 시행하는데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고 의견을 모음.
아) CPD를 선 시행 하고 있는 국가들 또한 시행과정 중에 발견되는 문제점이나 혹은 교육 콘텐츠 가운데는 호응이 좋았던 사례들을 공유하여 회원국들이 CPD를 시행하는데 있어서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로 함.
자) 인턴십과 경력관리에 대한 회원국들 간의 상황을 파악하였으며 현재 건축사 자격 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회원국이 있는 등 국가별로 건축사의 지위와 등급이 표준화 되어있지 않는바 상호간 자격인정이 되기까지는 충 분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의견을 모음.
차) 각 회원국 간 상호 체결되는 MRA(Mutual Recognition Agreement)는 전문성과 실무에 대한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기준이 마련되어야 하며, 상호 혜택을 무엇보다 우선시 하는 원칙으로 규정을 작성하기로 함.
카) 사회, 문화적 관점에서 건축사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하며, 따라서 아시아에서 혹은 그 경계의 밖에서 만들어지는 모든 MRA는 그 의미가 중요하다. 아카시아 회원국들 상호간은 관련 업무를 진행함에 있어서 미래를 위한 기초를 다지는 작업이라고 인식을 하였으며, 무엇보다도 상호 이익을 추구한다는 큰 원칙을 공감하였음.
타) 이상의 현안을 다루기 위한 임시 커미티 회의를 대회 중간에 추가로 갖는 것에 대한 논의를 하였으며, 이것의 방법으로 화상통화 등의 여러 가지 의견을 개진함.

7) 결론

ACPP(건축실무위원회)의 주 의제는 각국의 실무현안을 다른 회원국들과 공유하고 확인하는 데에 있다. 이번 실무회의에서 거론된 인도의 경우는 대부분의 국가에서와는 달리 건축실무자의 업무와 책임한계를 형법에까지 미쳐 규제하는 과한 예를 보여주고 있다.

회원국 간의 교류를 위한 기본 작업으로의 건축사의 자격부여 및 CPD관리 등은 상호간의 제도와 수준이 일정한 기준 하에서 구축되어

있어야 하고 이러한 일치가 있어야 활발한 국가 간의 경계를 넘어서는 교류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타국과의 비교를 통하여 우리 건축 환경의 열악한 부분을 파악하고 개선방법 등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근래에 들어서 더욱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국가 간의 교류현장에서 이미 진행되었거나 진행 예정에 있는 MRA는 먼 미래를 내다볼 때 매우 중요한 작업이고 이번 실무위원회에 참가한 모든 회원국 대표들은 그 표준을 어떻게 마련하고 다져나갈 것인가에 대한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였다.

이번 대회의 주제중 하나인 Cross Border Practice의 질 높은 실천을 위해서, 회원 당사국은 그 내부의 건축사 제도에 대한 표준을 공유하며 발전시켜 나아갈 것이며, 그 기초가 되는 MRA 실무에 대하여 협력체계와 파트너십 증진, 상호이익의 증대라는 큰 원칙을 지켜나갈 것이며, 아시아의 표준을 넘어 세계의 표준으로 제도를 정착하기 위하여 회원국들 개개인이 노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하였다.

이승석 국제위원회 위원

4. 친환경 위원회(ACGSA, ARCASIA Committee of Green and Sustainable Architecture)

The mansion resort 회의실에서 개최된 친환경 위원회는 전성호 위원이 한국 대표로 참석하고 각국 대표 20여명이 참석하여 회의를 진행하였다. 회의 주관은 싱가포르 위원장 아쉬빈쿠마르가 주관하고 각국에서 친환경 관련내용을 발표하고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중요한 발표 자료는 파키스탄, 베트남, 일본, 한국이었고 발표내용은 모두 ARCASIA홈페이지에 링크하여 모두 공유하는 방식으로 의견을 모았다.

파키스탄 발표에서 강조한 것은 친환경 개념이 대중에게는 알려지지 않아 정부나 사회단체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여야 한다는 주제로 발표하였으나 실제적으로 어떻게 정책 수립하여 실행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아직 숙제로 남아 있다는 것이 현실로 받아들여졌다.

분명한 사실은 대부분의 개발도상 국가들이 경제 발전과 더불어 기본적인 에너지 부족, 주거환경 문제 등과 같은 많은 사회전반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기하급수적으로 발생하는 환경 문제에 대하여서는 어느 정도 해결책을 제시하고 실행하지 않으면 국가적인 문제 해결로 나서야 한다는 절박한 현황이 현실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사실을 거론하였다.

파키스탄의 친환경 개념 부재를 언급하였는데 아직도 reduce의 개념이 아닌 reuse와 recycling개념이 팽배해 있고 아직도 문맹에 의한 친환경개념 부족으로 전반적인 환경 재앙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각개인의 의식부족이 결여, 정부의 강력한 정책부재, 정부 주도의 시설에서도 친환경 개념이 아직도 제한적으로만 적용되고 있으며 관련 법제도 부재, 일반 개발 사업자의 무차별적인 개발 사업의 방식도 해결해야할 문제로 거론되었다. 이에 대한 방안으로는 일반 대중매체에 의한 홍보, 각 사회단체 및 공교육 기관에서의 유기적인 교육, 정부기관에 의한 개발 사업에 관련 인센티브 및 법규적용, 에너지 절약관련 법안 국회 통과 및 관련 법제도 정비, 정부 주도에 의한 시설 기준 강화 및 관련 기술 범용화, 시범 사업 확대 등을 제안하였다.

ACGSA

베트남 발표에서는 친환경 정책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일반 대중에게 친환경 개념이 확산될 수 있도록 하고, 친환경과 관련된 연구 등과 건축물 기준 등을 확립하여 건축설계, 도시계획, 건축시공, 건축자재, 관련 기술 등에 전반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하고 친환경에 관심 있는 분야에 교육 및 워크숍이 가능하게 한다.

친환경 관련된 컨설팅이 개인, 사회단체에 가능하게하고, 혁신적인 기술이나 디자인 솔루션을 제안한 개인과 단체에 대한 수훈이 가능하도록 한다 등을 제안하였다.

베트남 건축사 협회에서는 또한 다음과 같은 항목에 걸친 세미나를 매년 주관하였다.

지속 가능한 대지의 사용, 자원 에너지, 친환경 기술의사용, 높은 수준의 내부 공간 환경, 자연과 인간 환경의 상호 연관 관계, 국가 문화의 가치와 성격 등 베트남에서는 하노이와 호지민시를 중심으로 지역건축사 및 해외 전문회사와 연계하여 전반적으로 환경관련 디자인이 많이 적용되고 있음을 시사 하였다.

우리나라 발표에서는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탄소 배출 증가 국가 중의 하나임을 설명하였고 건축분야에서 지금은 낮지만 현재의 경제발전속도를 감안할 경우 결국 선진국 수준으로 도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이에 대한 대책으로 정부에서 정책을 준비하고 있음을 설명하였다. 신규 건축물의 경우 친환경 관련 법규가 점차 적용하여 향후 전반적인 건축물에 적용될 수 있도록 정책이 구상되고 있고 기존 건축물의 경우에도 과도한 에너지기 소비되지 않도록 개선할 수 있는 법제도 정비 구상 및 인센티브 적용 정책도 설명하였다. 이에 관련하여 친환경관련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기관으로서의 건축사협회의 역할에 대해 설명하였고 친환경 건축물과 관련하여 건축사의 중심적인 역할에 관련하여서도 언급하였다.

차후 친환경 건축물 관련 등급 업무 제도와 관련하여 ACRSIA회원들간의 공조 및 연계가능도 협의되었으면 바람이 있었다.

일본 발표의 경우 Ben Nakamura교수의 작품 발표가 있었는데 지역 초등학교 건축물 구조를 인근 지방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목재를 사용하여 디자인한 건축물에 대한 설명이 있었고 실제적으로 공사비를 현실적으로 적용하면서 친환경 건축물을 디자인 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다. 그리고 2050년까지 Global warming에 대비한 비전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

이에 대한 Action Plan으로는 친환경에 대한 연구 개발, 정책 개발 및 추진, 친환경 관련 전문 인력 양성, 관련 정보 및 교육의 대중화, 입체적이고 유기적인 연계, 국제적인 공조 등을 제안하였다. 궁극적으로는 새로운 건축물, 향후 기존 건축물 및 도시 계획 및 주변 경관 부분에서도 탄소 배출 제로를 지향하는 목표를 제안하였다.

인도 회원 중에서는 친환경 기술 및 기준이 국가 및 지역별로 환경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으므로 동일한 국제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하지만 친환경 기술이나 디자인 기법은 공유하여 참고 할수 있을 가능성에 의견이 있었고 특히 국가별 정책 등은 직접적인 참고 및 공조가 가능하므로 추후 이에 대한 의견 제시 및 방법에 관련하여서는 논의하기로 하였다.

회의를 끝내고 친환경 분과 위원회의 기능성을 살펴보면 친환경 정책과 관련하여 국가별로 중요하거나 심각한 상황으로 받아들이고 있으며 아직도 시작단계이므로 회원국가와 공조하여 친환경 전문인력 양성 및

법제조 공유 및 공조 등을 통하여 보다 미래지향적인 건축사의 업무 기회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하는 가능성을 생각해보았다.

전성호 국제위원회 위원

5. 사회책임 위원회(ACSR, ARCASIA Committee on Social Responsibility)

건축물유지관리 관련 법령내용(Legalization of Building Maintenance Act in Korea)에 관한 프레젠테이션을 했다.

6. 위원회위원장 회의(ARCASIA Inter committee meeting)

2012년 11월 1일 인도네시아 발리 우붓

참석자: 아부 자이드 작성 및 이사회 발표

건축교육위원회(ACAE) 위원장 아부 자이드(Ar. Abu Sayeed, SLIA) / 건축실무위원회(ACPP) 위원장 발비르 베르마(Ar. Balbir Verma, IIA) / 친환경 및 지속가능위원회(ACGSA) 위원장 아쉬빈쿠마르 칸티랄(Ar. Ashvinkumar Kantilal, SIA) / 사회책임위원회(ACSR) 위원장 죠셉 콴(Ar. Joseph Kwan, HKIA)

1. 각 위원회 활동 별 네 종류의 주제 (topic)를 대회/ 포럼 및 학생 잼버리에서 다룰 것이며 연사는 주최국에서 선정하고 주최국에서 정한 구체적인 주제(theme)에 적합하도록 한다.

2. 위원회 활동의 연속성과 업무수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각 회원국은 회의요원을 적어도 2년 연속 담당하도록 하여 그 분야에 제대로 기여할 것을 촉구하며 또한 대리 대표(alternate delegate)를 정하도록 한다.

3. 각 위원회는 대회 및 포럼의 중간에 회의를 한 번 정도 할 것을 권장한다.

조인숙 국제위원회 위원장

Ⅲ. 아시아건축사협의회 제33차 이사회 (Architects Regional Council of Asia, 33rd Council Meeting)

아시아건축사협의회(ARCASIA)의 제33회 이사회가 2012년 11월 1일부터 2일까지 양일간 인도네시아 발리의 Mansion Resort에서 개최되어 18개국의 공식대표가 아시아의 건축사에 관련된 현안과 미래에 대하여 토의하였으며 우리 협회에서는 공식 대표로 강성익 회장과 김성민 직전 국제위원장이 참석하고 조인숙 국제위원장이 배석함(학생 잼버리 강의로 이사회 전 일정 참석이 어려우므로 직전 위원장이 공식대표로 참석)

회원 단체는 한국(KIRA), 일본(JIA), 중국(ASC), 몽고(UMA), 홍콩(HKIA), 싱가폴(SIA), 마카오(AAM), 베트남(VAA), 태국(ASA), 말레이시아(PAM), 필리핀(UAP), 인도네시아(IAI), 인도(IIA), 파키스탄(IAP), 방글라데시(IAB), 스리랑카(SLIA), 네팔(SONA)과 이번에 처음 회원국으로 참가하게 된 라오스(ALACE)를 포함하여 18개국임.

아시아 이외지역으로는 UIA의 Louise Cox 직전 회장, 아프리카건축사연맹(AUA)의 Tokumbo Omisore 회장과 옵저버로 호주건축사회에서 참석함.

▶1일차(2012년 11월 1일)

1. 개회 선언

2. 이사회 안건 승인

3. 직전 이사회 회의록 승인

2011년에 베트남, 다낭에서 개최된 제32회 아시아건축사연맹이사회 회의록을 검토하고 승인함

4. 재무관 보고

재무관인 Junichi Ito가 모든 회원국이 회비를 납부한 것을 포함해서 재무내용을 보고하고 승인을 받음

2년 전에 필리핀건축사협회에서 회비를 송금했으나 방글라데시건축

ACSR

ARCASIA 이사회에서의 강성익 회장

Inter Committee

ARCASIA 이사회

사협회에서 수급하지 못한 사고를 재검토하고 송금시스템에 대하여 토의한 후 필리핀에서 재송금하기로 결정함.

5. 회장 보고

George Kunihiro 회장이 재임기간중의 활동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고, 특히 국제관계에 있어서 아프리카, 유럽 등과 지평을 넓힌 부분을 설명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음.

6. 부회장 보고

A, B, C의 3개 Zone 부회장이 차례로 재임기간의 활동에 대하여 보고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음(Zone-A의 Kalim A. Siddiqui 부회장, Zone-B의 Shatirut Nui Tandanand 부회장, Zone-C의 Anna Kwong 부회장)

7. 국가별 단체장 보고

18개국의 단체 대표가 차례로 각국의 현안과 계획 등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8. ARCASIA 프로젝트

- ARCASIA Exhibition : 2011년 UIA 도쿄 세계대회에서의 ARCASIA 전시관 설립에 대하여 회장이 보고하고 차기 UIA 더반 세계대회에서도 ARCASIA 저닛관을 운영하기로 승인함.

- Time Line Chart : 2006년에 발행된 Time Line Chart의 온라인 개정판에 대하여 교육위원장인 Abu Sayeed가 보고하여, 갱신 자료를 각 회원단체가 2012년 12월 31일까지 송부하고 2013년 1월말에 온라인으로 검토하도록 올리면 2월 15일까지 의견을 보내서 3월에 교육위원장이 개정된 버전을 온라인으로 게시 하도록 함.

- ARCASIA BOOK 배부 : Yolanda Reyes가 보고하고 이사회가 배송료를 지급하기로 승인함.

- ARCASIA Website 개정 : 이근창 고문이 보고하여 이미 개정이 되었음을 알리고 차기 회장단에서 추가 개정을 하도록 승인함.

- ARCASIA HQ Building : 부산에 계획되었던 아카시아센터의 추진 상황과 가능성에 대하여 김성민 위원이 설명함(하얄리아공원의 문화센터, 부산지회 사옥 등).

- ARCASIA Incorporation의 Director 변경 : 필리핀건축사협회의 Rozanno Rosal 회장, Yolanda Reyes, Edric Florentino의 3명을 이사로 선임함.

- ARCASIA Heritage 위원회 제안 : KIRA의 제안에 대한 설명을 김성민 위원이 하였고 논의 끝에 내용이 중첩되는 사회책임위원회에서 검토 후 다음 이사회에서 독립된 위원회 설립 여부를 결정하기로 함.

9. 회칙 개정

각 위원회에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임명하는 내용과 ARCASIA Incorporatopn의 이사에 관한 회직 개정안이 이사회에서 승인됨.

▶2일차(2012년 11월 2일)

10. ARCASIA 정보 배포

- ARCHITECTURE ASIA Magazine : 말레이시아건축사협회장(PAM)의 보고로 회원단체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하였고 이사회에서 PAM이 2년 더 AA Magazine과 AA Award를 관리하는 방안을 승인함

- ARCASIA Newslwtter : 회장이 보고하였고 App이나 QR-Code 등 다양한 홍보와 협조방안이 요구됨.

11. ARCASIA Awards

아카시아 건축상 및 전반적인 체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회장 당선자인 Tan Pei Ing이 방안을 마련하여 차기 이사회에서 보고하기로 함.

12. 신입 회원단체

캄보디아 대표가 부재중으로 차기 이사회에서 입회 여부를 심사하고 대만(Chinese Taipei)는 공식으로 입회 신청을 하지 않은 상태(중국 ASC 대표가 대만도 중국의 일부라는 의견 피력)이며 부탄도 부재중으로 차기 이사회에서 협의함.

13. Asian Congress of Architects (ACA) / Forum

제16회 ACA Forum (다낭, 베트남)에 대하여 VAA에서 보고함.

2013년의 차기 ACA-17 Forum의 개최지인 SONA(네팔) 회장이 등록비, 장소, 일정을 보고하고 토의함.(일정은 10월 6일-11일 예정)

2014년의 ARCASIA Congress의 개최지로 PAM에서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를 제시하였고 이사회에서 승인함.

2015년의 ACA-18의 개최지로 인도(IIA)에서 신청함.

14. 각 위원회 보고

교육위원회(ACAE)는 위원장인 Abu Sayeed가 보고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음 / 건축실무위원회(ACPP)는 위원장인 Balbir Verma가 보고하고 승인 받음 / 친환경위원회(ACGSA)는 위원장인 Ashvin Kumar Kantilal가 보고하고 승인 받음 / 사회책임위원회(ACSR)는 위원장인 Joseph Kwan가 보고하고 승인 받음 / 위원장들의 위원회인 Inter-Committee는 Abu Sayeed가 보고하고 승인을 받음 / ARCASIA Fellowship은 위원장인 Nela De Zoysark 보고하고 승인 받음.

15. 부회장 및 위원장 선출

Zone-A 부회장은 네팔(SONA)의 Swarup Koney, Zone-B 부회장은 필리핀(UAP)의 Edric Marco Florentino, Zone-C 부회장은 중국(ASC)의 Xu Zongwei가 비경쟁으로 선출됨.

교육위원회(ACAE)는 태국(ASA)의 Chalay Kunawong, 건축실무위원회(ACPP)는 방글라데시(IAB)의 Ishtiaque Zahir, 친환경위원회(ACGSA)는 싱가폴(SIA)의 Ashvin Kumar Kantilal, 사회책인위원회(ACSR)는 홍콩(HKIA)의 Joseph Kwan, Fellowship은 태국(ASA)의 Sathirut Nui Tandanand가 위원회의 추천을 받아서 선출됨.

16. 기타

신임 회장인 Tan Pei Ing에게 체인을 걸어주는 이취임식을 거행함.

신임 회장을 위해 후원 기업의 MOU 행사 진행함.

17. 이사회 결과 요약

제33회 이사회의 결과 및 회의록에 대하여 토의하고 승인함.

18. 폐회사

George Kunihiro 회장이 임원(Office Bearer)과 위원장들에게 감사의 표시로 감사장을 수여하고 인도네시아건축사협회의 환대에 감사의 말을 전함.

김성민 국제위원회 위원

Ⅳ. 국제건축사연맹 4지역 회의(UIA REGION IV MEETING)

국제건축사연맹 4지역회의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개최된 제15차 아시아건축사대회(ARCASIA Congress)의 2일차에 같은 장소인 Nusa Dua Convention Center의 회의실에서 2012년 10월 30일 오전 8:30에서 10:30사이에 진행됨.

4지역의 이사(Council) 이외의 회원단체 대표에게도 개방되어 회의 의장인 UIA 4지역 부회장 Esa Mohamed(말레이시아)를 포함하여 10개국을 대표하는 23명이 참석함.

특이한 점은 4지역에 포함되지만 아시아건축사연맹의 회원이 아닌 호주건축사협회에서 직전 UIA회장인 Louis Cox를 포함하여 4명이 참석함.

참석자 : Esa Mohamed (PAM, UIA 1st VP Region IV, Chairman) / Louise Cox (RAIA, UIA Immediate Past President) / Yolanda Reyes (UAP, UIA Council Member Region IV) / Balbir Verma

(IIA, UIA Council Member Region IV) / Vijay Garg (IIA, UIA Alternate Council Member Region IV) / Jong Ruhl Hahn (FIKA, UIA Council Member Region IV) / Sung Min Kim (FIKA, UIA Alternate Council Member Region IV) / George Kunihiro (JIA, ARCASIA President) / Tan Pei Ing (PAM, ARCASIA President-Elect) / Shatirut Nui Tandanand (ASA, ARCASIA Zone B VP) / Kalim A. Siddiqui (IAP, ARCASIA Zone A VP) / Taro Ashihara (JIA President) / Yoshihiko Sano (JIA) / Saifuddin Ahmad (PAM President) / Wang Xoaojing (ASC) / Rita Soh (SIA) / Debabrata Gosh (IIA) / Saad Sarfraz Ahmad (IAP) / Ron Edgar (RAIA) / Paul Berkemeier (RAIA) / David Parken (RAIA, Chairman Canberra Accord) / Marco Corbello (JIA, ARCASIA Hon. Secretary) / Junichi Ito (JIA, ARCASIA Hon. Treasurer)

1. 직전 회의록 승인

2012년 2월 3일에 필리핀 보라카이에서 개최된 4지역회의록을 승인함.

2. 직전 회의에서 발의된 내용 검토

1) UIA Work Program

ARCASIA에는 UIA의 Work Program과 대응되는 활동이 있으며 서로 중첩되지 않고 상호 보완되는 방향을 잡고 추진함.

2) Architecture for All

의장이 홍콩의 Joseph Kwan과 태국의 Shatirut Tandanand를 이 Work Program에 추천함.

3) Urban Settlements and Disaster Relief

인도의 Balbir Verma가 일본의 재해대책 가이드라인을 언급하고, 호주의 David Parken이 뉴질랜드의 사례를 발표하였으며 싱가폴의 Rita Soh가 재해 이후의 건물 사용에 대한 건축법의 적용에 대한 의견을 발표함.

4) International Competition

4지역에서 지속적으로 국제현상설계를 홍보하기로 결정함.

5) Responsible Architecture

이 주제의 정의에 대한 Rita Soh의 질문에 말레이시아의 Tan Pei Ing은 ARCASIA에서 다루는 Universal Design, Sustainable Design, Heritage Architecture를 포괄한다고 설명함.

Louis Cox는 Sustainability by Design Strategy(UIA) 연구에서 Alan Rogers가 잘 정리한 자료가 있으며 4지역에서 참여한 사람이 있고 정부차원의 정책이 수립되지 않은 국가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함.

필리핀의 Yolanda Reyes가 4지역은 4월에 마닐라에서 이 주제가 발의된 이래 첫 회의이고 강연자로 말레이시아의 Tan Loke Man과 Mathias Krub을 추천함.

UIA 4지역 회의

의장은 이 주제의 배경에 개발업자의 횡포에 대한 건축사의 노력이 요구된다고 피력함.

Balbir Verma는 해외 건축사가 자국에서 보다 해외에서 더 무책임해질 수 있다는 주장을 설명함.

6) Mobility of Architects

의장은 2012년 10월의 APEC Architect Central Council Meeting에서 외국의 APEC건축사가 자국의 APEC건축사와의 협업을 지지했다고 보고함.

Louis Cox는 협업이 실무적으로 유일한 방법이고 UIA Practice in Host Nation Policy가 최선의 방법이라고 주장함.

의장은 자국 법규의 투명성 문제가 있으며 ASEAN에서는 회원국이 협업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것에 동의했다고 발표함.

7) Durban 2014

의장은 2014년 대회 준비가 잘 진행되고 있으며 초청 예정인 강연자도 인상적이라고 보고하였으나 문제는 아프리카건축사연맹인 AUA가 UIA와 결합하여 대회를 개최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Strasbourg에서 열린 UIA Council Meeting에서 남아공건축사협회와 UIA간의 계약서를 자세히 검토하여 방안을 찾는데 동의함.

8) ARCASIA MOU's

ARCASIA가 UIA를 포함하여 여러 지역단체와 MOU를 맺었으며 UIA와 같이 진행하는 활동이 요구되고 지속적인 우호적 관계가 예상됨.

9) Education Validation

ARCASIA에 UIA의 ACAE에 대응하는 위원회가 있으며 UIA의 인증시스템은 아직 몇몇 국가에는 적당하지 않아서 개선이 요구되며 반면에 Canberra Accord는 이미 수립되어 운영 중임.

10) CPD

Fabian Llisteri가 준비한 UIA의 CPD 시스템을 채택할 필요가 있다고 논의하였고 Balbir Verma는 ARCASIA 회원국의 CPD에 대한 자료를 수집중이나 없는 국가나 수립중인 국가가 있어서 다음날의 ARCASIA APPC에서 논의 예정임.

호주의 David Parken은 호주건축사협회가 UIA에 많은 돈을 지불한 것에 비해 UIA CPD 시스템에 대한 결과가 적다고 효율성에 실망감을 표하고 호주는 온라인 CPD를 개발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발표함.

UIA는 우수한 CPD를 운영하는 회원국에 인증을 수여하고 있음.

3. Mission and Targets

- Mobility of Architect : 위원장은 국제적 실무에 대한 범세계적 시스템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David Parken이 호주와 뉴질랜드 간 건축사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하는 시스템에 대하여 설명, 양국의 정부간 협약에 의해 추진되었고 양국의 협회는 대학의 인증시스템을 통합하는데 협력하여 현재 호주-뉴질랜드 건축인증프로그램을 같이 사용함.

호주와 뉴질랜드는 유사한 문화와 교육체계를 가지고 있었으나 아카시아의 18개국은 다양한 배경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많을 것임.

Louise Cox는 UIA-UNESCO 교육인증시스템을 회원국이 승인했으므로 각국에 맞게 적용하는 기관을 정부와 협의하는 것이 회원단체의 의무임.

또 다른 가능성은 APEC 건축사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고 호주는 자국에 APEC건축사 등록절차를 수립하였으나 아직 전반적으로는 초기 단계임.

한종률 위원이 한중일은 상호인증에 대해 심도 있는 토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보고하고 Wang Xiaojing이 이를 확인함.

Balbir가 인도의 300개 넘는 건축대학의 표준화 및 인증의 어려움에

도 불구하고 인증을 추진하고 있다고 발표함.

– Guidelines for Local Collaboration : ASEAN에서의 국제적 협업은 태국이 주도하고 있으며 말레이시아도 초안을 마련하였으나 공식적으로 채택되지는 않은 상태이며, 외국 건축사가 수요국에서 프로젝트를 수행할 때 현지 건축사와 협업을 해야 하는 Practice in Host Nation의 정책에 대응하는 방안을 모색함.

– Professional Practice Internship Exchange : 일부 국가는 건축사 등록전의 실무수련제도가 없으나 UIA는 최소 2년, EU는 1년의 기간을 추천하고 있음.

한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호주, 필리핀은 대단히 잘 구성된 실무수련 시스템 수립함.

해외 실무수련에 대해서는 호주, 싱가포르, 말레이시아가 최대 1년이 가능하며 자국에서 최소한 1년의 실무수련이 의무적임.

Yoshihiko Sano는 2010년 UIA 세계대회의 조직위원회인 JOB를 Japan Supporting Board for International Relationship and Young Generation(JSB)로 전환하여 3명을 해외로 파견하였고 3명의 외국인을 일본으로 초청하여 업무와 경험을 교환하는 프로그램 진행하고 있음.

– 기타 : Balbir가 US Trade Department가 인도와의 협의기간에 AIA와 IIA간의 협의내용을 보고하며 아직 결과가 보고되지는 않았으나 인도에서 등록하지 않은 건축사의 업무는 불법으로 미국 건축사가 기소되어 진행 중인 사례가 있다고 발표함.

한종률 이사는 건축설계가 포함된 FTA 협정에 있어서 UIA나 ARCASIA가 협상의 중재자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제의함.

FTA의 협상에 참여하는 정부가 건축실무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협회의 지원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함.

David Parken이 Canberra Accord의 의장이 되었다고 발표하고 한국, 중국, 호주가 가입국이며 일본은 옵서버로 매년 회의를 개최하고 인증시스템의 경험을 공유하고자 하며 개방되어 있음을 알리고 UIA도 국제 건축 정책의 모체로 초청하고 있으며 UIA-UNESCO Education Charter를 활용하고 있다고 보고함.

김성민 UIA Region Ⅳ 대리이사 / 국제위원회 위원

Ⅴ. 학생 잼버리(ARCASIA STUDENT JAMBOREE 2012)

금번 학생잼버리대회는 2012 한국건축문화대상 수상자중 선발된 홍익대 최호근 학생과 예년에 없던 논문공모를 거쳐서 논문이 채택된 한양대학교 대학원 이성호 학생이 대표로 참가하였다. 2013년부터는 격년제로 짝수 해에 열리는 학생잼버리대회와 더불어 홀수 해에 학생설계경기가 개최될 예정이다.

올해는 주최국 건축사협회가 많이 관여하지 않고 개최지의 대학에서 잼버리 준비를 하여 교육위원회 회의 시 논란이 많았다. 대회장(Convener)은 우다야나 대학의 Prof. Dr. Dewi Jayanti였다.

아시아 건축사대회와 개최장소가 달라 초청강연에 학생들이 참석할 수 없어서 대회에 초청된 연사 중 4명이 사전에 공개강연에 초청 되었다. 이에 우리협회 조인숙 건축사의 "한옥설계의 여러 가지 시도들(Designing Hanok, the Korean Organic house : Contemporary Challenges)"이라는 제목의 강연으로 대회를 종료하고 잼버리대회 시상 및 폐회를 했다.

1. 개요

1) 개최일시 : '12. 10. 29(월) ~ 11. 1(목) (4일)

2) 개최장소 : 인도네시아 발리 Werdhapura Sanur and Udayana University Bali

3) 주　　제 : 각 지역에서의 국제적 논의 – 지속가능한 아시아 도시 및 건축 유산에 관한 문화적 접근(Global Challenges in local setting: cultural approach towards sustainable Asian cities and architectural heritage)

4) 참가자격

- ㅇ ARCASIA 회원국의 대학교 건축과 학생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
- ㅇ 적어도 2학년 이상이어야 함.
- ㅇ 모국 대학교로부터 추천서가 첨부되어야 함.
- ㅇ 참가자는 적어도 한 개의 학술 프레젠테이션을 제출하여야 하고 주제는 학생잼버리 테마와 유관하여야 함 .
- ㅇ 등록비 송금을 완료하여야 함.

2. 학생잼버리 일정 (12. 10. 29(월) ~ 11. 1(목))

- ㅇ 참가자 숙박장소 : Werdhapura-Sanur (총 5박/10.28 ~ 11.2)
- ㅇ 각 회원국 2인 공식학생대표 등록비 무료

Ⅵ. 건축답사(Excursion)

11월 2일(토) 건축답사는 발리의 역사마을 팡리푸란(Panglipuran)과 키타마니(Kitamani) 화산지대 및 탐팍 시링(Tampak siring) 사원에서 진행되었다.

1. 역사마을 팡리푸란(Panglipuran)

학생 잼버리 강연

건축답사 – 역사마을 팡리푸란

건축답사 – 티르타 엠풀

해발 700m 정도에 위치하므로 상대적으로 시원하여 주거환경이 쾌적한 곳으로 역사적으로 중요하게 여겨졌던 마을이다. 현재 거주자들은 연간 1.5M(인도네시아 통화) 정도씩 지원을 받아 허가를 받고 관광객을 상대로 공예품을 만들어 팔면서 거주하고 있다. 힌두 사원이 정신적 중심이며 신축현장의 목조 건물을 짓는 기본은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잘 가꾸어진 마을로 각 대문에 거주자가 몇 사람이고 남녀 비율은 어떻고 등의 문패가 흥미로웠다.

2. 키타마니(Kitamani) 화산지대

발리의 수도 덴파사르(Denpasar)에서 50Km 정도 떨어져 있고 도심에서 약 두 시간정도 걸리는 동북쪽 외곽의 고지대로 경관이 수려한 곳이다. 폭발한 화산 바투르 산과 호수가 있고 이 일대는 해변보다 온도가 15도 정도 낮아서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곳이다. 신임회장 탄 페이 잉(Ms. Tan Pei Ing, PAM)은 말레이시아 동료들과 회의 전 바투르 산을 등산했다고 자랑했다.

키타마니 가기 전 커피 농장을 잠시 지나면서 커피 프로세스의 과정을 답사했다.

3. 탐팍 시링(Tampak Siring)과 물의 사원 티르타 엠풀(Tirta Empul/ Holy Spring Water Temple)

덴파사르에서 약 40Km정도 덜어진 역사마을 탐팍 시링의 티르타 엠풀 힌두 사원(탐팍 시링 사원이라고도 부른다)은 발리인들이 몸을 씻어 정화하기 위해 찾는 성수(Holy Spring)의 사원이라고도 칭한다. 10세기 경 지어졌고 사원 서쪽에는 인도네시아 최초의 대통령인 수카르노 대통령의 궁이 있는데 지금은 게스트하우스로 사용한다. 인도네시아는 농업국가로서 물이란 대지의 선물이라고 여겨 성스럽게 취급되며 인도네시아 자연 관개(灌漑, irrigation)시스템의 아름다운 경작지가 10년의 노력 끝에 2012년 유네스코 세계유산 목록에 등재되었다. 이 성수도 그 일부이다.

조인숙 국제위원회 위원장

Ⅶ. 기타 (Miscellaneous)

1. ARCASIA 건축상 전시 및 자재전시

사전에 제출된 A0 크기의 도면들이 패널로 재작되어 병풍처럼 홀에 전시되었고 공간의 이상림 건축사의 작품 및 다리건축의 조인숙 건축사의 작품이 전시 되었다.

자재전시도 누사두아 컨벤션 센터 동쪽 홀 및 남쪽 홀에서 열렸다.

2. 대회장소 및 숙소 등

아시아 건축사대회는 누사두아 컨벤션센터(BNDCC-Nusa Dua)에서 진행되고 대표단 공식호텔은 사누르의 파라다이스 호텔(Sanur Paradise Hotel Sanur), 초청연사 숙소는 주최 측과 함께 누사두아의 산티카 실리기타 호텔(Santika Siligita Hotel, Nusa Dua), 그리고 각종 회의는 우붓 (Ubud)에서 진행되었다. 학생 잼버리 대회는 우다야나 대학, 숙소는 사누르의 베르다푸라(Werdhapura, Sanur)였다. 게다가 우정의 밤 행사는 누사두아 반도 남쪽의 석양이 아름답다는 바닷가 짐바란(jimbaran)에서 했다. 이동시간이 너무 많고 참가자들이 목적에 따라 흩어져 있어서 약간의 어려움이 있었으나 주최 측에서 많은 것을 소개하려는 노력이었다고 간주되었다.

우리협회는 사무국 국제협력 담당자의 동행으로 위원들이 회의에 전념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가 있었다.

3. 우정의 밤 및 각종 공연

11월 1일 저녁 누사두아 반도 남쪽의 석양이 아름답다는 바닷가 짐바란(jimbaran)에서 우정의 밤(Friendship night)엔 차기 회장을 맡은 타 페잉을 응원하러 온 말레이시아 대표단의 준비된 무용 등이 괄목할만했고 건축사들 28명에 학생대표 22명 합계 50명이 참가한 파키스탄이 또한 준비된 장기를 보여주었다. 한국은 강성익 회장의 하모니카 연주에 이어서 강남스타일의 원조국으로 소개받고 사이의 강남스타일을 선보였다. 주최 측에서 무희들과 밴드를 공급해주어서 흥겨운 자리가 되었다. 무엇보다도 밴드에서 리듬기타나 드럼 등 악기를 다루거나 노래를 아주 잘하는 단체장들이 많아서 놀랐다.

11월 2일 우붓의 맨션호텔 발리우드 (Bali Wood at the Mansion, Ubud)의 공식 폐회식 공연은 케착 댄스(Kecak Dance)라고 부르는 발리 전통 불의 춤(Balinese fire dance)이었다. 이 춤의 원래 Grand finale는 원주민 무희들이 불 속으로 뛰어드는 것인데 관광용으로 만들어서인지 마지막에 우붓 맨션호텔의 풀(pool)인 물로 뛰어드는 동작과 함께 폭죽이 터지며 대미를 장식했다.

조인숙 국제위원회 위원장

ARCASIA 작품전시

폐회식 공연 – 불의 춤

2012 ARCASIA 학생잼버리대회 참가 보고서

ARCASIA Bali 2012 Student Jamboree

이성호 | 한양대학교 대학원 건축학과 석사

지난 2012년 10월 28일(출발시간 기준) 부터 11월 2일(도착시간 기준)까지 4박6일의 일정으로 ARCASIA Bali 2012 Student Jamboree에 참여하였다. 대한건축사협회의 지원으로 학생대표 자격으로 참여하였으며, 일정에 포함되어 있는 "The 2nd International Conference on Sustainable Technology Development(이후 ICSTD)"의 발표를 주요 목적으로 참가하였다. Jamboree는 아시아 각국의 많은 젊은 건축학도들을 한 자리에서 만나고 교류하는 매우 뜻 깊은 행사로, 아시아권에 속하는 한국, 일본, 홍콩, 몽고,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인도, 네팔, 파키스탄 등 모두 15개국의 52개 대학, 150명의 학생들이 참가하였다. 각국의 학생 참가자들은 Sanur 해변에 위치한 Werdhapura 호텔을 중심으로 매일의 바쁜 일정에 참여하였다.

행사 첫 날인 10월 29일, 오전 Bali Nusa Dua Convention Center에서 개막식이 개최되었다. 아시아 각국의 ARCASIA 위원들과 학생대표들이 함께 참여하여 대형 컨퍼런스 홀의 좌석이 부족할 정도로 큰 행사였다. 행사에는 죠지 쿠니히로(George 國廣) ARCASIA 회장의 기조연설 및 마키 후미히코(槇文彦)의 강연이 있었다. 이날 행사는 각국 위원들의 작품패널 전시와 행사후원사들의 판촉 매장도 함께 마련되어 장 내외로 큰 성황을 이루었다.

개회식 이후 Werdhapura호텔 강당에서는 Student Jamboree 공식 브리핑이 있었다. 인도네시아 전통공연으로 시작하여 Dewi Jayanti을 비롯한 ARCASIS 관계자들의 인사말과 Student Jamboree 참석자를 인솔할 각 그룹 리더들의 소개가 있었다.

죠지 쿠니히로 ARCASIA 회장(中)과 한국 및 일본 학생대표

조인숙 건축사(中)와 한국 학생대표(左-최호근, 右-이성호)

마키(左)의 강연

행사장 안 전경

개회식을 알리는 인도네시아 전통공연

Student Jamboree 개회사, 대회장 Jayanti 박사(中)

이후 말레이시아 출신 Kevin Mark Low의 열정적인 공개강의를 수강하였다. 미국에서 학사와 건축학 석사를 졸업하고 예술사를 부전공으로 하였다고 한다. 그래서 그의 강연 초반에 주로 건축의 형태 디자인 원론을 주제로 한 부분이 인상적이었고 중후반에 건축 내외장에 대한 작품소개 등이 한 시간이상 이어졌다. 단순히 모방에 의한 재창조와 유행에 순응하기만 하는 풍조에서 벗어나, 다소 진부할 수도 있겠으나 형태에 대한 깊은 고찰이 현대의 건축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었다.

다음날인 10월 30일에는 공식 행사일정에 따라 학생 스케치 경쟁대회가 있었다. 스케치 대상은 인도네시아 전통가옥과 탑을 수직으로 갈라놓은 듯한 정문인 챤디분타(Candi Bentar)였다. 스케치는 그룹별로 주제가 달랐는데 필자가 속한 그룹에서는 챤디분타의 정면을 스케치하였다. 챤디분타는 세속과 신성한 곳을 나누는 종교적 의미가 내포된 대문으로 인도네시아에서는 사원뿐만 아니라 호텔이나 식당 등의 대문에도 사용되고 있어 발리 어디서든 볼 수 있다. 스케치 시간은 대기시간이 길어져 당초 예정이었던 1시간 30분에서 1시간으로 단축되어 진행되었으며, 연필로 스케치를 한 후, 잉킹하는 작업까지 모두 한 시간 안에 해내야 했다. 필자는 학부 때 이후 평소 스케치할 일이 거의 없었는데다 낯설고 복잡한 이국의 석조구조물을 그려내는 일이 쉽지는 않았다. 반면 동남아시아 친구들은 모두 일관된 방법론을 토대로 능숙하게 그려내는 것처럼 보였는데, 편의에 의한 컴퓨터 디자인도 중요하겠지만 건축스케치 교육의 필요성을 새삼 실감하였다. 또 스케치를 하는 동안 비례와 장식 하나하나까지 면밀히 관찰할 수 있어 유익하였다. 스케치 대회 이후, 그늘에 앉아 휴식시간을 겸한 건축퀴즈 시간이 있었다.

이날 오후에는 Kubu라는 발리 전통 대나무 정자를 건축하는 실습을 하였다. 친환경건축에 대한 이해를 새롭게 하자는 취지였다. 각 그룹별로 부재를 구분하여 조립하였는데, 내가 만들었던 것은 코코넛 잎을 수작업으로 엮어 만든 천연 파티션인 켈랑사(Klangsah)였다. 크고 질긴 잎을 X자 형태로 직교하여 엮는 작업이었는데 처음 한 것 치고는 비교적 쉽게 만들 수 있었다. 이후 각 그룹별로 완성된 부재를 조립하여 그럴듯한 두 채의 정자를 완성할 수 있었다.

행사 3일째 및 4일째인 10월 31일과 11월1일에는 제2회 ICSTD(International Conference on Sustainable Technology Development) 개막식과 강연이 이어졌다. 3일째에는 발리 덴파사르 시내에 위치한 우다야나(Udayana) 대학에서 공식 일정이 있었다. 호텔에서 대학까지는 버스를 타고 이동하였는데, 덴파사르 시내 각 지역의 설명을 간단히 들을 수 있었다. 전통 시장골목

스케치대회 대상인 챤디분타(Candi Bentar)

건축퀴즈 시간

켈랑사 엮기 실습

완성단계인 Kubu

우다야나 대학 이정표

우다야나 대학 도서관 전경

과 박물관 등 몇몇 건축물들이 눈에 띄었다. 시내는 어디든 동일한 입면과 지붕의 저층 건물이 가득하였다. 마감재도 동일하여 적색 흑벽돌과 화강석, 그리고 황색 기와로 되어 있었다. 관공서, 기업, 가옥, 상가 등 대부분이 동일한 패턴이었다. 덴파사르시 전체의 건축이 일괄적으로 철저히 통제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가로변에는 몇 십 미터 단위로 힌두 사묘가 있으며 건축에도 전통장식부재가 다수 활용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전통에 대한 확고한 의지와 적극적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부럽기도 하였으나, 한편으로 지나친 규제로 획일적이고 인위적인 도시라는 측면에서 아쉽기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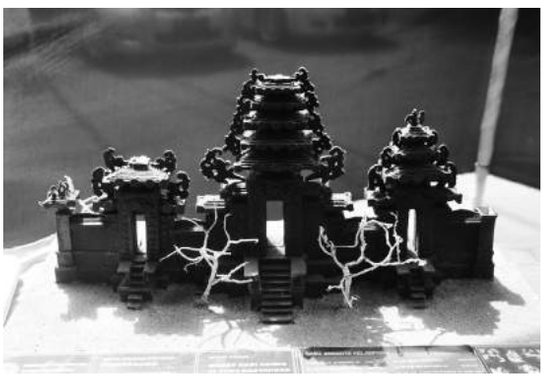
우다야나 대학은 기대보다 규모가 작았다. 현지에서 만난 친구들과 캠퍼스를 돌아보았는데 20분이 걸리지 않았다. 캠퍼스에 있는 건축물도 대부분 전통적인 외관을 갖추고 있었는데 구조는 콘크리트이고 외장에서만 전통을 살린 것들이었다.

한편 ICSTD 개회식은 강당에서 진행되었는데 각국의 위원들도 모두 자리한데다 먼저 도착한 학생들까지 가미하여 들어갈 수 없을 정도였다. 나는 일본과 홍콩, 인도네시아 학생들과 함께 행사장 인근에 마련된 우다야나 대학 건축학과 전시장을 돌아보았다. 전통건축물 스케치, 모델, 패널 등이 전시되어 있었는데 수준은 높지 않았다. 다만 재미있었던 점은 곤충과 동물의 형상을 모방하여 디자인한 모형들이었다. 자연을 쉽게 접할 수 있는 환경에서 건축에 대한 색다른 생각을 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또 발리의 건축학도들은 전통이 삶 속에 녹아 있는 것 같았다. 건축과 전통을 별개로 생각해야 하고 심오한 고민 없이 전통을 인식할 수 없는 우리나라의 경우와는 대조적이라 생각되었다.

전시장을 관람하고 우리 일행은 인근의 발리 박물관을 방문하였다. 발리 박물관은 외관상으로는 상당히 오래된 유적이라 생각하였으나 실제로는 1945년경 건축된 것이다. 구조체는 모두 콘크리트이고 외장을 현무암으로 추정되는 흑색 석재로 마감하였는데, 기괴할 정도로 많은 장식으로 건물 전체가 하나의 예술 작품 같았다. 건축은 고저 차와 함께 몇 단계의 문이 있고 각 단계별 정원과 회랑이 있었다.

박물관 내부는 우리나라의 탑파 건축과 유사하였다. 다만 사천주 대신 크고 육중한 8개의 기둥이 있고 심주 자리에는 계단을 두어 상층부 전망대까지 오를 수 있도록 되어 있었다. 기둥은 전망대 천장에서 모여 상부 구조물을 지탱하고 있었다. 전망대에서는 덴파사르 시내 각 방향이 한눈에 들어오는데, 간혹 보이는 성당과 철탑을 제외하고 고층 건축물의 거의 없으며 시내 전체가 산지가 없는 평야였다. 한편, 박물관 내부의 전시는 매우 조악한 수준으

자연을 모티브로 한 건축 작품사례



전통 건축물 모델

발리 박물관 입구 전경

발리 박물관 내부 전경

전망대에서 바라본 시내풍경

전망대 천장과 기둥

로 몇몇 디오라마와 신문기사 등으로 발리의 역사를 전시하고 있었다.

오후에는 우다야나 대학에서 ICSTD일정에 합류할 수 있었다. 나는 Room1의 강연을 들었는데 발표수준은 크게 높지 않았다. 이날 발표는 주로 인도네시아 학생들이 많았고 주제는 전통가옥의 신축 및 개축 등이 주를 이루었다. 이날 발표들을 들으면서 다시 한 번 발리 건축학도들의 전통에 대한 인식을 엿볼 수 있었다.

행사 4일째인 11월 1일 새벽에는 호텔 인근의 해변청소와 mangrove 나무심기 행사가 있었다. 일찍 기상한 덕분에 일출도 볼 수 있었다. 다만 구름이 많아 아름다운 풍광은 볼 수 없었으나 만족스러웠다. mangrove 나무에는 심은 자의 이름을 써넣은 꼬리표도 달았는데 이후 다시 방문할 때 큰 기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오전에는 호텔에서 ICSTD 발표가 있었다. 필자는 "역사도시 연구를 위한 역사지형 복원"을 주제로 백제 사비도성이 있던 부여의 역사적 지형고증의 필요성과 고도(古都)의 재해석에 대해 발표하였다. 인도네시아 학생들은 매우 심오한 연구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아 감사하였다. 이날에는 일본과 홍콩 등 비 인도네시아 학생들의 발표가 있었고 각국의 건축적 이슈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날 오후에는 호텔 강당에서 공개강연이 있었다. 일본 교토의 마치야를 주제로 한 유미 코리(Yumi Kori)와 한국의 전통가옥을 주제로 한 조인숙 건축사의 강연이었다. 코리는 교토의 마치야에서 건축 입면에 활용된 여러 기능적 요소를 스크린의 개념으로 두고 현대적으로 해석 · 활용하였다. 조인숙 건축사는 한국의 궁궐과 한옥의 미와 함께 실제로 수행한 다섯개의 한옥설계를 소개하였다. 외국에서 접하는 한옥은 참으로 신선하고 포근했다.

이날 저녁에는 우정의 밤이 있었다. 그러나 전체적인 일정이 늦어지면서 늦게 호텔을 나온 데다가 시내의 교통체증으로 뒤늦게 레스토랑에 도착하였다. 나는 당초 일정에 의해 레스토랑에 도착하자마자 귀국 항공기 시간에 쫓기어 공항으로 달려왔다. 며칠 동안 이국에서 만났던 여러 나라의 친구들과 작별인사도 나누지 못하여 아쉬움이 남았다.

Student Jamboree에 처음 참여하였다. 처음으로 많은 민족을 한자리에서 만났으며, 처음으로 많은 언어를 한자리에서 들었다. 처음으로 많은 영어를 써보았다. 그러나 짧은 기간 동안 각국의 친구들과 많은 정을 나눴고 앞으로도 계속 교류할 생각이다. 이제야 비로써 글로벌 시대임이 실감난다. 매우 뜻 깊은 행사에 참여할 수 있게 한 대한건축사협회에 감사드리는 바이다.

ICSTD 발표장 전경

ICSTD 발표장면

조인숙 건축사의 한옥설계

협회소식

제11회 이사회

2012년도 제11회 이사회가 지난 11월 14일 오후 2시에 우리 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이사회에서는 협의사항으로 정관개정의 건, 공공발주 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적용에 관한 문서 발송의 건, 홍보사업비 집행의 건, 회관 임대수입 기준 조정의 건, 중요기록 생산 및 보존에 관한 규정 제정의 건이 논의됐으며, 부의안건으로 제47회 정기총회 일자 및 장소 결정의 건, 경기건축사회 제명회원 미납회비 결손 처분의 건, 예비비 사용 승인의 건이 논의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협의사항

• 제1호 : 정관개정의 건
– 오늘 논의된 사항을 참고하여 기획위원회에서 재검토 후 차기 이사회에 부의안건으로 상정하기로 함.
▷ 법인협의회 등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근거 마련
▷ 회장 선출방법 및 예상 소요비용 등에 관한 참고자료 필요
• 제2호 : 공공발주 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적용에 관한 문서 발송의 건
– 11월중 시.도건축사회 회장들과 협의하여 시행하기로 하되, 수신처와 공문의 내용은 구체적인 사례와 논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수정 · 보완 하기로 함.
• 제3호 : 홍보사업비 집행의 건
– 원안대로 집행하기로 함.
• 제4호 : 회관 임대수입 기준 조정의 건
– 회관 임대수입 기준을 아래와 같이 조정하기로 함.
▷ 대강당 등 회의실 사용료는 원안대로 조정하되, 학술 및 연구단체 행사에 대해서는 비수익사업에 한해 예외기준을 적용
▷ 정부위탁업무의 관리운영비는 원안대로 책정
▷ 예식시설 사용료는 계약기간까지 현행대로 유지
· 제5호 : 중요기록 생산 및 보존에 관한 규정 제정의 건
–차기 이사회에 부의안건으로 상정하기로 함.

▲부의안건

• 제1호의안 : 제47회 정기총회 일자 및 장소 결정의 건
– 제47회 정기총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기로 함.
▷ 일 시 : 2013년 2월 27일(수) 10시
▷ 장 소 : 대한건축사협회 대강당 1층
• 제2호의안 : 경기건축사회 제명회원 미납회비 결손 처분의 건
–원안대로 승인함.
• 제3호의안 : 예비비 사용 승인의 건
–원안대로 승인함.

위원회 개최 현황

■ 제4회 전통건축 TF

제4회 전통건축 TF 회의가 지난 10월 9일 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협의사항

• 제1호 : 한옥관련 책자 발간의 건
– 한옥관련 책자와 관련하여 전통건축 TF팀에서 논의된 사항을 제10회 이사회에 상정하여 협의할 수 있도록 함.
• 제2호 : 세미나 개최의 건
– 제7회 한국건축산업대전(KAFF 2012)

일자	시간	발표자	주제
10.24	14:30 ~15:30	문화재청 문화재위원 박강철	둥지의 철학 (한옥)
10.25	10:00 ~11:00	(주)삼진 건축사사무소 이봉수	한옥평면 구성과 다락구성

– 2012 대한민국 건축사대회
▷ 서울과 광주 건축사회에서 한옥 Tour와 관련하여 인솔자가 필요할 경우 장진영 건축사에게 요청하면 전통건축 TF팀에서 지원하기로 함.

▲기타사항

다음회의는 11월 13일(화요일) 14시에 개최하기로 함.

■ **제2회 BIM TF**

제2회 BIM TF 회의가 지난 10월11일 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협의사항

• 제1호 : BIM기반 건축설계의 건

– BIM의 현황 및 문제점

▷ BIM운영과 관련하여 개량화된 데이터가 있으면 보완하여 건축사사무소에 전파하면 BIM적용이 수월하나 데이터 수집이 어려움.

▷ 3D모델링 하듯 BIM설계를 하고 있어 2중 작업을 하는 현실임.

– BIM의 지향점

▷ BIM도입은 마찰없는 연착륙이 되어야 함.

▷ BIM은 건축사협회에서 주도적으로 진행하여야 함.

▷ BIM데이터를 콘텐츠화하여 라이브러리를 통한 수익창출 방안 모색이 필요함.

–BIM의 도입

▷ BIM적용 설계에서 설계초기에 업무량 증가는 지양해야 함.

▷ 2D작도 이후 BIM모델링하고 feedback하는 현재의 상황이 고착화 되면 안됨.

▷ BIM의 큰 체계가 아닌 실질적으로 현재 적용할 수 있는 작은것, 실질적인것부터 활용하고 이와 관련한 건축사의 교육이 필요함.

• 제2호 : 한글 폰트 저작권의 건

– 한글 폰트 저작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결 함.

① 무료서체를 다운 받을 수 있는 사이트를 협회 홈페이지에 링크하기로 함.

② 기존 서체 중 선택하여 협회에서 서체를 구입 배포하는 방안과 함께 (가칭)건축사협회체 개발 검토를 정책위원회에 건의하기로 함.

■ **제10회 법제위원회**

제10회 법제위원회 회의가 지난 10월11일 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협의사항

• 제1호 :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 지침(안)의 건

–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 신청 프로세스 및 시도의 업무분장 체계 등을 파악하여 사무처가 건의 초안을 마련하면 위원장이 검토하여 소방방재청 및 국건위에 제도개선을 건의하는 것이 필요함.

• 제2호 : 건축사징계위원회 명칭 및 구성원 개선의 건

– 건축사징계위원회 명칭 및 구성원 개선에 대해 논의함.

• 제3호 : 건축사 징계 양정기준(안)의 건

– '징계'라는 명칭문제는 국가전문자격자의 역할이 공적요인이 있어 공무원에 준하는 명칭으로 사용되며 타 국가전문자격법에서도 같은 명칭으로 명시하고 있음. 징계의 양정기준은 명확하지 않아 발생하는 것이므로 이런 내용을 위원장이 문안을 작성하여 시도회장협의회에 송부하고, 협회 임원, 위원, 시도회장 몇 명과의 간담회를 통해 양정기준(안)을 마련하고 국토부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승인받는 것이 필요함.

■ **제7회 건축위원회**

제7회 건축위원회 회의가 지난 10월17일 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협의사항

• 제1호 : 용역발주 제도개선의 건

– 회의에 참석한 모든 위원들이 회의자료 〈붙임1~6〉 이외의 사례를 15일 이내에 대한건축사협회 사무처로 송부하기로 함, 취합된 자료를 다음 회의 전에 열람을 통하여 공유하기로 함

– (목표) 이번 건축위원회를 통해 결론을 현 사안에 대해 실행가능한 것은 결론 내리는 것이 아닌, 유형별 문제점을 도출하는 것임, 그 다음 대응 방안을 도출 할 것임

– (제도모순) 교육청 발주 시 기본계획은 (사)한국교육시설학회, (사)한국교육환경연구원 등에게 발주 한 후 작성된 기본계획안을 근거로 기타설계를 발주하는데 이는 제도의 모순임, 이에 대한 보충자료에 대해선 문석준 위원이 추가 자료를 보충하기로 함

– (분리발주) 공공발주 시 전기 · 설비 · 구조 · 소방분야의 분리발주와 전력기술관리법, 건축법의 분리 발주 진행에 대한 문제점이 나타난 사례를 문석준 위원이 추가 자료를 준비하기로 함

– (업무구분) 용역발주 시 건축설계용역의 실시설계는 명목상 실시설계 일뿐 과업지시서 및 특별과업지시서와 같은 용역지침 내용에는 기본설계를 포함하는 불공정한 사례가 부지기수임

– (설계업무대가) 건축법 제11조(설계업무대가의 산정)의 제⑤항 「건축허가를 득한 건축물의 설계를 변경」 표현으로 인해 건축허가 이전의 설계변경은 설계변경 대가를 지불해야한다는 의식이 없음, 수정이 필요함

– (저작권) 저작권 관련 제반사항을 건축사가 아닌 용역 발주처에 모두 귀속되게 하는 경우가 태반임, 심지어 입상작까지도 저가의 상금을 빌미로 모든 저작권을 발주처에 귀속함, 저작권은 설계자에게 귀속되어야 함

▫용역발주관련 협회 건의 자료

〈붙임 1〉 교육청 발주 설계 및 공사감리에 대한 건의. 1부.(2006년 11월)

〈붙임 2〉 용산기지이전사업 건축설계비 조정 건의. 1부.(2011년 10월)

〈붙임 3〉 한국농어촌공사 건축설계용역 개선 건의. 1부.(2011년 10월)

□ 문석준위원 제공 자료

〈붙임 4〉 공고문(서귀포자연휴양림 시설사업 건축공사). 1부.

〈붙임 5〉 과업지시서(서귀포자연휴양림 시설사업 건축공사). 1부.

〈붙임 6〉 건축설계경기 지침서(제주복합체육관 신축공사). 1부.

• 제2호 : '건축설계시장의 현황 진단을 통한 개선방안 연구' 과업지시서 검토의 건

– (과업지시서 내용추가) 연구용역 과업지시서 내용 중 「2.과업의 세부내용, 라.공공과 민간의 설계대가산정방법과 운용현황 및 문제점 분석」에 대가요율 기준인 단순、보통、복잡을 통합 검토하는 내용 추가하기로 함

– (연구용역 관리감독) 연구용역 관리감독자로 김한진 건축위원회 위원장을 자문위원으로 추천함

• 제3호 : 기타의 건

– 공사 안내판 설계자 기재 누락 시정 사례

▷ 공사 안내판 설계자 기재 누락 시정 사례를「건축문화신문」에 기재할 수 있도록 신문편집위원회에 요청키로 함

▷ 다음 회의는 11월 21일(수요일) 오후 15시에 개최키로 함.

■ 제11회 리모델링 TF

제11회 리모델링 TF 회의가 지난 10월24일 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협의사항

• 제1호 : 제7회 한국건축산업대전 리모델링 주제발표의 건

– 한국건축산업대전 리모델링 주제발표 준비

– 건축사 실무교육 리모델링 주제발표

▷제　목 : 리모델링의 현황 및 발전방향

▷발 표 자 : 서태근 위원, 박세희 위원

▷목　차

Ⅰ. 리모델링 개요

Ⅱ. 일반건축물 리모델링

Ⅲ. 공동주택 리모델링

Ⅳ. 리모델링 전망

▷주요내용

□ 리모델링은 삶의 질 개선과 도시경쟁력 제고, 침체된 건설산업 활성화, 저탄소 녹색성장에 부합하는 미래 유망 건설산업 임.

□ 현실성있는 지속적인 제도 개선 및 리모델링 인식 재정립 등의 방안으로 리모델링을 활성화해야 함.

■ 제6회 기획위원회

제6회 기획위원회 회의가 지난 10월 9일 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협의사항

• 제1호 : 협회 조직 및 경영진단 최종보고서(안) 검토의 건

– 용역업체(한국생산성본부)로부터 '12. 9.28 제출된 최종보고서(안)를 검토한바, 용역중간보고회 및 최종보고회에서 지적한 내용중 일부가 누락되어 있어 "아래"와 같이 수정 · 보완하여 다시 제출하도록 요구하기로 하고, 이를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함.

" 아　　래 "

1. 용역중간보고회('12.8.22) 및 최종보고회('12.9.25)에서 지적된 내용을 정리하고 용역업체(한국생산성본부)에 공문 발송하여 보완 하게한 후 최종 검수키로 함.

2. 용역검수

가. 소위원회 구성

– 위원장 : 홍사원, 위 원 : 박운천, 윤재화

나. 향후추진계획

– 세부보완요구 내용작성 : '12. 10. 13 까지.

– 용역업체 공문전달 : 내주 초 (회장 결재 후 발송)

다. 최종보고서 접수.

– 일정 : 용역업체의 수정계획서 제출 후 결정.

■ 제1회 기획소위원회

제1회 기획소위원회 회의가 지난 10월12일 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협의사항

• 제1호 : 협회 조직 및 경영진단 최종보고서 검토의 건

– 중간보고회 및 최종보고회에서 지적한 내용과 용역업체(한국생산성본부)로부터 제출된 용역수행결과물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총론, 협회시스템, 사업, 조직으로 분류하고 붙임과 같이 검토의견서를 작성함에 따라, 이를, 용역업체에 공문으로 전달하여 최종성과물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함.

〈협회 조직 및 경영진단 보고서 검토의견〉

분 야	검 토 의 견	비 고
분 야	1. 보고서의 형식을 갖출 것 – 번호체계 정리(양식통일) – 글자체, 크기등을 위계에 따라 정리 2. 편집오류 수정(p.157~p159) 3. 요약 페이지(3장 정도) 작성하여 앞부분에 수록 4. 협회의 검토의견 반영여부 및 미반영 사유를 별도로 작성하여 전달할 것	제안요청서 6. 기타사항 보고서의 작성시 순서, 편집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인쇄전에 협회와 사전협의 후 시행하여야 함.
총 론	1. 회원을 위한 협회에 초점을 두어 분석을 하여야 하며, 주요쟁점 현안발생시(예:설계 · 감리분리, 구조기술사문제등)대처방법의 적정성 등에 대한 진단의견 제시 2. 협회내 리스크(부정적요인)분석내용과, 장기비전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시 3. 협회예산(회비수입, 기금운용등) 운용의 적정성 검토	
시스템	1. 협회전산시스템 운용실태 진단 후 개선점 제시 2. 회장 및 상근부회장의 업무분석을 통하여, 전문경영CEO 도입여부 등을 포함한 협회조직의 효율적 운영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 후 의견을 제시 3. 이사회 및 위원회의 운영에 대한 평가 및 유사단체 운영사례 비교	
사 업	1. 협회추진사업(건축문화신문, 건축사지, 건축산업대전, 건축사대회, UIA총회, 건축영화제)에 대한 지속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손 · 익에 대한 분석 자료를 서술형 보다 계량화하여 제시 2. 협회 홈페이지 운영에 대한 평가는 있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 개선방향이 미흡	
조 직	1. 직무분석의 구체적 과정이 누락되어, 결과에 대한 합리성 결여 – data 수록 요함 2. 인력산정시 초과근무시간을 적용한 배경과 근거가 없으며, 주간정상근무에 대한 분석(업무일지, 타임쉬트)이 없어 비합리적임. 3. 재무구조와 인력산정의 관계 검토 – 3개년 연평균 성장률이 하락함에도 인력은 3~4 명이 추가 소요 4. 직원 성과급제 도입시 협회조직 및 업무에 맞는 평가기준을 적용(일반적 평가체계가 제시됨) 5. 복리, 후생제도 내용이 없음	
기 타	1. 회원의 입장에서 분석, 방향제시 (예: p.139 전산기능 강화 –Archi DB, 작품전시관, …등 관리되지 않는 페이지는 폐지) – 관리입장보다 회원입장이 우선 2. 표현을 구체적으로 하고 명확한 의견을 표현할 것	

■ 제2회 기획소위원회

제2회 기획소위원회 회의가 지난 11월 1일 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회의결과

– 한국생산성본부의 전문수석위원의 보완요청에 대한 의견을 우선적으로 청취하고 1차 검토의견서의 요구사항들에 대한 내용이 보고서(안)에 반영되었는지 여부를 검토함. 검토결과 반영이 미비한 부분에 대해 붙임과 같이 추가보완요청서를 작성하여, 용역업체에 전달하고 최종보고서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함.

■ 제7회 기획위원회

제7회 기획위원회 회의가 지난 11월12일 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협의사항

• 제1호 : 중요기록물 관리의 건

– 협회 중요물 관리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중요기록생산및보존에관한 규정(안)'을 이사회 협의사항으로 상정하기로 하고, 이사회의 의견을 들어 차기위원회에서 최종 작성키로 함.

• 제2호 : 정관개정 추진의 건

– 회장 직선제 도입에 대한 정관개정(안)을 이사회 협의사항으로 상정하기로 함.

• 제3호 : 협회 조직 및 경영진단 최종보고서(안) 검토의 건

– 제출된 최종보고서(안) 중 일부 오류부분 등을 수정 보완 후 납품 조건으로 검수하기로 함.

▷ 전문CEO제도를 도입한 타협회 사례 및 장단점 비교자료

▷ 한국건축산업대전 흑자 전환 (87p) – 담당 2인 인건비 반영 분석

▷ 건축사시험 응시자격 확대 (20p) – 오류수정 등

• 제4호 : 회원인증 및 교육규정 개정방안의 건

– 건축사교육원운영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회원인증교육을 폐지하는 것으로 정관 및 관련규정을 개정키로 함.

• 제5호 : 예산결산소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건

– 예산결산소위원장에 홍사원 부위원장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 기획위원회 위원 5~6명을 위원으로 구성키로 소위원장에게 위임함.

■ 제1회 시도건축사회 사무국장회의

제1회 시도건축사회 사무국장회의가 지난 10월12일 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회의결과

Ⅰ. 협회 주요현안

□ 법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 협회 주요현안 중 법제도개선에 관한 아래 세가지(가~다) 사항의 진행상황과 협회대응에 대해 설명하고, (라) 대구 · 경북 건축공사 감리운영 협의회 과징금 부과에 관한 사항은 법무법인(유) 화우의 담당 변호사가 공정거래위원회 진행사항과 건축공사 감리업무 운영규정 및 운영세칙에 대해 설명을 한 후, 각 시도건축사회의 사무국장과 의견을 교환함.

가. 건축물 유지 · 관리 점검 매뉴얼 마련 진행사항

나. 소규모건축물 감리제도 개선 진행현황

다. 대지안의 공지 관련 건축법 개정 추진현황

라. 대구 · 경북 건축공사 감리운영 협의회 과징금 부과

□ 건축사 등록원 안내 및 건축사 실무교육 안내

○ 건축사 등록원 및 건축사 실무교육 안내를 대한민국건축사대회와 한국건축산업대전 행사시 실무교육 일정과 연계하여 설명함

□ 2012 대한민국건축사대회 행사안내

○ 2012 대한민국건축사대회 운영계획과 참가안내 공지사항을 광주건축사회 사무국장과 기획사 대표로부터 설명을 듣고 행사시 협조사항에 대해 의견을 교환함.

□ 수탁업무등의 세무분석

○ 건축사회에서 시행하고 있는 수탁사업중 일부 업무가 그 처리방법 및 절차, 해당업무에 대한 건축사회의 권한 정도에 따라 수익사업으로 판단되어 과세될 소지가 있으니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

– 수탁사업 수입에서 회비를 수납하는 경우 건축사회 회칙 또는 회비규정에 수탁업무 수입 중 일정액(또는 일정율)을 실적회비로 한다는 식의 근거규정을 마련토록 해야 함

– 건축사회의 수탁업무(조사검사대행업무, 디자인 자문, 안전진단대행 등) 처리기준 및 방법, 절차가 건축사회 마다 달라 세무적인 문제 파악에도 상당한 애로가 있음.

– 세무문제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의견보다 세무관청인 국세청의 판단이 중요하고, 국세청에서는 보수적으로 판단하는 점을 감안하여 수탁업무 등의 수익사업 세금문제가 시도건축사회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사전 대비가 필요함

– 본협회에서 시도건축사회의 세무처리현황을 조사중에 있으며, 검토후 세무처리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공통적으로 운영할 계획임.

– 복식부기 도입과 수익사업의 효율성 및 수익성을 고려하여 회계(세무)업무를 처리하는데 있어 문제가 없어야 할 것임.

■ 제8회 주거복지위원회

제8회 주거복지위원회 회의가 지난 10월16일 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협의사항

• 제1호 : '우리도시 되살리기' 간담회 및 현장답사 결과보고의 건

– 역세권인 대전 정동을 살리기 위해서는 우선 대전역 광장의 개방이 필수적이며 사업방향을 쪽방촌 밀집지역은 완전 철거하여 1층은 상가, 2층 이상은 쪽방촌 사람을 수용하고 관광객이 머물 수 있는 저가형 게스트 하우스를 설치하고 다른 구역은 집을 지을 수 없는 골목길이면서 상업지구임에 따라 작은 골목길을 잇고 도로정비, 외벽보수, 환경개선 등을 통한 문화의 거리로 리모델링하는 사업개발을 추진하여 근대와 현대가 만나는 도시로 사업계획을 진행하는 것으로 결정함.

• 제2호 : "우리도시 되살리기" 세미나 개최의 건

– 완전철거(상업지역) 계획, 골목길 재생(근대화거리) 계획, 광장개발 계획, 세미나준비에 대한 업무를 각위원별로 분담하여 준비키로 하고 차기위원회('12.10.29)에서 준비된 자료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논의하기로 함.

■ 제9회 주거복지위원회

제9회 주거복지위원회 회의가 지난 10월29일 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협의사항

• 제1호 : '우리도시 되살리기' 세미나 개최의 건

– 대전시 정동의 사업개발 계획(안)을 아래와 같이 계획하여 추진키로 하고 오늘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광장개발과 골목길 리모델링, 임대주택, 커뮤니티, 공원계획을 담당위원들이 구체적으로 조사 · 검토하여 차기회의에서 확정하기로 함.

□ 완전철거(상업지역) – (박순란 위원장)

· 정동 활성화 계획안의 도면을 기본으로 1층은 상가, 2층 이상은 저가형 게스트 하우스 설치하는 것으로 확정하기로 함

□ 골목길 재생(근대화 거리)–(정영태 위원)

· 골목길 재생(근대화거리) – 계획 : 현 정동의 골목길에 대한 현장 촬영과 존치 보존할 골목길을 발굴하여 재생시킬 구체적인 방법을 차기회의에서 설명한 후 논의하기로 함.

□ 도로패턴, 시설물 및 가로등 디자인 – (강정연 위원)
· 서울시 공공시설물 표준형 디자인을 기본으로 바닥을 심플하고 저채도로 하되 정동 지역의 특성에 맞게 선택하기로 함.

□ 광장개발 계획 – (장미경, 한상미 위원)
· 기존 광장의 회차구간은 그대로 가고 코레일 부지 주차장을 더 확보하여 광장과 녹지공간, 공연공간으로 확보
· 주차장옆 담장을 허물어 공원화하여 개방시키고 앞 상권을 활성화에 대하여 도면화 하여 차기회의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하기로 함.

□ 기타사항 – (박영희, 임혜숙 위원)
· 3구역의 공영주차장은 임대주택과 커뮤니티센터 및 북카페로, 지하1층은 주차장으로, 1층은 상가로 계획하고 맞은편의 사유지는 공원화 하는 것으로 결정하되 차기회의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하기로 함.
· 임대주택과 커뮤니티센터 및 북카페

□ 세미나 및 최종보고서 제작과 관련하여 CG 작업을 아래와 같이 4컷 정도 준비하는 것으로 결정함.
– 광장에서 대한 생명
– 주차장 진입로(기차 위치부분)
– 게스트하우스 및 상가 진입로
– 골목길

■ 제1회 선거관리위원회

제1회 선거관리위원회 회의가 지난 10월18일 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협의사항

• 제1호 : 선거사무 추진일정의 건
– 선거사무 추진일정(안)에 대해 협의하여 일부내용을 수정하였으며, 향후 정기총회 개최일이 확정되면 일정을 조정하도록 하고 추진일정(안)을 잠정 확정함.
▷ 임원선거규정 개정내용에 따르면 선거예정일 70일부터 본선거공고 전까지는 예비후보자 등록이 가능한 것이므로 예비후보자 등록기한을 한정하지 않는 것이 타당함
▷ 예비후보자 등록공고시 전체 선거일정을 예고하도록 함
▷ 후보자등록기간은 주중부터 시작하여 규정상의 7일의 등록기한을 두는 것으로 수정함
▷ 후보자합동토론회를 선관위가 주관하여 2012. 2. 5(화) 예정으로 개최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토론회 개최계획을 수정키로 함.

▲기타사항
– 후보자 기탁금에서 선거비용을 사용하고 정산하여 반환하므로 선거비용을 투명하게 사용하여야 할 것임.
– 후보자 기탁금보다 선거비용이 초과된 경우나, 선거비용 정산반환후 위원회를 개최할 경우, 선거비용 지출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위원회회의비나 예비비에서 지출되도록 보완 필요함.

■ 제10회 국제위원회

제10회 국제위원회 회의가 지난 10월12일 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협의사항

• 제1호 : 2012년도 해외단체장 초청계획의 건
– 회의별 담당자를 선정하고, 담당위원이 회의진행 및 회의결과를 준비하도록 협의함
• 제2호 : 제15차 아시아건축사대회 및 제33차 이사회 참가의 건
– KIRA Report는 다음 주에 일괄적으로 ARCASIA Website에 업로드하기로 협의함
– 아시아건축유산위원회 신설 요청은 ARCASIA 이사회에 제출한 Proposal과 Bylaw를 바탕으로 필요성을 피력할 예정임
– ARCASIA OB가 제안한 아시아건축유산위원회의 새로운 위원회명(Arcasia Committee on Heritage and Conservation, ACHC)을 사용하기로 함
– 학생잼버리에 참가하는 학생대표는 2인을 선발해야 하므로 면접에 참가한 건축문화대상 계획부문 수상자 1인과 Call for Papers에 선발된 1인, 총 2인을 학생대표로 선발하기로 협의함
– 부족한 참가예산은 참가자들이 자비부담하기로 협의함
– ARCASIA 교육위원회는 본협회 교육원운영위원회가 준비되는 대로 관련 업무에 참여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조인숙 위원장)
• 제3호 : 제16차 한중일건축사협의회 참가의 건
– Young Architect를 위한 국제화 지원 프로젝트 참가예산은 행사를 주최하는 나라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제안하기로 협의함
– 주최 측의 사정으로 개최일자가 변경되었으므로, 새로운 개최일자 협의 전까지 회의별 담당자들은 맡은 회의자료 준비하도록 협의함

□ 연사 및 발표자 논의결과

일자	시간	회의(세션) 주제	담당자/발표자
11.15 (목)	전일	한중일건축사협의회	
	08:20~ 08:50	1. 한중일건축사협의회 실무핸드북 발간 발표식 (주관 : JFABEA)	담당: 이승석 위원
	08:50~ 09:35	2. APEC건축사 제도 추진현황 ☞KIRA : 09:20~09:35 (15분)	김지덕 대한민국 APEC등록 건축사위원회 위원장, 조인숙
	10:00~ 11:00	3. 건설시장 감리, 건축실무행정, 건축사의 책임과 신뢰에 관한 논의 및 3국의 건축사 윤리 ☞KIRA : 10:30~10:45 (15분)	국토해양부 관계자 (예정)
	11:10~ 11:30	4. JFABEA 제안에 관한 논의 · Young Architects를 위한 국제화 지원 프로젝트	조인숙 국제위원장
	13:30~ 16:50 (동시개최)	○ 회장단 회의 (Summit Meeting) 3국 공통 이슈 및 차후 협력방안 (Common interests and concerns of three organizations and future cooperation among three organizations) ☞KIRA : 14:00~14:15 (15분)	회장, 신춘규 국제이사, 전성호 위원
		○ 기술교류회의 (Technical Exchange Meeting)	조인숙 국제위원장
		주제 1. 국제적인 관광 섬 건설에 관한 아이디어 ☞KIRA : 14:00~14:30 (30분)	심형섭 위원
		주제 2. 건설에서의 자연재해 방지와 완화 ☞KIRA : 15:40~16:10 (30분)	서울시 관계자 (예정)
		○ Community Architect 포럼 ☞KIRA : 14:00~14:30 (30분)	김지덕 자문위원, 오동희 위원
	18:20~ 18:50	차기회의 개최지 소개 (대한민국 인천)	인천건축사회 관계자, 인천광역시 관계자 (예정)

▲기타사항

– 국가별 MOU 체결에 관한 원칙을 정하는 방안을 제안함

– Working Plan이 만료된 몽골건축사협회(UMA)와 협의하여 교류를 다시 활성화하는 방안을 제안함

– KIRA-ACE 교류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제안함

– NCARB(미국건축사등록원)와의 교류에 관한 사항은 교류단체의 성격을 고려 하여 본협회 건축사등록원에서 진행하는 방안을 제안함

■ 제7회 정책위원회

제7회 정책위원회 회의가 지난 10월15일 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협의사항

• 제1호 : 정책토론회 개최계획의 건

– 이사회에서 요청한대로 범건축계를 아우를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소위원회에서 검토한 결과 개최장소 및 본협회의 일정 등 여러 가지 여건상 어려움이 있으므로 당초 정책위원회에서 추진한 대로 대내적으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키로 하고 세부 개최 계획에 대해서는 정책소위원에 위임하기로 함.

• 제2호 : 대한건축사협회 협의회 구성 · 운영방향의 건

– 사회변화추세에 맞춰 협의회(법인협의회, 여성건축사협의회, 청년건축사협의회 등) 구성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위원들 대다수가 공감하고 재정지원 방안 및 시기 등에 대해서는 차기 위원회에서 한 번 더 논의하기로 함.

▷ 정책위원회에서 논의한 사항을 토대로 기획위원회에서 조직구성 및 관련규정 제정방향을 논의.

• 제3호 : 건축사공제조합 운영개선의 건

– 위원들이 개선 방향의견을 사무처에 전달하기로 하고 차기 회의에서 재 논의를 해서 협의된 운영개선 의견을 공제조합 운영위원회에 정책위원회의 의견으로 전달하기로 함.

• 제4호 : 2012 대한민국건축사대회 건축사비전 선포문 작성의 건

– 백민석위원이 작성 하기로 함.

■ 제6회 정책소위원회

제6회 정책소위원회 회의가 지난 10월22일 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협의사항

• 제1호 : 정책토론회 개최계획의 건

– 정책토론회 개최계획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협의함.

– 토론회 주제

▷ 건축사업무 정상화 방안은 있는가?

– 일시 및 장소

▷ 일 시 : 12월중

▷ 장 소 : 본협회 1층 대강당

– 발표자 및 자료작성 :

▷ 총 5가지 꼭지(교육, 설계, 감리, 법제도부분, 계약부분, 건축물유지관리)로 하여 유광흠(건축도시공간연구소), 이상진(숭실대학교 교수), 또는 해당 전문가에게 위원장이 직접 자료작성 여부를 타진하기로 함.

▷ 해당 5가지 꼭지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추후 소위원회 위원들이 정리하여 자료 작성시 보완하기로 함.

– 설문지 작성 :

▷ 백민석 위원이 23일까지 내용을 보완한 이후에 위원장 검토 후 건축사대회 이전에 각 시도건축사회에 전달하여 설문지 내용이 작성될 수 있도록 요청하기로 함.

▲기타사항

– 예비후보자 등록시점 이후에 정책토론회 주제와 관련하여 회장후보자 토론의 장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함.

■ 제7회 정책소위원회

제7회 정책소위원회 회의가 지난 11월 5일 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협의사항

• 제1호 : 정책토론회 개최계획의 건

– 정책토론회 개최계획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협의함.

– 토론회 주제

▷ 건축사업무 발전적 방안은 있는가?

– 일시 및 장소

▷ 일 시 : 12월 10일(월) 14시~17시

▷ 장 소 : 본협회 1층 대강당

– 주최/주관 : 대한건축사협회/정책위원회

– 후원 : 국가건축정책위원회, 건축도시공간연구소, 대한건축학회, 한국건축가협회

– 발표자(2인) 및 자료작성 :

– 유광흠(건축도시공간연구소), 이상진(숭실대학교 교수)에게 총 5가지 꼭지(교육, 설계, 감리, 법제도부분, 계약부분, 건축물유지관리) 범위내에서 아래 주제로 원고청탁 및 발표를 요청함.

· 유광흠 : 건축사 업무의 환경변화와 대응 방안

· 이상진 : 건축사 제도 관련 현황 및 문제점

– 해당 원고내용에 대해서는 위원장 검토 후 차기 소위원회에서 논의키로 함.

– 토론자(7인) :

– 외부인사

· 손희준 청주대 행정학과 교수

· 국토해양부 정태화 건축기획과장

· 박은섭 강남구청 과장

· 김헌동 경실련 관계자

– 내부인사

· 이사(정익현), 정책위원회 위원(조익수, 최봉기)

– 손희준 교수, 김헌동 경실련 관계자는 길기현 위원이, 박은섭 과장은 조재용 위원이, 정태화 기획과장은 협회에서 토론자 참석가능여부를 알아보기로 함.

■ 2014 대한민국건축사대회 유치확정 소위원회

2014 대한민국건축사대회 유치확정 소위원회 회의가 지난 10월 19일 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협의사항

• 제1호 : 2014 대한민국건축사대회 주관건축사회 선정의 건

– 2014 대한민국건축사대회는 행정기관과의 협력관계 등을 고려하여 경북건축사회에서 주관토록 확정하고, 2016 대회는 수도권에서 주관하는 방향으로 협의함.

■ 제12회 건축영화제 TF

제12회 건축영화제 TF 회의가 지난 10월12일 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협의사항

• 제1호 : '제4회 서울국제건축영화제' 시행의 건

– 제4회 서울국제건축영화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논의 함.

▷ 제4회 서울국제건축영화제 상영작 및 시간표, HAF · GV 일정을 확정, 완료 함.

▷ 상영본제작과 자막제작 업체를 작년과 동일하게 진 미디어, 시네서브 자람으로 하여 계약을 체결 함.

▷ 팜플렛 및 리플렛 제작 업체또한 작년과 동일하게 씨아이알 코리아에서 진행하기로 함.

▷ 트레일러 음악제작을 고기은 감독에게 맡기기로 함.

▷ 영화제 예산 부족으로 리셉션 및 케이터링을 최소화 하여 진행함.

▷ 홈페이지 디자인 개선 및 자료 업데이트를 서둘러 진행함.

■ 제13회 건축영화제 TF

제13회 건축영화제 TF 회의가 지난 10월18일 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협의사항

• 제1호 : '제4회 서울국제건축영화제' 시행의 건

– 제4회 서울국제건축영화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논의 함.

▷ 배우 진세연을 영화제 홍보대사로 섭외 요청에 들어감.

▷ 대성 그린테크에서 100만원 협찬하기로 하여, 리플렛 및 팜플렛에 로고를 삽입하기로 함.

▷ 관객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이벤트 행사가 없다고 하여, 비용을 들이지 않으면서 쉽게 준비할 수 있는 작은 이벤트를 생각해 보기로 함.

▷ 해외배급사의 연락 두절로 진행에 문제가 있던 영화 '브라질' 상영을 추진하기로 결정함.

▷ 무대단상제작을 ㈜피플ENT에서 견적을 받아 진행하기로 함.

▷ 리셉션 케이터링을 작년과 동일하게 성동출장부페에서 진행하기로 함.

▷ 올해 개막식에는 건축계 관련 기자들을 초청하여 영화제

홍보 효과를 높이며, 앞으로는 영화제 개막식에서 기자들의 만남의 장이 될 수 있는 기회로 자리잡도록 꾸준히 초대장을 보내주기로 함.

■ 제8회 사업위원회

제8회 사업위원회 회의가 지난 10월15일 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협의사항

• 제1호 :전시회 최종점검의 건

□ 전체부스현황 2012.10.12 기준

참가업체	유료부스	무료부스	전체 부스
73	146	94	240

※유료부스(200부스) 목표달성율 : 73.0%

□ 무료부스 구성 : 한국건축문화대상 작품전, 건축사미술전,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홍보관, 대한건축사협회(건축사등록원) 홍보관, 전문지 광고교환부스, 비즈니스라운지 등

– 개막식 및 전시기간내 위원 업무분장을 논의하였음.

▷ 한국건축문화대상 시상식과 전시회 개막식관련 VIP초대 및 내빈응접 준비를 꼼꼼히 하며 내빈응접(조성원, 서용주), 개막식사회자(김성진), 전시회 현황보고 및 전시장 내빈안내(이규환)으로 업무분장 함.

▷ 우수건축자재추천심사위원 사전등록(233명/전국)했으며 나머지는 현장등록으로 심사하며 10/23(화)에 방문하는 시 · 도건축사회는 심사평가를 독려키로 함.

▷ 사업위원회 요일별 전시장 상주 일정

· 10/23(화) : 조성원, 서용주, 권영주, 김성진, 서광우, 심형희, 이규환

· 10/24(수) : 조성원, 김현미, 박재한, 윤석동, 이규환

· 10/25(목) : 권영주, 김은철, 김성진, 이규환

· 10/26(금) : 이규환 ※ 광주건축사대회 준비로 강필서 위원 불참

▲기타사항

– 건축문화신문(10/15일자) 후면광고는 일정상 업무추진을 부결함.

– 서울건축사회 회원들의 적극적인 전시회 참관을 위한 시간 조정을 서울회장님께 요청키로 함.

■ 제6회 회원권익보호위원회

제6회 회원권익보호위원회 회의가 지난 10월15일 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협의사항

• 제1호 : 건축신고 기준에 관한 건

– 건축신고에 관한 자료를 임광철 위원이 작성하여 다음 회의 시 논의 하기로 함.

• 제2호 : 현장조사검사 업무 규정 정리에 관한 건

– 현장조사검사에 관한 자료를 임광철 위원이 작성하여 다음 회의 시 논의 하기로 함.

• 제3호 : 인테리어 업무 관련 대응의 건

– 인테리어 설계업무 관련 건축사법 위반에 관한 사항을 한국실내건축가협회에 발송하는 건에 대하여 회장명의로 발송하기로 함.

• 제4호 : 면허 대여에 대한 대응의 건

– 김세정 회원(정림 건축사사무소)의 건축사 면허 대여에 관한 내용이 접수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고발장 초안을 임광철 위원이 작성한 후 위원장이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정리한 후 고발접수 하기로 함.

▲기타사항

·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적용에 관한 문서 발송 건"에 대하여 제8회 이사회(2012.8.22) 협의사항에서 회장 명의로 문서 발송하기로 합의 하였으나, 회장 의지에 따라 제10회 이사회(2012.11.14) 부의안건으로 상정하여 결과에 따라 발송하기로 함.

· 차기 회의 일정 확정 – 2012. 11. 19(월) 오후 4시

■ 제5회 건축사등록원 운영위원회

제5회 건축사등록원 운영위원회 회의가 지난 10월15일 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협의사항

• 제1호 : 건축사등록원 홈페이지에 교육 동영상 게시의 건

– 동영상은 교육원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등록원은 홈페이지에서 링크토록 함.

– 타 교육기관 동영상 게시 관련 비용 배분 등은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협의하고 다음 회의때 재논의 하기로 함.

▷ 소위원회 : 위원(김항년, 김윤), 직원(등록원, 교육원, 전산팀)

• 제2호 : 건축사 실무교육 인정의 건

– 시 · 도건축사회의 건축사 실무교육 인정(자기계발 포함)의 건은 건축사교육원운영위원회에서 담당하기로 함.

▲기타사항

가. 실무교육 관련 세부처리기준 협의내용 보고의 건

1) 집합교육 및 사이버교육의 인정심사수수료를 한 과목당 12만원으로 하고, 관리운영비는 5월31일까지 유예하여 추후 재협의 하는 것으로 국토부와 협의하기로 함.

2) 집합교육 및 사이버교육에 관한 구체적 심사항목은 교육원운영위원회에서 검토한 후 다음 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함.

나. 한중일건축사협의회 참석의 건

– 다음 이사회 때 한중일건축사협의회 참석관련 예산 및 참석인원에 대한 사항을 협의안건으로 상정하기로 함.

■ 제2회 건축사교육원 운영위원회

제2회 건축사교육원 운영위원회 회의가 지난 10월17일 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협의사항

• 제1호 : 건축사 실무교육 계획의 건

– 2012년도 실무교육 인정시간은 전문교육 최대2시간, 자기계발 최대2시간으로 제한하기로 하고, 한국건축산업대전에 연계하여 시행하는 실무교육 추가인정 예정 과목은 전문교육 1시간으로 인정 해주기로 함.

– 실무교육 동영상촬영은 전영철 위원의 "건축법 개편방향"을 촬영하기로 함.

– 동정근 위원이 작성한 붙임 강의계획서 및 강의평가서를 활용하되, 한국건축산업대전 연계 실무교육시 강의평가서를 받기로 함.

– 2012대한민국건축사대회 광주 · 전남 건축물답사 및 투어는 자기계발로 인정하기로 하고, 해설위원 섭외는 장순용 위원이 담당하며, 현장 담당위원들이 출결체크 하기로 함.

– 대구건축문화비엔날레, 경상북도건축문화제, 대한민국건축문화제 및 제4회 대전건축문화제행사 참여는 자기계발 1시간으로 인정하기로 함. 단, 건축인한마음체육대회는 자기계발로 인정하지 않기로 하되 각 시 · 도건축사회 교육위원장 합동 회의 때 다시 논의하기로 함.

– 실무교육과정 인정심사기준은 동정근 전문위원이 정리하여 다음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함.

– 차후 대한민국건축사대회는 해당지역 대학교에서 개최하고, 해당지역 교수들과 산학협동으로 교육을 시키는 것을 건의함.

• 제2호 : 건축사실무교육 비용, 교육장확보의 건

– 실무교육 교육수수료 수입배분(안)은 전영철 위원과 사무국이 검토하여 예상(안)을 다음 교육원운영위원회 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함.

– 실무교육 교육장 확보방안은 평일 집체교육시 국제회의장, 윤리교육시 대강당 사용하기로 함.

• 제3호 : 회원인증 및 교육규정 개정 방향의 건

– 회원인증 및 교육 규정은 제1안 폐지(안)을 건축사교육원운영위원회 의견으로 하여 이사회에 제출하기로 함.

▲기타사항

· 석면관리 교육의 건은 동 내용을 잘 알고있는 황정복 이사가 금번 회의에 불참함에 따라 다음 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함.

· 다음 교육원운영위원회 회의는 11월 12일(월) 오후4시에 개최하기로 함.

■ 제4회 회관관리위원회

제4회 회관관리위원회 회의가 지난 11월8일 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협의사항

• 제1호 : 회관관리규정 개정 협의 건

– 시도건축사회가 참가자로부터 비용을 납부받는 행사에 있어서 "예외기준사용료의 25%적용"에서 "예외기준" 만을 적용하고, 협회후원행사는 "일반기준에서 50%를 적용한다" 를 "예외기준을 적용한다"로 외부학술단체 등의 기준과 동일하게 함.

– 제2안의 예외기준 사용료의 상향조정안으로 하는바 예외기준에 대한 본래의 목적상 외부에 대한 협회이미지 개선 및 위상정립차원에서 실시한 것으로 소액의 인상으로는 협회에 크게 도움 되지 않을뿐더러, 오히려 부정적으로 보일 수 있음.

– 시도건축사회가 참가자로부터 비용을 납부받는 행사에 있어서 "예외기준사용료의 25%적용"에서 "예외기준" 만을 적용하고, 협회후원행사는 "일반기준에서 50%를 적용한다" 를 예외기준을 적용하여 외부학술단체 등의 기준과 동일하게 함.

□ 개정(안)

구 분	현 행	상 정 안
협회주최,주관행사	무료	현행과 동일
시.도건축사회가 참가자로 부터 비용을 납부 받는 행사	예외기준사용료의 25% 적용	예외기준 적용
후원 행사	일반기준의 50% 할인	예외기준 적용
회원, 입주사, 장기임차자	일반기준의 30% 할인	현행과 동일
학술 및 연구단체 건축, 음악, 미술, 문학 관련 행사	예외기준 적용	현행과 동일

• 제2호 : 정부위탁업무에 대한 관리운영비 협의건

– 정부위탁업무의 관리운영비 책정에서 일반임대기준에서의 위탁 업무라는 특성을 감안 보증금은 유보하고 임대료는 30%정도 할인율을 적용하며 관리비는 일반적용과 동일하게 적용하는 방안을 상정함.

• 제3호 : 결혼도움방 사용료 조정 협의 건

– 현재 예식사업에 대한 객관적인 사정을 감안하여 조정하되 현재 계약의 잔여기간만을 적용하여 주고, 이후 계약에서 재검토후 결정토록 함.

▲기타사항

· 대강당조명개선은 LED조명의 현장검수 결과 자연광(Warm light)은 전반적조명으로(86개)하고, 출입구측은 주광색계통으로 교체하는 것으로 조속히 공사진행함.

· 대강당 패브릭흡음제시공 건은 현장견본조사결과 선정한 3개의 견본의 크기를 크게(실제시공1단의 높이)하여 최종시연 후 결정토록 함.

대한건축사협회 감사 워크숍 개최

대한건축사협회는 지난 11월 6일 건축사회관 3층 세미나실에서 '대한건축사협회 감사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워크숍은 대한건축사협회 본협회 및 전국 시도건축사회 감사 전원을 대상으로 감사기법 교육을 통한 감사절차의 통일성 확보와 회의법 교육을 통한 회의절차의 정확성 및 통일성 확보, 본협회 및 시도건축사회간 주요현안에 대한 정보교류를 위해 본협회 감사인 김상부, 이영호 감사의 계획 하에 개최됐다.

시도건축사회 감사 등 34명이 참석한 가운데 강성익 회장은 인사말에서 "협회의 정체성과 역할, 방향을 정비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데 있어서 감사 여러분들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협회가 건축계 중심이 되는 전문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점검해보고, 협회발전에 있어 큰 힘이 될 수 있는 뜻 깊은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이영호 감사는 "감사절차의 통일성을 확보하고 회의절차의 정확성을 도모하며 본협회와 시도건축사회의 주요현안에 대한 정보교류"를 워크숍 개최배경으로 밝히며 "감사는 집행부가 협회의 정체성을 훼손하지 않고 회원의 권익신장을 위해 매진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회무를 처리하여 미래지향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조직의 모든 부분을 가장 건강한 상태로 유지하게 하여 업무에 최상의 효과를 올릴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한건축사협회 업무현황보고와 (사)한국청소년회의소 연수원의 한상규 교수가 '원활한 회의진행방법'을 주제로, 감사원 감사교육원 김흥률 교수가 '내부통제와 자체감사'를 주제로 강연했다. 강연 뒤에는 본협회 김상부 감사의 사회로 감사 간담회를 진행했다. 간담회에서 이무열 전 본협회 감사의 본협회 감사로서의 역할 및 경험담과 시도건축사회별 워크숍 소감 및 건의사항 발표 등이 진행됐다. 한편, 건의사항에서는 "오늘 감사 워크숍은 좋은 내용이 많아 유익했으며, 시간이 촉박한 것이 아쉬운 만큼 1박 2일로 개최했으면 한다"는 내용과 "국토부가 세종시로 이전하는 만큼 우리 협회도 장기적인 마스터플랜이 필요할 것"이라는 등의 내용이 건의됐다. 아울러 종합정리와 함께 참가자 전원 설문조사를 통한 더 나은 감사워크숍을 기약하며 마쳤다.

참석자는 다음과 같다.

〈본협회 감사〉

이영호, 김상부, 이무열(직전감사)

〈시도건축사회 감사〉

한상우, 신제흥(서울) / 주영원, 김정관(부산) / 이완진(대구) / 김영철, 정재남(인천) / 조휴환, 이광천(광주) / 권이원, 박성수(대전) / 임채룡(울산) / 지헌춘(경기) / 설태영(강원) / 오긍균(충북) / 김동욱, 유재창(충남) / 이진희, 임순호(전북) / 김강룡(전남) / 권상기(경북) / 박갑주(경남) / 오제호, 장언식(제주)

2012년도 건축사자격시험 합격예정자 발표

2012년도 건축사자격시험 합격예정자 명단이 대한건축사협회 및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에 발표됐다.

총 3,985명이 응시해 449명이 합격했으며, 합격률은 지난해 9.5% 보다 소폭 상승한 11.3%이다.

이번 시험의 최고 득점자는 윤용배 씨(35세)로 300점 만점에 229.5점, 평균 76.5점을 득점했다. 또한 여성 합격예정자는 총 97명으로 지난 해 20.4%에 비해 1.2% 늘어난 전체의 21.6%로 여성의 합격률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서류심사를 거친 최종합격자는 2013년 1월 4일 대한건축사협회

및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

한편 지난 1963년 12월 16일 건축사법이 제정 · 시행된 이래 자격시험을 통해 배출된 건축사는 2012년 현재 총 17,716명이다.

대구건축사회와 대구건설협회, 대구법원 합동 간담회 개최

대구광역시건축사회(회장 이택붕)는 지난 11월 20일 대구건축사회관에서 대구건설협회 및 대구법원과 합동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사법부가 국민과의 소통 및 공감과 재판부의 전문성 확보 차원에서 대구법원 내 건설 전담 재판부인 대구고등법원의 제2민사부와 대구지방법원의 제13민사부, 제14민사단독, 제17민사단독에서 이루어지는 소송에 대해 외부전문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전문가와의 간담회를 개최함으로써, 업무에 있어서의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마련된 자리로, 소송 및 그에 따른 감정의 중요성과 그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나누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남원지역건축사회 애향장학숙 건립기금 기탁

전라북도건축사회 남원지역건축사회는 지난 11월 1일 남원시애향운동본부에 '애향장학숙 건립기금'에 써 달라며 500만원을 기탁했다.

애향장학숙 건립사업은 남원시 출신의 우수 인재들이 서울에서 주거걱정 없이 공부에만 전념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드는데 있다.

남원시 애향운동본부장은 "지금처럼 경제적으로 힘든 여건 속에서 500만원이라는 큰돈을 기탁하신 남원지역건축사회에 자발적인 기금모금은 귀하고 보람차며 이것이 시발점이 돼서 애향장학숙 건립 기금모금이 활기차게 진행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감사의 말을 전했다.

건축계소식

2014 이관유세계도시상 공모전

싱가포르도시재개발청과 살기좋은도시센터는 전 세계에 살기 좋고 지속가능한 도시형성에 큰 공로와 업적을 세운 프로젝트에 2년에 한 번 수여하는 국제적인 상인 이관유세계도시상 공모전을 개최한다.

본 공모전은 추천 및 심사를 통해 진행되며, 추천자격은 도시설계 · 주택 · 교통 운영, 도시설계 및 건축, 에너지보존, 도시정책 및 운영, 기타 관련 분야의 선두적인 학자, 공무원 및 국제기구의 장과 공공 및 민간단체, 비정부기구, 학술단체 등이다.

지난 2012년도 수상작은 미국의 뉴욕시이며 2010년도 수상작은 스페인의 빌바오시청이다.

1차 추천서류 제출은 2013년 3월 29일까지이며, 2차 포트폴리오 및 관련서류 제출은 2013년 5월 31일 18시까지이다. 자세한 사항은 이관유세계도시상(www.leekuanyewworldcityprize.com.sg) 및 이메일 문의(leekuanyew_worldcityprize@ura.gov.sg)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

녹색건축 인증제 브랜드네임 국민공모

국토해양부와 환경부는 2002년부터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이 2013년 2월 2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기존의 '친환경건축물 인증제'가 '녹색건축 인증제'로 새로운 출발하게 됐다.

이에 따라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한국교육환경연구원, 한양대 친환경건축연구센터는 '녹색건축 인증제'의 상징성을 부각하고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참신하고 창의적인 영문 브랜드네임 공모한다.

2012년 12월 2일까지 대한민국 국민 혹은 거주 외국인, 단체나 법인명의도 응모 가능하며, 최우수상 1작품에게 국토해양부장관상 및 상금 3백만원, 우수상 2작품에 상금 각 1백만원을 수상한다.

결과는 마감 후 일주일 뒤 개별통지하거나 한국교육환경연구원 홈페이지(www.kiee.re.kr)에 공고한다. 응모방법 문의는 응모 공식 페이스북(http://www.facebook.com/GreenNaming)이나 070-4349-5316로 하면 된다.

KCC 석고보드 '최우수 친환경 건축자재' 인증

KCC가 고성능 방수 석고보드 'WATERWIN'이 한국공기청정협회로부터 친환경 건축자재 인증인 HB(Healthy Building Material)마크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고 밝혔다.

HB마크는 국내외에서 생산되는 건축자재에 대한 유기화합물

및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

한편 지난 1963년 12월 16일 건축사법이 제정 · 시행된 이래 자격시험을 통해 배출된 건축사는 2012년 현재 총 17,716명이다.

대구건축사회와 대구건설협회, 대구법원 합동 간담회 개최

대구광역시건축사회(회장 이택붕)는 지난 11월 20일 대구건축사회관에서 대구건설협회 및 대구법원과 합동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사법부가 국민과의 소통 및 공감과 재판부의 전문성 확보 차원에서 대구법원 내 건설 전담 재판부인 대구고등법원의 제2민사부와 대구지방법원의 제13민사부, 제14민사단독, 제17민사단독에서 이루어지는 소송에 대해 외부전문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전문가와의 간담회를 개최함으로써, 업무에 있어서의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마련된 자리로, 소송 및 그에 따른 감정의 중요성과 그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나누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남원지역건축사회 애향장학숙 건립기금 기탁

전라북도건축사회 남원지역건축사회는 지난 11월 1일 남원시애향운동본부에 '애향장학숙 건립기금'에 써 달라며 500만원을 기탁했다.

애향장학숙 건립사업은 남원시 출신의 우수 인재들이 서울에서 주거걱정 없이 공부에만 전념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드는데 있다.

남원시 애향운동본부장은 "지금처럼 경제적으로 힘든 여건 속에서 500만원이라는 큰돈을 기탁하신 남원지역건축사회에 자발적인 기금모금은 귀하고 보람차며 이것이 시발점이 돼서 애향장학숙 건립 기금모금이 활기차게 진행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감사의 말을 전했다.

건축계소식

2014 이관유세계도시상 공모전

싱가포르도시재개발청과 살기좋은도시센터는 전 세계에 살기 좋고 지속가능한 도시형성에 큰 공로와 업적을 세운 프로젝트에 2년에 한 번 수여하는 국제적인 상인 이관유세계도시상 공모전을 개최한다.

본 공모전은 추천 및 심사를 통해 진행되며, 추천자격은 도시설계 · 주택 · 교통 운영, 도시설계 및 건축, 에너지보존, 도시정책 및 운영, 기타 관련 분야의 선두적인 학자, 공무원 및 국제기구의 장과 공공 및 민간단체, 비정부기구, 학술단체 등이다.

지난 2012년도 수상작은 미국의 뉴욕시이며 2010년도 수상작은 스페인의 빌바오시청이다.

1차 추천서류 제출은 2013년 3월 29일까지이며, 2차 포트폴리오 및 관련서류 제출은 2013년 5월 31일 18시까지이다. 자세한 사항은 이관유세계도시상(www.leekuanyewworldcityprize.com.sg) 및 이메일 문의(leekuanyew_worldcityprize@ura.gov.sg)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

녹색건축 인증제 브랜드네임 국민공모

국토해양부와 환경부는 2002년부터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이 2013년 2월 2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기존의 '친환경건축물 인증제'가 '녹색건축 인증제'로 새로운 출발하게 됐다.

이에 따라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한국교육환경연구원, 한양대 친환경건축연구센터는 '녹색건축 인증제'의 상징성을 부각하고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참신하고 창의적인 영문 브랜드네임 공모한다.

2012년 12월 2일까지 대한민국 국민 혹은 거주 외국인, 단체나 법인명의도 응모 가능하며, 최우수상 1작품에게 국토해양부장관상 및 상금 3백만원, 우수상 2작품에 상금 각 1백만원을 수상한다.

결과는 마감 후 일주일 뒤 개별통지하거나 한국교육환경연구원 홈페이지(www.kiee.re.kr)에 공고한다. 응모방법 문의는 응모 공식 페이스북(http://www.facebook.com/GreenNaming)이나 070-4349-5316로 하면 된다.

KCC 석고보드 '최우수 친환경 건축자재' 인증

KCC가 고성능 방수 석고보드 'WATERWIN'이 한국공기청정협회로부터 친환경 건축자재 인증인 HB(Healthy Building Material)마크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고 밝혔다.

HB마크는 국내외에서 생산되는 건축자재에 대한 유기화합물

개막식 전경

사회자(양미라, 유영식 감독)

양미라 홍보대사 위촉패 전달

리셉션

제4회 서울국제건축영화제 성료

안철수 대선후보 축전 "대중과 소통이 이루어지는 계기가 되길~"

대한건축사협회와 한국건축단체연합이 주최하는 제4회 서울국제건축영화제가 지난 11월 8일 이화여자대학교 아트하우스 모모에서 성대하게 막을 올렸다.

이번 개막식은 유영식 감독과 올해의 서울국제건축영화제 홍보대사인 영화배우 양미라 씨의 공동사회로 강성익 대한건축사협회 회장, 이장호 감독, 박재동 화백 등 다양한 분야의 내 · 외빈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특히 당시 안철수 대선후보는 서면을 통해 "도시의 역사와 인간의 삶을 주제로 개최되는 영화제라는 점이 신선하다"고 밝히며, 건축관련 업계의 협력과 대중과의 소통이 이루어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는 축하인사를 보냈다.

개막선언(김형수 집행위원장)

축하공연

또한 이장호 감독은"건축은 영화와 비슷하다. 공학적인 부분을 지니면서도 예술적이기 때문에 모든 능력을 가져야 한다. 7일 동안 건축과 영화를 함께 할 수 있어 기쁘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오후 8시부터는 개막작 아젬(Imre Azem) 감독의 '에쿠메노폴리스(Ekumenopolis)'가 상영됐다. 전석 매진을 기록한 에쿠메노폴리스는 이스탄불의 맹목적이고 위협적인 도시문제를 다룬 다큐멘터리로 도시화에 따른 문제들의 심각성을 이스탄불에 국한하지 않고 서울, 나아가서는 전 세계적으로 관객들에게 진정한 도시의 의미를 생각하게 한다는 평을 받았다.

또 11월 9일부터 11일까지는 영화제의 대표적인 부대행사인 호스트 아키텍트 포럼(Host Architect Forum)'과 '관객과의 대화(Guest Visit)'가 진행됐다. 호스트 아키텍트 포럼은 명망 높은 건축사들을 초청하여 상영작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으로 올 해는 한국건축문화대상의 수상자인 오세왕, 김창길, 이기옥 건축사가 함께 했으며, 관객과의 대화 시간엔 이장호 감독, 김광현 서울대학교 교수 등이 참석해 도시에 관한 그들만의 생각을 듣고, 관객들과 함께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TVOC, HCHO) 방출강도를 친환경 건축자재 단체품질인증 규정에 따라 양호부터 최우수까지 3등급으로 나눠 부여하는 지식경제부 위탁 공인 제도이다.

이번에 HB 인증 최우수 등급을 획득한 KCC 'WATERWIN'는 KCC의 장섬유(Glass Tissue)기술이 집약된 특수 원지를 사용한 고성능 방수석고보드이다. 특수원지와 고성능 방수액 처리로 인해 내수성능이 매우 우수하며, 석고에 별도 방균 처리를 하여 곰팡이 발생을 억제하는 방균성이 탁월하다. 이로 인해 욕실, 발코니 등 습기 노출이 많은 부분에 시공 되어 우수한 성능을 발휘하며, 제품 자체로도 마감시공이 가능하다.

KCC 석고보드는 제품 모두 재활용이 가능한 인산석고 및 배연탈황석고를 주 원료로 사용하여 벽 및 천장 마감재 부문(인증사유 : 유효자원의 재활용, 유해물질 저감)에서 환경마크를 획득하였고, HB마크(최우수 등급)등의 인증을 통해 제품의 친환경성을 보여주는 한편 작년에 업계 최초로 탄소성적표지인증을 취득함으로써 KCC의 석고보드 생산에 있어 기후변화대응 의지가 반영된 제품이다

KCC 관계자는 "KCC는 건강과 환경을 중시하는 수요자의 요구 및 '저탄소 녹색 성장', '그린홈' 추진 등 정부 정책에 발맞추어 친환경 기능성 제품 개발에 꾸준히 투자하고 있다"며 "석고보드의 HB 인증을 토대로 다양한 제품에 HB 인증 취득을 확대, 추진하여 친환경 자재 시장을 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간안내

인생을 바꾸는 건축수업 : 삶을 건축하며 나는 성장한다
김진애 저 | 348쪽 | 다산북스

저자 김진애는 '김진에너지'라는 별명처럼, 도시건축 전문가로서 사회와 정치를 넘나드는 적극적 활동과 삶과 인생에 대한 다양한 저술 활동을 통해 세상에 에너지를 전파하는 건축인으로서 그녀 자신이 지금껏 쌓아 올린 '건축수업'을 통해 우리 자신을, 우리의 일상을, 우리의 삶을 성장시키는 방법을 차근차근 들려준다.

책은 총 4부(탐험하는 건축, 소통하는 건축, 짓는 건축, 느끼는 건축)로 나뉘어 있고, 모두 30가지 프로젝트로 구성되어 있다. 추상적인 개념과 구체적인 실행을 오가고, 눈에 보이는 현상과 눈에 보이지 않는 본질 사이의 관계를 날카롭게 진단하면서도 독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풍부한 사례를 들어 친절하고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한국 근대도면의 원점 :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근대 측량도와 건축도 1861~1910
전봉희, 이규철, 서영희 공저 | 756쪽 |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신간 '한국 근대도면의 원점'은 한국 최초의 근대 도면을 정리한 한 권의 책으로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이 소장하고 있는 근대 시기 도면 자료를 해제한 것이다.

개항 이후 서구의 근대식 건축 기법과 제도가 도입되면서 왕실과 관청에 의하여 진행된 근대 시설의 건축과 근대적인 도시 관리의 과정에서 생산된 자료들이다. 이 자료에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이른 시기에 만들어진 근대식 건축 도면과 실측도 등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지금까지 극히 일부의 존재만 알려져 있던 규장각 소장 근대 시기 도면자료의 전체 규모와 내용을 정리하여 해제함으로써, 지금까지의 근대건축사, 도시가 연구의 자료부족 문제를 획기적으로 보완할 것이다.

이윤석_Lee, Yun-seok | (주)현신 건축사사무소, 대한건축사협회 국제위원회 위원

리질리언스, 새로운 친환경 디자인인가?

Is Resilience the New Sustainable Design?

허리케인 샌디로 인한 피해

최근 허리케인 샌디로 인한 미국 동부의 많은 피해로 '리질리언스(resilience)'에 관한 개념이 건축계에 중요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뉴욕 맨해튼 남부의 피해는 주목할 만하다. 이들 지역은 9.11 사태 이후 재개발이 이루어진 곳으로 LEED인증을 받은 친환경 건축물이 가장 많은 지역이다. 그러나 이들은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에 초점이 맞추어진 개발로 건축물의 회복력 또는 복구력, 즉 '리질리언스'가 고려되지 않은 점이 문제가 되었다.

우리가 지속가능성이라는 개념에 접근함에 있어 '어떻게 하면 환경에 적은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너무 많은 초점을 맞춘 나머지 '환경의 영향에 어떻게 적절히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은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이번 사태와 같은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전기 공급이 모두 끊긴 상황에서 여분의 파워 시스템 같은 것들이 먼저 고려되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리질리언스'는 새로운 지속가능한 디자인 방법론으로 떠오르고 있다. 자연환경과 재해를 통해 되돌아 오는 자연의 힘을 고려하지 않고서는 회복력 있는 건물이나 인프라를 만들어 낼 수 없다. 그것은 건축환경의 안전과 유지를 평가하기 위한 리스크 관리와 같은 것이다.

우리가 그동안 맹신했던 지속가능성은 최종적인 유토피아가 아니다. 그것은 끊임없는 변화와 불확실성을 가진 유동적인 시스템이다. 우리가 미래를 예언할 수는 없지만 앞으로 닥칠 난기류에 적응하기 위한 재정비는 가능하다. 그런 점에서 '리질리언스'는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신선하고 유용한 관점을 제공하는 새로운 열쇠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미 많은 대중들이 테러나 에너지 부족, 세계 인구의 급증에 대한 걱정으로 회복력 있는 디자인의 필요에 대해 인정하고 있다.

과연 무엇이 정말 '리질리언스' 디자인일까?

철저한 단열계획을 통해 전기공급의 중단이나 연료공급의 차단의 발생에도 거주자의 안전이 유지될 수 있는 것과 같이 그 외 많은 전략들이 회복력 있는 건축을 위해 제기되고 있다.

본질적으로 '리질리언스' 건축을 효과적으로 디자인하는 것은 포스트 카본(POST-CARBON) 시대의 현실과 조건에 맞추는 것이다. 세계의 기후변화는 좋은 건축물에 대한 현재의 인식을 바꾸도록 요구할 것이다. 현재 우리가 건축물의 외장으로 주로 사용하는 커튼월은 미래에는 더 이상 현실적이지 않은 대안이 될 것이다. 탄소시대 이후의 기후에 대응하는 건축환경에서 건축 설계 및 건설에 있어서의 다음 디자인 원칙에 대해 제안하고자 한다.

1. 도시 및 건축을 구성하는 시스템을 다양화하라.

다양성은 외부의 쇼크로 인해 발생하는 한가지 시스템의 실패로부터 생존, 회복, 번영하는 잠재적인 능력을 가져다 주기 때문이다.

2. 여분을 준비하라.

재해나 테러, 에너지 쇼크에 대비하여 여분의 에너지원, 연료, 물의 공급을 준비하여야 한다.

3. 모듈방식과 독립된 시스템으로 구성하라.

시스템의 구성이 충분히 독립되어 있어야 특정 한 부분이 파괴되었을 때 그의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다.

4. 문제를 감지하고 그 변화에 즉시 피드백 가능한 시스템의 능력이 필요하다.

즉각적인 피드백은 시간과 비용을 감소시키는 효율적인 방법이다.

5. 변화에 대한 수용이 유연해야 한다.

도시 및 건축을 구성하는 다양한 시스템과 인프라는 변화하는 조건과 요구에 빠르게 변화 가능하도록 디자인되어야 한다.

6. 환경과 관련된 빠른 대응과 통합능력이 필요하다.

시스템과 기능이 얼마나 빠르게 반응하고 이를 통합하는가는 기술적인 인프라를 건설, 유지하는 비용을 줄일 뿐만 아니라 기후변화에 따른 환경적인 쇼크나 스트레스로부터의 부정적인 가능성 역시 감소 시킬 수 있다.

최근 강화된 기준들에 의해 지어진 몇몇의 건물들은 산불이나 홍수와 같은 재해들로부터 살아남으며 그들의 회복력을 증명했다고 한다.

'리질리언스'에 대한 새로운 개념은 우리의 효율화되고 비용중심의 건설 방식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과연 회복성에 대한 새로운 관심이 지속가능 디자인과 함께 고품질의 건물과 인프라 건설을 장기적으로 장려 할 수 있을까?

※윗글의 일부는 http://www.architectmagazine.com의 기사와 http://www.resilientcity.org/의 게시물 일부를 발췌, 인용하였습니다.

건축사사무소 등록현황

(사 : 사무소수, 회 : 회원수)

2012년 10월말

구분 / 건축사회	개인사무소								법인사무소												합계	
	1인		2인		3인이상		소계		1인		2인		3인		4인		5인이상		소계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합계	5,804	5,804	92	184	8	24	5,904	6,012	1,706	1,706	228	456	58	174	27	108	19	125	2,038	2,569	7,942	8,581
서울	918	918	22	44	1	3	941	955	866	866	122	244	44	132	9	36	13	76	1,054	1,354	1,995	2,319
부산	491	491	11	22	2	6	504	519	116	116	24	48	1	3	3	12	2	15	146	194	650	713
대구	490	490	21	42	4	12	515	544	68	68	18	36	2	6	3	12	0	0	91	122	606	666
인천	285	285	3	6	0	0	288	291	66	66	6	12	1	3	0	0	0	0	73	81	361	372
광주	216	216	0	0	0	0	216	216	44	44	7	14	1	3	3	12	0	0	55	73	271	289
대전	263	263	6	12	0	0	269	275	31	31	7	14	4	12	1	4	1	13	44	74	313	349
울산	182	182	5	10	0	0	187	192	20	20	3	6	0	0	0	0	0	0	23	26	210	218
경기	815	815	2	4	0	0	817	819	245	245	19	38	3	9	2	8	1	5	270	305	1,087	1,124
강원	196	196	2	4	0	0	198	200	25	25	2	4	0	0	1	4	0	0	28	33	226	233
충북	223	223	2	4	0	0	225	227	38	38	3	6	1	3	2	8	1	9	45	64	270	291
충남	268	268	1	2	0	0	269	270	53	53	5	10	1	3	2	8	0	0	61	74	330	344
전북	251	261	5	10	0	0	266	271	24	24	4	8	0	0	1	4	0	0	29	36	295	307
전남	213	213	0	0	0	0	213	213	20	20	2	4	0	0	0	0	1	7	23	31	236	244
경북	391	391	4	8	1	3	396	402	39	39	3	6	0	0	0	0	0	0	42	45	438	447
경남	457	457	8	16	0	0	465	473	36	36	2	4	0	0	0	0	0	0	38	40	503	513
제주	135	135	0	0	0	0	135	135	15	15	1	2	0	0	0	0	0	0	16	17	151	152

건축사회별 회원현황

구분 / 건축사회	회원		준회원
	건축사	비율	
합계	8,581	100%	14
서울	2,319	27%	4
부산	713	8.3%	7
대구	666	7.8%	0
인천	372	4.3%	0
광주	289	3.4%	0
대전	349	4.0%	0
울산	218	2.5%	0
경기	1,124	13.1%	3
강원	233	2.7%	0
충북	291	3.4%	0
충남	344	4.0%	0
전북	307	3.6%	0
전남	244	2.9%	0
경북	447	5.2%	0
경남	513	6.0%	0
제주	152	1.8%	0

건축사등록원 통계현황

구분	자격등록	실무수련
계	2,589	731
서울	484	522
부산	328	20
대구	436	8
인천	294	3
광주	67	16
대전	130	14
울산	50	1
경기	227	19
강원	21	3
충북	98	25
충남	69	22
전북	159	5
전남	90	24
경북	50	4
경남	18	10
제주	2	6
기타	66	29
비고	회원 : 2,350 / 비회원 : 239	대학 : 651 / 대학원 : 80

사무소형태별 회원현황

구분	개인사무소	법인사무소	합계	비고
회원수	6,010	2,570	8,580	
비율	70.11%	29.89%	100%	
사무소수	5,902	2,039	7,941	
비율	74.32%	25.68%	100%	